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

연구 책임자 : 최 정 윤

공동 연구자 : 김 미 란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5
II.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7
1.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	7
2.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	8
3. 시사점	28
III. 주요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30
1. 일본의 고등교육 국제화	30
2. 중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50
IV.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74
1.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 개발	75
2.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타당화	79
3.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안	85
V.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 분석	101
1. 기본 실태	101
2. 국제화 영역간 관련성 분석	140
VII. 요약 및 결론	159

1. 요약	159
2. 정책 제언	162
참 고 문 헌	164

[부록1]

표 차 례

<표 II-1> Knight의 고등교육 기관 국제화 전략 범주	10
<표 II-2> IQRP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11
<표 II-3> ACE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16
<표 II-4> 오사카 대학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20
<표 II-5> 민재형과 이정섭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25
<표 II-6> 신현석의 대학원 교육 국제화의 영역, 지표 및 수준 비교	27
<표 II-7>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 영역 비교	29
<표 III-1> 일본의 교육연구 분야의 국제화 정책	32
<표 III-2> 일본의 대학원 수준에서의 국제화 정책	33
<표 III-3> 국제전략강화사업 채택 기관 및 조직	39
<표 III-4> 해외 거점 활동 내용	45
<표 III-5> ‘211프로젝트’해당 학교 명단	56
<표 III-6> “985프로젝트” 1기 중점 건설	58
<표 III-7> ‘985프로젝트’ 2기 중점건설	58
<표 III-8> 자금 확보로 분류한 고등교육기관들의 변화	63
<표 III-9> 제공자로 분류한 고등교육 기관들의 변화	65
<표 III-10> 유형으로 분류한 고등교육기관의 변화	66
<표 III-11> 미래 20년 중국 고등교육 발전목표	67
<표 IV-1>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	76
<표 IV-2> 지표 초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79
<표 IV-3>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안	85
<표 IV-5> 고등교육 국제화 항목별 평가 반영 비율안	100
<표 V-1> 조사 대학 특성	101
<표 V-2> 대학 특성별 국제화를 위한 발전전략의 유무	102
<표 V-3> 국제화 목표 유무	103

<표 V-4> 시기별 국제화 목표	104
<표 V-5> 대학 특성별 국제화 전담기구 유무	105
<표 V-6> 국제화 조직의 형태	106
<표 V-7> 국제화 관련 예산 유무	107
<표 V-8> 대학 총예산 및 국제화 관련 예산	108
<표 V-9>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과 국제교류 담당부서	109
<표 V-10>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	110
<표 V-11>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액	111
<표 V-12>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유무	111
<표 V-13>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 대상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유무	112
<표 V-14>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 가입 여부	113
<표 V-15> 대학특성별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 가입수	114
<표 V-16> 국제교류 관련 협회 및 협의체 가입 현황	114
<표 V-17>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유무	116
<표 V-18> 한국어 프로그램 등록자수	117
<표 V-19>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등록자 국적분포	117
<표 V-20>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학부)	118
<표 V-21> 외국어 전용 강좌 현황(학부)	119
<표 V-22>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대학원)	119
<표 V-23> 외국어 전용 강좌 현황(대학원)	120
<표 V-24>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 유무(학부)	120
<표 V-25>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강좌 현황	121
<표 V-26>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 유무(대학원)	122
<표 V-27>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 현황(대학원)	123
<표 V-28> 공동운영 교육과정 유무	123
<표 V-29> 공동운영 프로그램 전체 현황	124
<표 V-30> 각 대학의 공동운영 교육과정 현황	124
<표 V-31> 해외 분교 등 학교 설립 실적 및 계획	126
<표 V-32> 외국인 학생 유무	126

<표 V-33> 외국인 학생의 세부 현황	127
<표 V-34> 학점 교류 국내 학생 유무	128
<표 V-35> 학점교류 프로그램 참여 국내학생 현황	129
<표 V-36> 복수학위 취득현황	130
<표 V-37> 복수학위 취득 국내외 학생 현황	130
<표 V-38> 공동학위 취득 현황	131
<표 V-39> 공동학위 취득 국내외 학생 현황	131
<표 V-40> 해외 인턴십 유무	132
<표 V-41> 해외 인턴십 현황	133
<표 V-42> 외국인 교원 유무	133
<표 V-43> 외국인 교원 현황	134
<표 V-44>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나라 교수 유무	135
<표 V-45>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나라 교수 현황	136
<표 V-46>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대학 교수 현황	136
<표 V-47>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대학 교수 현황	137
<표 V-48> 외국연구소 유치 현황	138
<표 V-49> 대학(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 현황	138
<표 V-50> 국제화 발전전략 유무에 따른 차이 검정결과	140
<표 V-51> 전담기구 설치 유무 따른 차이 검정결과	144
<표 V-52> 국제화 관련 예산 할당 여부 따른 차이 검정결과	147
<표 V-53>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차이 검정결과	151
<표 V-54> 국제화 현황 결정요인	155

그림 차례

[그림 III-1] 국제전략강화사업 추진 조직도	39
[그림 III-2] 도카이대학 국제전략본부 사업 추진 조직도	41
[그림 III-3] 2007년도 일본 문부과학성의 대학 재정지원(단위: 억 엔)	42
[그림 III-4] 대학 설립별·연도별 대학간 교류활동 건수	43
[그림 III-5] 상대 국가별 대학간 교류활동	44
[그림 III-6] 연도별 외국 연구자 수	46
[그림 III-7] 연도별 해외 파견 연구자 수	47
[그림 III-8] 연도별 유학생 현황	48
[그림 IV-1]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 절차	74

연 구 요 약

이 연구는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수립과 실행 및 평가의 기반이 되는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을 비교 분석 하여 국제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제화 접근 방법과 각각의 접근 방법에 따른 국제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Knight의 연구, IMHE(고등교육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OECD 프로그램)에서 제안하고 있는 IQRP, ACE(미국교육위원회)의 국제화 지표, 오사카 대학의 국제화 지표, 국내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등의 분석을 통해 전략 및 계획, 지원 및 인프라,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의 교류활동, 연구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어지는 고등교육 국제화 영역이라는 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해외 동향을 목적, 내용, 추진제도 및 기구, 재정 체제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화를 위해 다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국제화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도형의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였다. 먼저 고등교육 지표 개발의 첫 단계로 국제화 지표 개발의 준거를 타당성, 포괄성과 간명성의 조화, 기능성으로 설정하고 평가 영역 및 부분을 설정하였다. 고등교육 국제화 평가 영역은 목표 및 계획, 국제화 부서의 조직구성, 예산 책정 및 집행, 지원체제 및 기타 인프라, 교육과정, 인적 구성원의 국제화, 연구·교육활동의 국제화 등, 7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하위 항목과 항목별 세부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고등교육 지표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 대학관계자 설문조사, 고등교육 국제화 관계자 집중회의, 최종 검토회의 등, 총 4단계에 걸쳐 지표를 평

가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지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표 및 지수를 바탕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응답에 응하지 않은 7개 대학을 제외한 194개 대학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 및 전략 영역을 살펴보면, 약 60%에 해당하는 115개 대학이 국제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학 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 목표 및 전략 수립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 및 예산 영역의 경우, 국제화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137개 대학으로 조사 대상 대학의 70%에 이르고 있었다. 대학 특성별로는 지역이나 설립 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국제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대학 평균 국제화 예산은 17억 정도로 대학 총예산의 약 1.8%를 국제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대학 특성별로는 국립대학의 경우 97%에 해당하는 대학이 국제화 관련 예산을 할당 집행하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대학의 90% 이상이 대학 국제화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

지원체제 및 기타 인프라의 경우,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을 주최하는 비율은 조사 대상 대학의 약 50% 정도였으며 규모가 큰 대학에서 외국인 지원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 문화적응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 프로그램 편성의 측면에서도 학생 수가 20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의 경우, 외국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국제교류 관련 협의체 가입 등, 국제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의 56.7%가 국제 교류관련 협의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대학 규모에 따라 국제 네트워크 형성 정도가 나타났다. 대도시 소재의 사립대학의 경우 국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교육과정 영역을 교과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영어전용 강좌, 외국어 및 국제학습 관련 과목 등의 교과과정의 모든 항목에서 대학 규모의 영향이 가장 컸다. 즉, 대학규모가 클수록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도 많았다. 최근 들어 국제화 지표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영어 전용강좌의 경우, 대규모 대학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외국어 전용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거나 외국 연구소 유치 및 해외 분교 설치를 통해 학점 교류나 복수 학위, 공동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교원 및 학생의 교류활동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외국인 교원배율은 전임 교원의 약 3.54% 정도이며 겸임, 초빙, 시간 강사 등을 포함하며 대학 평균 18.08명으로 대학 교원의 2.7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지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국제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국제화 현황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교육과정 중 한국어 연수, 국제 교류 영역에서의 학생의 해외 인턴십, 교수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가 등이 소재지는 물론 대학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적 통용성을 지닌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와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고급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지식의 창출과 전파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에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Knight 외, 1999).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 사회, 교육 등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메가트랜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고등교육 국제화는 국가, 고등교육기관 또는 개인 차원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으로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의 확보와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에서는 동 주제에 관한 학술적 논의 및 국제화 현황 분석이 여러 각도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등 고등교육 국제화가 정책적, 학술적 담론의 중심에 서있다(OECD, 2004).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대학 국제화는 상당수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과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국제화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한국대학신문, 2007년 1월3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이론적 또는 실증적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국가 및 대학 차원의 국제화 정책은 체계적이며 정확한 실태 분석이 부실한 토대 위에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에 대한 거시적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화 지표의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일부 국제화 지표에 대한 통계 자료도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수립과 실행 및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국가 또는 대학 차원의 국제화 정책을 정비하고 국제화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데 있어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는 필수불가결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자체가 고등교육 국제화의 중점 추진 영역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대학의 국제화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외국인 학생수, 외국인 교원수, 영어강의비율 등 소수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 수집이 정부 차원에서 시도된 적은 있으나, 체계적인 국제화 지표의 미비, 지표별 정의의 명확성 부족, 국제화 통계 수집에 대한 대학의 이해와 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의 강점 및 약점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정부 및 대학 차원의 국제화 정책 수립·실행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을 위해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즉 고등교육 국제화는 어떠한 궁극적 목적을 위해,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가? 둘째, 고등교육 국제화 평가틀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즉 고등교육 국제화 분석 모형에서 세부 영역은 무엇이며 각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셋째, 우리나라 대학의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실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또한 국제화 추진 현황의 구조적 특징은 어떠한가? 즉 국제화 지표별 현황에 있어 대학의 규모, 소재지, 설립 주체 등 대학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개로 구성된다. 첫째,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로서 고등교육 국제화의 의미와 기준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중국과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를 개발하였다. 앞서 이루어진 문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제화 관계자의 검토, 대학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고 지표별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넷째, 국내 201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 교육 국제화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가.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 탐색을 주제로 다룬 문헌을 토대로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들을 구성하는 영역, 항목, 세부 지표 등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 고등교육 국제화 평가 실제 사례 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에 요구되는 평가 영역, 항목 설정 및 지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였다.

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국제 동향 분석

우리나라처럼 비영어권 국가로서 고등교육 국제화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중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목적, 내용, 국제화 추진 관련 법적·제

도적 개편 및 국제화 추진 기구, 재정 투입 현황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문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고등교육 국제화 영역을 세부 항목별로 범주화하고 항목별 지표를 선정하여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제화 지표가 대학 국제화 평가에 활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제안함으로써 지수화 작업¹⁾을 시도하였다.

라.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 조사 및 분석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인적·물적 자원 및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는 지표 개발 및 국제화 현황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수화 작업은 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연구진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제한적으로만 수행되었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 대학 차원의 국제화의 영역 등에 대한 고찰
- 일본, 중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분석
- 국내외 고등교육 국제화 평가 지표에 대한 사례 분석

나. 전문가 회의²⁾

□ 전문가 회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을 목적으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회의의 구성 인원은 KAIE(한국국제교육자협의회) 운영위원회, 고등교육 국제화 분야 연구자, 교육부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동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검토 작업을 수행한 후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은 이후 국제화 지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수행된 전문가 의견 조사 및 대학설문조사에 배포 자료로 활용되었다.

□ 전문가 의견 조사

연구진이 1차적으로 개발한 국제화 지표 타당성 검증 작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KAIE(한국국제교육자협의회) 운영위원회원, 대학 국제화 업무 담당 부서장, 대학평가전문가 등 10명의 전문가들에게 국제화 지표 초안을 송부하여 검토 의견을 수합하였다. 대학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타당성 평가는 5간 척도로(1=전혀 타당하지 않음 ~ 5=매우 타당함) 평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2) 전문가 회의는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 과정에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V장에 기술하였다.

□ 지표 타당성 평가를 위한 대학설문조사

상기 전문가 의견 조사 이후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국제화 지표 타당성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내 4년제 대학의 국제화 현황 조사를 위해 마련한 설문조사지에 지표 초안에 포함된 모든 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묻은 문항을 포함하여 결과를 수집, 지표 초안에 포함된 지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대학으로부터 받았다. 타당성 평가는 5간 척도로(1=전혀 타당하지 않음 ~ 5=매우 타당함) 평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다. 통계 조사 · 분석

□ 조사대상

전국 4년제 대학(201개)

□ 조사방법

201개 4년제 대학 전수 조사(설문조사지는 부록 1에 제시)

□ 분석방법

먼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반적인 국제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표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규모, 소재지, 설립 형태 등 대학 특성별로 지표값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는 국제화 전략·목표, 국제화 전담 조직·예산, 제반 여건의 차이가 국제화 현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1.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

고등교육의 국제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으로 아직 그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화에 대한 개념의 다양성이 대학 운영의 국제화에 많은 곤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학 내의 구성원 사이에 ‘국제화’에 대한 공통 인식이 없는 상태로 서로 다른 입장에서 국제화를 추진하는 상황조차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입장에서는 국제화를 대학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국제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의 변화로 보고 다문화 교육, 유학생 및 외국인 연구자 유치, 대학 내의 다언어 교육 등을 국제화의 실천으로 여긴다. 또 한편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의미에서 졸업생의 국제기관 활동 여부를 국제화의 성과로 간주하기도 한다. 국경을 초월한 교육 연구 활동을 국제화로 보고, 해외 마케팅이나 해외 분교 운영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는 이를 모두 포함한 대학의 국제 인지도 향상을 국제화로 보고 Times나 상해교통대학 등이 발표하는 대학 랭킹을 문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제화에 대한 시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국제화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국제화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개념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이전인 1990년대 전반에는 국제화와 세계화(Globalization)가 동일한 개념으로 이용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많은 학자가 국제화와 세계화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Altbach, 2004). 예컨대, 阿部 (1997)에 따르면 세계화란 ‘세계가 사회적으로 축소되어 전체로서의 세계라는 의식이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국제화란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거나 타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Kight de Wit(1997)은 세계화는 기술, 지식, 재정 또는 인적자원, 가치, 아이디어

등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현상이며,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이러한 세계화의 충격에 대응하는 개별 국가의 대응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세계화는 현상으로, 국제화는 이에 대한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국내 학자들은 대학의 국제화를 대체로 질 제고와 국제적인 효소의 통합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이병식 외, 2004) 특히 세계화를 국제화의 개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병식 외(2004)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국제화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적 수준에서 국제화는 캠퍼스 내외에서의 외국인 학생, 교수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접합으로써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국제화는 조직, 즉 대학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화에 대한 대학의 높은 우선순위, 외국인 학생 기숙사, 국제화된 행정 서비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캠퍼스 분위기 형성 등과 같은 여건이 갖추어질 때 개인적 차원의 국제화가 강화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2.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

이 절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로서 국내외 주요 문헌에 나타난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조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고등교육 기관 차원에서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또는 국제화 평가 실제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수집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문헌 분석 과정을 통해,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 지표 개발에 필요한 평가 영역의 범주화와 평가 지표 선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소개되는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는 Knight(1997) 등 해외 사례 4건, 민재형(2005) 등 국내 사례 2건 등 총 6건이며 대부분 고등교육 기관 차원에서의 국제화에 관한 영역 및 지표 설정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하에서는 국제화 지표 및 국제화 영역 등의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가. Knight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의 범주

1990년대 이후로 OECD 차원에서 고등교육 국제화에 관한 활발한 학술적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상당수의 연구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Knight 교수의 주도로 수행되었다. Knight는 특히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 정립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Knight(1997, 1999)에 의하면 고등교육 기관을 국제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기술하는 용어로서 활동(activity), 요소(elements), 과정(procedures), 전략(strategies)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Knight는 이 중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접근방식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전략’이라는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계획된 방향 설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며 또한 동 개념은 학문적 활동에 관한 과정 및 정책과 조직적 활동에 관한 과정 및 정책 모두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1>³⁾은 고등교육 기관을 국제화시키려는 노력을 프로그램 전략 차원과 조직적 전략 차원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차원을 4개의 하위 전략 영역으로 범주화 한 후 각 영역에 속한 대학 국제화 전략의 예를 제시한 내용이다. Knight는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전략 중에서 프로그램 차원의 전략은 학문프로그램, 연구와 학문탐구, 외국과의 관계 및 서비스, 각종 지역기반, 다문화 관련 특별활동 등 4개 영역의 전략으로 유형화 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국제화 국제화 전략 중에서 조직적 차원의 전략은 지배구조, 운영, 지원 서비스, 인적자원 개발 등 4개 영역의 전략으로 구획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3) 김경근(2007)에서 ‘Knight(1999)의 고등교육 국제화 내용: 프로그램 및 조직적 전략’을 재인용 하였음.

〈표 II-1〉 Knight의 고등교육 기관 국제화 전략 범주

고등교육 국제화	주요 범주	내 용	
프로그램 전략	학문 프로그램	· 학생교류 프로그램	· 외국어 교육
		· 국제 학생	· 국제화된 교육과정
		· 교수/학습 과정	· 주제연구(thematic study)
		· 해외 연구 및 학습	· 협동, 이중 학위 프로그램
		· 비교 문화 훈련	· 교수/직원 이동 프로그램
	연구와 학문 협동	· 방문 교수 및 학자	· 학문 프로그램, 연구, 훈련 간 연계
		· 지역 및 주제 연구 센터	· 협동연구 프로젝트
		· 국제 컨퍼런스와 세미나	· 출판된 논문과 페어
		· 국제 연구 협정	· 연구자 및 대학원생 교환 프로그램
		· 아카데믹 분야 및 타분야에서의 국제 연구 파트너십	· 연구, 커리큘럼, 교수 분야간 연계
	외부 관계 및 서비스(국내/국외)	· 비정부 집단 혹은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과 프로젝트(지역 기반)	· 국제 개발지원 프로그램
		· 해외 주문/계약 훈련 프로그램	· 교수 및 연구, 개발 프로젝트와 훈련 활동들 간 연계
		· 지역사회 서비스, 다문화 프로젝트	· 해외 교수 사이트와 원격 교육
		· 국제 네트워크에의 참여	· 해외 거주 졸업생 개발 프로그램
	(extra-curricular activities)	· 학생 클럽 및 협회	· 국제 다문화 캠퍼스 행사
		· 문화 집단에 기반한 커뮤니티 친교 · 사회적, 문화적, 학문적 지원 체계	· 동료 집단과 프로그램
조직적 전략	지배구조 (governance)	· 원로 지도자들의 헌신	· 교수/직원의 능동적인 관여
		· 국제화를 위한 근거와 목표	·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및 기 타 정책 보고서에 나타난 국제적 차원 에 대한 인식
	운영 (operation)	· 제도(institution) 및 학과의 계획. 예산, 질 보증 체계의 통합	· 적절한 조직 구조
		· 연락과 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 집권화 및 분권화된 국제화의 발전과 조정의 조화
	지원 서비스	· 적절한 재정 지원과 지원 배치	· 아카데mic 지원에 대한 관여
	인적자원 개발	· 제도적 서비스 unit의 지원	· 국제화에 헌신하는 교수/직원들에 대한 보상 승진정책
		· 외국 학생들의 국내 캠퍼스에서의 학습 및 국내 학생들의 국외 학습 을 위한 지원 서비스	· 국제화 연구과제 및 연구년 지원

나. IQRP의 대학 국제화 평가

IQRP는 OECD의 고등교육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OECD 프로그램(IMHE: The OECD 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화 질 평가 프로세스(The Internationalisation Quality Review Process)이다. IQRP는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가 중요성을 더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대학 국제화에 대한 평가, 질보장을 위해 암스텔담 대학의 Hans de Wit 교수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Jane Knight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에 의해 고안되었다. IQRP는 ‘개별 고등교육기관 스스로가 공표하고 있는 목표, 목적에 따라 국제화 활동의 질을 평가하여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만들어졌다.

첫째, 국제화가 일반 학술 연구 조사의 질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대학 등의 기관 시스템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국제화가 고등교육기관의 미션과 주요 기능의 일부이며 따라서 질 평가 과정에서 언급되는 많은 요소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국제화 정책, 추진과정, 프로그램(유학생, 해외유학 및 취업, 학생 및 교원 교류, 연구, 어학지도, 기술 지원)을 포함한다. 셋째, 질 보증과정의 국제화를 포함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의 것을 말하며 질 보증 과정이 국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IQRP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IQRP 지표의 특징은 ①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한다는 점이다. ② SWOT 분석 채용, ③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평가, ④ 어떤 여향을 미치는지, ⑤ 개선 제언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2〉 IQRP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영역	부문	지표
정책 및 전략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기관에게 있어서 국제화가 왜 중요한가?(이론적 근거) 각 기관이 국제화에 대해서 내세운 정책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정책이 명시된 문서를 첨부하라. 기관의 전반적인 전략 구상과 국제화 전략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밖의 관련 정책 영역들 사이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기관의 전체적인 전략 계획에서 봤을 때 기관의 행정가, 교수, 학생들은 국제화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국제화 정책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의 구조는 어떠한가? 국제화 정책 및 전략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 기관의 지도부, 행정부, 교수 및 학생들은 국제화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는 데 각각 어떠한 도움 및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조직 구조 및 지원	조직 및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기관의 어떠한 부서/단위/직위가 국제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가? 국제화 활동들에 대한 수행의 직접적 책임은 어떠한 단위에서 맡고 있는가? 국제화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단위/개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체계(공식적/비공식적 모두) 및 보고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가능하다면 조직도를 제시하라. 국제화 전략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의 지원 구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현재의 정책 및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조직구조 및 지원구조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계획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및 학과 수준의 계획에 국제화가 어떻게 들어가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국제화 노력들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러한 체계가 국제화 관련 노력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국제화를 포함하여, 기관 내/외부의 전반적인 질 보증이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가? 국제화 관련 계획 및 평가 과정의 개선을 위해 어떤 점들이 필요한가?
재정적 지원 및 차원 할당	재정적 지원 및 차원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화를 위한 기관 내부/외부의 지원 구조는 어떠한가? 이러한 재정지원은 국제화 관련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국제화를 위한 자원 할당(기관 전체적인 차원과 학과 적 차원에서 모두)의 구조는 어떠한가? 이러한 구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국제화 관련 기관 내/외의 재정 지원을 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 기관의 수행 과정은 어떠한가? 이러한 과정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국제화 실현을 위한 재정 할당 및 재정 확보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원 서비스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화 활동들을 지원하고 개발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나

영역	부문	지표
	시설	<p>제반시설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차원의 서비스 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가? 캠퍸스 내의 편의 시설(ex. 도서관)이나 교과 외 활동은 어느 정도나 국제적, 혹은 다문화적 성격을 띠는가?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가? 각 기관이 국제화 전략 및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나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점들이 필요한가?
학술 프로그램 및 학생	교육과정의 국제화: 지역학과 외국어 전공, 학위 취득 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학이나 외국어 관련 선택 과목(국제적 의사소통 및 문화 연구에 관한 교과목들 포함)들이 존재하는가?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다양한 학과의 교과목이나 과목 단원 등에서 발견되는 국제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국제화 관련 내용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해외의 고등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학위 취득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것이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에 대한 예나 사례 연구, 문헌자료 등을 포함하는가? 그 영향은 어떠한가? ‘국제적 교실 환경’의 구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즉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해외 유학생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 의견교환을 하는가?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얼마나 되는가? 해당 기관의 지역학 연구나 외국어 관련 전공 개발의 측면에서 국제화 전략 및 정책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의 국제화 수준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교수(teaching)와 학습 과정의 국제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자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국 출신 학생들 중 얼마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자 하는가?(해마다 보내고자하는 양적 목표) 학생들은 국제적 연구 프로젝트나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가? 학생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것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학생들은 국제적 활동/학습/연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정보 전달 통로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학생들은 국제적 학술 경험을 쌓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언어나 문화에 관한 준비) 그러한 준비과정은 효과적인가? 학습의 국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외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유학생(일반 유학생 및 교환학생 모두) 유치 목표의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목표를 위한 측정 도구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영역	부문	지표
해외 연수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학생 중 일반유학생(fee paying students)을 유치하고, 선발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내세우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전략의 목표는 무엇이며 또 그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가? • 해외 유학생 중 교환학생(exchange students)을 유치하고, 선발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내세우는 전략은 무엇인가? 그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가? • 해외 유학생들의 학문적 성공 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각 기관은 자국의 구조 및 환경에 해외 유학생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적응시키는가?(교육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모두)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사회 적응 안내나 학문 관련 상담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 일반유학생(fee paying students)과 교환학생(exchange students) 관련 정책의 목표나 주안점을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 해외 유학생의 통합 및 적응이나 이들의 유치 및 선발 전략의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해외 연수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연수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얼마나 있는가? 이러한 프로그램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해외 연수기간이 교육과정에 얼마나 잘 반영되는가? 연수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는 과정은 적절한가?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이것의 효과는 무엇인가? • 해외 유학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러한 평가 결과는 후에 프로그램 개발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 국제화 전략 및 정책의 전반적인 맥락 하에서, 각 기관이 해외 연수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 및 학문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고등교육기관/연구센터/기업 등과 함께 맺은 연구 협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기관의 후원을 받는 국제학 및 지역학 관련 연구나 연구소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효과는 어떠한가? • 각 기관은 국제화 연구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성공적인가? • 각 기관은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에 얼마나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제는 무엇인가? • 각 기관이 국제적 학술대회를 열고 그것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국제 협력 연구를 지원해주는 기관 내/외에 존재하는 지원 구조는 무엇인가?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 국제화 연구 및 결과물이 교수(teaching)의 국제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역	부문	지표
		<p>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국제화 수준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기회나 자원들은 얼마나 되는가? 또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기관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한가?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및 교수나 행정 직원들이 국제화 관련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역할을 연구/교수/출판/개발 지원으로 나누어 각각을 구별하여라. 이러한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캠퍼스 내에 해외 출신 강사진이나 행정 직원들(계약직/정규직 모두 포함)을 고용하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정책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또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 방문 연구자들의 교수(teaching)나 연구는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가? 그 효과는 어떠한가? • 임용 과정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가?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새로운 직원(강사진/행정직원 모두 포함)을 모집하고 선발하고자 할 때, 지원자들의 국제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시되는가?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 국제화 교육 분야를 위한 직원을 뽑는 과정이 있는가?(ex. 국제화프로그램/국제적 집단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외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뽑는 것 등) 그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기관 직원들이 국제화 프로그램에서 가르치거나, 그와 관련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만드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국제적 교수/연구/개발 지원 경험을 승진이나 정년보장 시 유리하도록 만드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 각 기관의 국제화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일환으로서 인적 자원 관리의 국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다. ACE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미국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 이후에는 ACE로 표기함) 국제화 지표는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화가 글로벌화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복수 재단으로부터 자금 원조를 받아 학생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ACE의 Madeleine Green과 Christa Olson에 의하면 2003년 ACE 지표인 'Internationalizing the Campus: A User's Guide'를 설계하는데 있어 주로 IQRP를 참고로 하였으나 미국 대학에 적합하게 조정했다고 한다. 특히 실제 대학에서 자기 점검 평가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산정하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IQRP를 간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고등교육 관계자 사이에는 국제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연구 활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ACE 지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ACE 지표는 첫째, 왜 국제화가 필요한가? 둘째, 누가 국제화에 관여하고 있는가? 셋째, 국제화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추진되는가?, 넷째, 국제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등, 4가지로 구성된다.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8개의 교육기관에서 조사를 실시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에도 ACE에 가입하고 있는 64개 대학이 참가하여 계속적인 대학 국제화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지표와 관련해서는 현재에도 Pace University, University of Denver 등 4개 대학이 참가하는 Laboratory가 진행되어 지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ACE 평가 지표의 특징으로는 ①이념적, ②SWOT 분석, ③기술적, ④명기 유무의 중시, ⑤구체적인 수치와 증거 중시, ⑥지역 사회와의 연계 중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우열이나 순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 대학의 국제화 활동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CE의 지표는 Internationalization Laboratory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이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대학 유형별로 국제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좋은 성공 사례(Good Practice)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I-3〉 ACE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영역	부문	지표
국제화 분석	국제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가? • 수행 여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가? •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국제화 목표	국제화 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미션과 기관의 특성 및 장래 전망의 연계성 정도는? • 국제 교육은 기관의 미션, 목적 장래 전망의 일부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국제화 목적은 어디에 기술되어 있는가?
	국제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교육에서 학생의 세계적, 국제적 학습 목표를 육성하고 있는가? •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어디에 명기되어 있는가? • 목표를 누가 알고 있는가? • 그 목표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대학과정에 비추어 일관되게 설정되어 있는가? • 그 목표에 대한 학생성취에 대해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국제화 환경	주변 환경의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출신지역 환경은 국제화에 특별한 방법을 시사하고 있는가?(이민 인구나 지역 문화가 국경이나 다른 주와 연결되어 있는 등)? • 기관의 입지 조건은 특정 지역과 특정 국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가? • 어떤 지역조직이나 기업이 강력한 국제 연계를 하고 있는가? • 이들은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기관의 국제화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 이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전략	국제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 전략계획이 있는가? • 국제화가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면 어디에 국제화를 기술하였는가? • 기관의 국제화 전략의 주요 요소는?
체제, 방침, 실천	기관 체제,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 그 운영체제는 효율적입인가? • 국제화의 중심이 되는 책임 부서는? • 다른 제도나 조직이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가? • 이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방침과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에 관한 학부 관여를 얼마나 촉진시키고 있는가? • 기관은 교원에 대해 국제 활동이나, 코스의 국제화, 특히 고용, 승진, 종신고용권 획득 프로세스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하는가? • 운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 그 장애를 얼마나 해결하였는가? • 장애 해결의 증거는 무엇인가?

영역	부문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게 국제 코스 이수를 얼마나 장려하고 있는가? • 언어코스입니까, 해외 유학 코스인가? • 누가 이를 제공하는가? • 상담 담당자는 이를 학생에게 얼마나 주지하는가? • 학과 이수조건, 세미나에 국제 학습을 얼마나 장려하는가? • 해외 유학에 재정지원을 할 때 그 방침, 절차가 명기되어 있는가? • 얼마나 효과적인가? • 다른 재정 지원 체제가 있는가? • 국제화를 위해 어떤 방침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 외에 어떤 방침과 실천이 국제화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가?
	カリ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 제공하는 일반 커리큘럼은 국제적, 세계적인 애용, 시점, 다른 지식획득 방법 등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 그 증거는? • 일반교양학과는 얼마나 주전공을 국제화하려고 하는가? • 어느 정도 학생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고 있는가? • 그 증거는? • 학생이 국제화 코스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 • 어떤 국제화 전공, 부전공, 자격, 증명서, 코스가 제공되는가? • 이들 코스 입학자 특성을 통해 학생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 어학습득을 필수로 하고 있는가? •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출석이나 도달 성과를 명기하고 있는가? • 어학 코스 입학자 특성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어학 학습에 대한 질적 자료가 있는가? • 양적 자료도 있는가? • 졸업 후, 졸업생의 어학 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가?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교육과정에 국제화는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가?(예를 들어 국제 이벤트, 축제, 강의, 영화 등)? • 학생, 교수, 직원은 어느 정도 참가하는가? • 유학생의 입학동향은? • 학부에서의 유학생 분산은? • 대학원 과정에서의 분산은? • 유학생이나 해외 연구자는 어떤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는가? • 미국학생이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국제화 전략이 있는가? • 그 성과는? • 국제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환경이 정비되어 있는가? • 기관은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 공동 교육과정 개발은 어느정도 개방되어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참가가

영역	부문	지표
국제 연계	해외유학 및 인턴십	이루어지고 있는가?
		• 참가하는 학생 수는?
		• 참가 부분은?
		• 해외 체제 기간은(2주, 센터스쿨, 1학기, 1년)
		• 해외 유학하는 학생의 성별, 인종, 민족은?
		• 해외 학습, 인턴십을 위한 학생 자금은 주로 어떻게 획득하는가?
		• 자금 원조는 유연한가?
		• 학생은 추가 원조를 받을 수 있는가?
		• 해외 유학생을 위해 출발전 설명회는 어떻게 개최하는가?
	타국과의 기관 연계	• 특별한 코스가 있습니까?
		• 상대국에 학생을 어느 정도 적응시키고 있는가?
		• 해외 유학 시 단위 인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 해외 유학한 학생 귀국 후, 기관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일상 생활, 교육, 학습, 교육과정 등)?
		• 학생, 교원, 직원 교환이 있습니까?
대학 문화	대학 국제화	• 교환프로그램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교원은 타국 기관이나 교원과 얼마나 공동연구, 개발원조를 하고 있는가?
		• 연계는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연계를 위한 예산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국제적인 시점을 가진 이사단, 교원, 직원은 얼마나 있는가?
효과	국제화 효과	• 어떤 분야에 그들의 경험과 관심이 있는가?
		• 국제화에 대한 교원, 직원, 학생들의 자세는?
		• 그 증거는?
		• 대학 커뮤니티는 국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성과	• 상승효과가 있는가?
		• 의사 전달 경로가 있는가?
장래 전망	성과	• 이들 경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가?
		• 국제 프로그램과 국제화 활동과의 협력과 연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 국제화 활동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조사성과	• 어떤 가능성성이 있는가?
		• 장래 발전에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인가?
		• 내년, 3년 후, 5년 후 기관의 우선 전략에 이 조사는 어떤 시사점을 주었는가?

라. 오사카 대학의 국제화 지표

오사카 대학에서는 주로 IQRP와 ACE 지표를 참고로 하여 일본 대학의 운영과 조직 형태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라 할 수 있는 항목을 망라하여 프로젝트 멤버를 중심으로 각 대학의 현상을 파악하여 검토를 하고 구체적으로 IQRP, ACE의 Review Guideline 이외에 Michael Paige(2005)가 만든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Indicators의 지표 분류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지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시한 내용은 다양한 대학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한다. 막대한 지표 항목 중에서 대학 국제화에 적합한 지표 선정을 위해 평가의 목적과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여 대학 스스로가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①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②평가목적과 과제, ③조사, 분석 방법, ④지표, ⑤가이드라인의 틀을 정하고 이를 각 대학에서 기술하도록 하여 평가의 실현가능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하여 설계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오사카 대학에서 설계한 지표의 특징으로는 먼저 일본 대학의 제3자 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일본 대학의 특징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특징으로는 평가의 목적과 과제에 따라 평가 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 할 수 있다.셋째, IQRP나 ACE의 국제화 지표가 대학 스스로가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다면 오사카 대학 지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평정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IQRP와 ACE처럼 정책의 영향력과 효과를 평가하고자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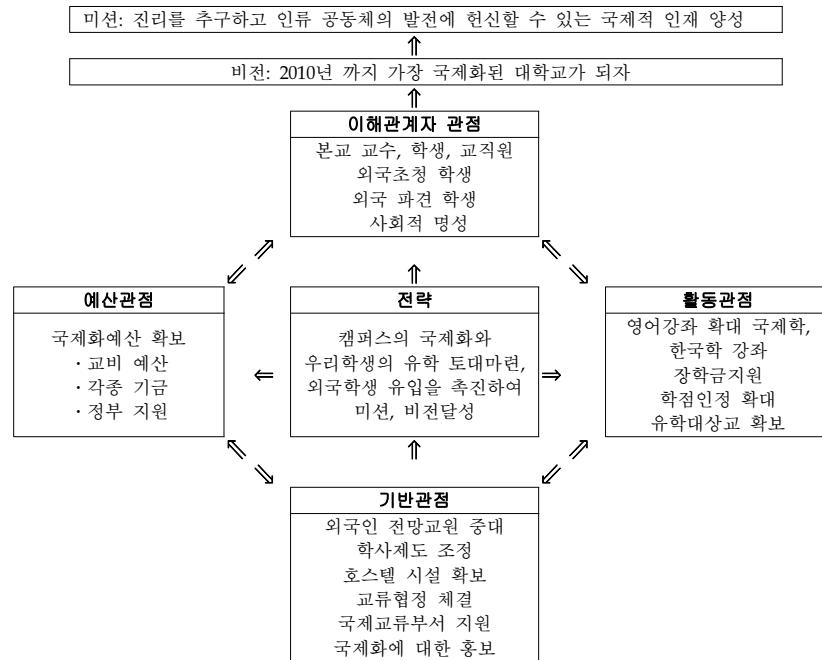
〈표 II-4〉 오사카 대학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지표
대학의 이념 목표 및 계획	국제화에 대한 공식 견해	대학 역사, 건학 정신과 국제화	-고등교육 국제화가 대학 미션의 하나로서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책임집행체제	-국제교류활동 최고 책임자가 총장 또는 다른 최고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
	중장기 계획 및 전략적 목표(Goal) 설정	목표의 명시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목표설정을 위한 합의 형성	-국제화 목표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동의 수준
		계획의 구체성	-중장기 국제화 계획의 세부 내용이 대학 전반적인 정책 및 계획과 부합하는 정도 -각각의 계획을 책임지고 수행할 기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계획 이해도	-국제화 관계 부서가 국제화 목표의 이행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조직 및 직원	국제화 정책을 위한 의사결정구조 및 과정	국제화에 관한 대학위원회 활동	-국제화 관련 의사결정기구가 지속적으로 기능하는 정도 -국제화 의사결정기구의 목적, 역할, 및 책임배분의 명료성 정도 -국제화 위원회 구성원의 적절성
		민주적 의사결정/정보공개	-민주적 의사결정 및 정보 공개
	조직과 집행체제	국제관련부분 조직 목표와 인원배치	-국제화 부서의 목표 및 실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대학 규모 대비 국제화 부서 직원 비율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수준
		국제관련부문의 직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직무내용, 역할, 책임 분배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정규직 또는 룰타임 근무 직원 비율 -직원에게 언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는지 여부 및 직원의 실제 언어 구사 능력 수준
		유학생의 해당대학에 대한 공헌도	-언어교환, 홍보 등 대학의 각종 국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비율 -Campus Job을 갖고 있는 외국인 학생 비율(국내 학생 대비)
	국제화 대응 능력 개발과 인사고과	교직원의 다국적화와 다언 어, 다문화 대응	-직원 국적의 다양성 및 대학의 다문화/다언어 수준을 나타내는 5개 정량 지표
		교원	-국제화 대응 교원 연수프로그램(FD) 실시 상황(개최 빈도와 참가자 수)
		직원	-국제화 대응 직원 연수프로그램(SD) 실시 상황(개최 빈도와 참가자 수)
		인사고과	-인사고과에 국제관련업무의 평가를 전체 평가 중에서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정
	기관의 책무성	위험관리체제 수립	-대학의 위험관리체제가 국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지표
대학내 교육과정의 국제화	전공 교육의 국제화	국제표준을 의식한 교육과정 설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평가 인증 기구로부터의 평가 및 지적 사항을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가?
	국제프로그램의 종합 과제	국제프로그램에 의한 학위 취득상황	-교환유학, 단기 연수, 해외 인턴십, 해외 필드워크 등으로 취득한 단위 총수가 전 교육과정 단위 총수에 차지하는 비율
		국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기 점검과 개선 상황	-자기 점검, 학생 평가 등, 지적된 사항과 개선 상황을 분석하여 국제 프로그램 개선과 연계하고 있는지를 분석
학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교육교류	교환유학생 등의 실적	-교환유학 참가자 수의 비율, 교환 유학을 통해 취득한 단위 총수가 전 교육과정 단위 총수에 차지하는 비율 -교환유학을 통해 취득한 과목이 모교에서 어느정도 인정되는가
		단기해외연수 실적	-해외연수 참가자 수의 전학생에 대한 비율, 해외 연수를 통해 취득한 단위 총수가 전 교육과정 단위 총수에 차지하는 비율
		운영 서포트 체제	-국제교류 설명회, 사전 및 사후 가이드라인, 오리엔테이션 실시회수, 참가비율, 가이던스 내용(교류 상대 프로그램과의 연계, 위기관리대응)을 종합 평가
	대학간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국제공동수업	-국제공동수업이 실시되는 경우의 수강학생 비율, 참가교원의 비율, 다른 과목에의 영향 평가
예산 책정 및 집행	국제화 부서 관련 예산 구조	국제공동학위	-국제공동학위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경우의 학위 취득자 비율, 공동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교원 비율, 다른 학위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국제컨소시엄	-국제컨소시엄을 통해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증가 비율, 컨소시엄 산하 다른 대학 학생이 해당 대학 단위를 취득한 실적, 참가한 교원 비율, 다른 과목에 미치는 영향
	신규프로그램 개발	해외 인턴십, 해외 필드워크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해외 인턴십, 필드 워크 참가자 수, 취득단위 수의 자료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
연구 활동의 국제화	국제화 부서 관련 예산 구조	계획과 예산 책정의 일관성	-계획과 예산 책정의 일관성 있게 예산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가
	예산 책정 및 수행	외부로부터의 국제화 예산	-외부로부터 국제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연구 발표 성과	프로젝트 규모와 예산의 일치 수준	-대학 전체 예산 대비 국제화 예산 규모 및 국제화 예산 내 세부 항목간 예산 배분이 적정한가?
	연구 활동의 국제화	국제 컨퍼런스 등에서의 연구 성과 발표	-교수1인당 국제 학술회의 등에서의 연구 발표 횟수 -교수1인당 국제 학술지 논문 발표 횟수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국제적 연계	-초청된 외국인 연구자의 수, 체류 기간 -국제회의 및 학술회의 개최수 및 참여자 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지표
지원체제, 정보 제공 및 인프라	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지원 체제	문의 사항에 대한 응답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횟수 -외국으로부터의 연구 수혜액
			-외국인 학생 및 교수·연구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제공자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일정 기간 동안의 질의-응답 횟수 및 내용
			-영어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의 질
		학습 지원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의 직접적 모집을 위한 대학 차원의 체계 마련 여부 -외국 학위의 진위, 질적 수준 판단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대학이 외국인 편입 학생 수용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학점 인정 체계) -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일본어 학습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가? -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학과 차원의 정보 습득이 용이한가?
			-외국인 학생 모임을 위한 (재정) 지원 -학생교환프로그램 조직을 위한 (재정) 지원 -교환프로그램 제공
			-정보제공과정이 체계적인지 여부
		학내 생활 적응 지원	-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주거 지원 -대학이 제공하는 주거 시설이 충분하며 가격 수준은? -주거에 대한 정보 제공은 충분한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회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가? -외국인 학생 및 교수, 연구자 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있는가?
			-문화와 관습 차이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강의가 제공되는가?
			-학내 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이 다양한가?
			-외국인 구성원의 진로를 위한 지원 체제
국제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	대학간 협력 협정 체결	교환 협정이나 컨소시엄 등의 원활한 작동	-교환 프로그램, 실적, 규모 등에 대한 평가 -국제적 컨소시엄, 협정 가입에 대한 평가 -각각의 협정 컨소시엄 등의 목적, 목표, 내용,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
		해외 거점 마련	-해외 사무소의 수, 소재지 -해외 사무소 설립 목표가 분명하며 이것이 실제 수행 실적과 일치 되는지 여부 -해외 사무소가 외국학생모집, 홍보, 졸업생 네트워킹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지표
대학 교과과정 의 국제화	지역 사회와의 연계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의한 국제 학생 지원 프로그램 또는 활동	여부
			-대학 국제화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 단체(기관)의 수
	언어 프로그램	언어 교육의 효과성	-원어민 강의의 비율, 외국어 프로그램 참여 정도, 언어 교육에서 기준 평가의 활동 정도 등에 대한 평가
		목적 및 피드백	-언어 교육의 목적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언어 교육을 제외한 교양 프로그램	국제적 시각에 의한 교양 과목 제공	-대학에서 제공되는 국제적 시각에 의한 교양 과목에 대한 평가
		외국문화의 이해, 외국문화에의 적응에 관한 교양과목 제공	-대학에서 제공되는 외국문화의 이해, 외국 문화에의 적응에 관한 교양과목에 대한 평가
	전공 프로그램의 국제화	외국어로 강의되는 전공 과목	-전공 프로그램 중 국제화 관련 과목 평가
		전공 프로그램 중 국제화 관련 과목	-전공 프로그램 중 국제화 관련 과목 평가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교과과정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교과과정 운영 정도



[그림 II-1] 민재형과 이정섭(2005)의 고등교육 국제화 성과 평가 모형

〈표 II-5〉 민재형과 이정섭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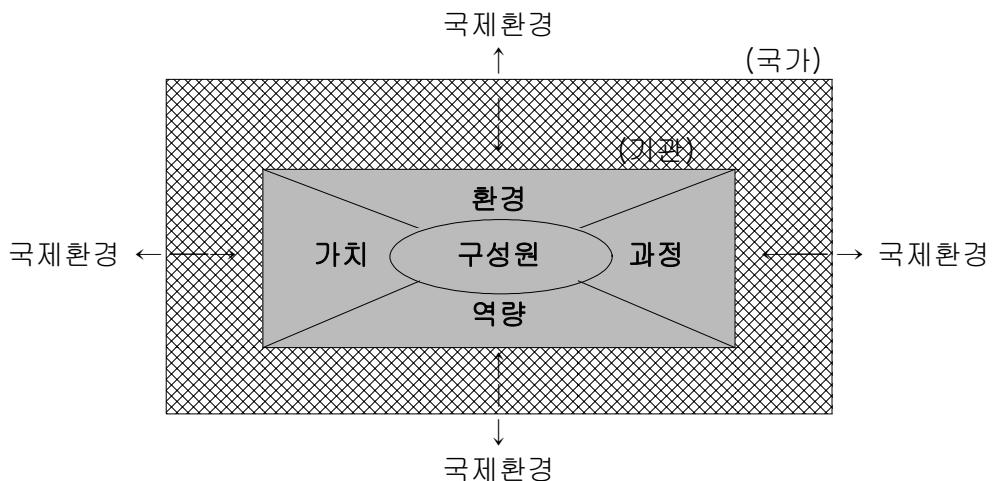
관점	목표	성과지표
이해관계자 관점	사회적 명성 제고 캠퍼스의 국제화 외국 초청 학생 중대 외국 파견 학생 중대	캠퍼스의 국제화, 초청학생수, 파견학생수 영어강좌수, 국제학/한국학 강좌수, 외국인 교수 초청학생수 파견학생수
활동관점	영어 강좌 확대 국제학, 한국학 강좌 확대 장학금 지원 학점인정 확대 유학대상학교확보	국제학, 한국학 강좌수 장학금 수혜자 수 학점인정범위 유학대상학교 수
기반관점	외국인 전임교원 확보 학사제도 조정 호스텔 시설 확보 국제교류부서 지원 국제화 홍보 및 인식공유	외국인전임교원 수 학사제도 조정 호스텔 수용가능 인원 근무자수, 지원예산 국제교류부서의 홍보 수준 및 효과
예산관점	국제화예산 재원확보 · 교비 예산 · 각종기금 · 국고지원	교비, 기금, 국고지원 교비예산중 재원확보 각종기금중 재원확보 국고지원중 재원확보

마. 민재형과 이정섭(2005)의 고등교육 국제화 성과 측정 모형

민재형과 이정섭은 Niven(2003)과 Olve(1997)가 제안한 공공/비영리 부문에서의 성과 개념을 활용하여 비영리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성과측정모형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내 S대학의 국제화 성과 평가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림 II-1>에 제시된 것처럼, 민재형과 이정섭은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 성과 평가시 대학의 전략, 기반, 예산, 활동, 이해관계자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각각의 관점별로 성과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동 접근법의 특징으로는 경영학적 접근방식의 토대를 둔 개념적 틀의 특성이 드러난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접근 방식의 구조화나 지표의 배분 등에 있어서 전략, 예산, 기반 등 조직 관리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초청학생수, 파견학생수, 영어강좌수 등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국제화 지표로 설정한 점도 이채롭다.

바. 신현석(2006)의 고등교육 국제화 평가 영역 및 지표

Knight(1997)는 고등교육 국제화를 활동(activity), 가치(ethos), 역량(competence), 과정(process) 등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신현석(2006)은 대학원 교육 국제화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면서 Knight(1997)가 제안한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개념적 접근 방법을 차용하여 개인, 기관, 국가 등 세 개 차원에서 각각 상기 4개의 접근방법 적용이 가능함을 역설하면서 대학원 국제화 구성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은 활동(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학생 교류, 문화교류 및 연구 협력 등), 가치(국제이해교육을 통한 세계적 가치의 장려), 역량(구성원의 기술, 태도, 지식 개발을 통한 국제 역량 강화), 과정(대학의 국제화 추진 전략 개발, 인프라 구축, 학내 주요 기능의 통합)을 통해 총체적으로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4개의 개념은 각각 별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II-2] 신현석의 대학원 교육 국제화의 구성 개념

신현석의 연구(2006)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교적 널리 알려진 Knight의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네 가지 접근방법>을 응용하여 각각의 접근방법별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설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병식, 2단계 BK 사업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를 Knight(1997)의 국제화 접근 방법별로 적용하고 비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신현석(2006)이 제안한 국제화 지표는 대학이 캠퍼스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노력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국제화 영역 설정 및 지표 발굴을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표 II-6〉 신현석의 대학원 교육 국제화의 영역, 지표 및 수준 비교

주창자 구분	본 연구(Knight 등)	유럽연합국가	이병식 등	2단계 BK사업
영역 (지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발 ○ 교수·학습 프로그램 ○ 구성원교육 ○ 문화연구 협력 	○ 교수학습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교류 ○ 교직원교류 ○ 외국인 학생유치 ○ 해외봉사 ○ 교육과정의 국제화 ○ 원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강좌비중 ○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중 ○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 연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의 국제화 교육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기술, 태도, 지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석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추진 계획·전략 ○ 학내기능의 국제화 ○ 구조의 투명성과 호환성 ○ 조직 차원의 개혁 ○ 고등교육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구축 ○ 행정지원 서비스의 국제화 	
수준	기관차원=국가차원	기관차원<국가차원	기관차원>국가차원	기관차원>국가차원

주: 신현석(2006)에서 발췌하였다.

3. 시사점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를 분석의 최종 과정으로 앞서 제시한 6가지 사례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사례별 특수성 및 사례간 공통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6개의 대표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고등교육 국제화 영역을 파악하여 이후에 수행되는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6개 사례 비교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Paige(2005)가 제안한 고등교육 국제화의 10가지 범주를 주축으로 설정한 후, 각각의 연구가 제안한 고등교육 국제화 영역과 Paige의 국제화 영역을 병치시켰으며 그 결과는

<표 II-7>에 제시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략·계획, 지원·인프라·기반,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의 교류 활동, 연구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어지는 국제화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II-7〉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 영역 비교

Paige(10영 역)	민재형(5영 역)	Knight(8영 역)	오사카 대학(8영 역)	IQRP(5영 역)	ACE(6영 역)
리더십(미션, 예산) 인프라 구축	예산 관점 기반 관점	조직적 전략 -지배구조 -운영 -지원, 서비스 -인적자원개발	미션, 계획 예산, 실행 지원 인프라		상황분석 목표 전략
			구조, 직원	정책, 전략	체제, 조직
국제교육의 국제화 국제화된 교육과정			네트워크		
외국인 학생 및 학자 내국학생의 해외 연수 교수의 국제 활동 캠퍼스 생활 및 비교과 교육과정	활동 관점 이해관계자 관점	국제화 교과과정 프로그램 전략 -학문프로그램 -연구 -외부관계 및 서비스 -특별활동	joint program (학생교환, 인턴십)	학술 프로그램 및 학생	교육과정 국제 연계 대학문화
			연구의 국제화	연구 및 학문적 협력	효과
					장래 전망
모니터링 과정					

III. 주요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이 장에서는 비영어권 국가로서 고등교육 국제화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중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목적, 내용, 국제화 추진 관련 법적·제도적 개편 및 국제화 추진 기구, 재정 투입 현황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일본의 고등교육 국제화

가. 대학 국제화의 배경 및 경위

일본의 경우, 국제화의 조직적 전개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인 도쿄대학이 설립될 당시, 교수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으며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에 국비 파견 유학생이 기여한 부분 역시 매우 크다(寺崎昌男, 1992). 이처럼 과거 일본에서는 국가적인 수준의 국제화를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으나 최근의 대학 국제화는 점차 개인 연구자의 국제회의 참석, 외국 연구자와의 교류 등, 개인적인 활동이 국제 활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山本, 2006).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대학국제화 압력으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국제화 배경으로 첫째, 세계적인 대학 국제화, 특히 유럽 대학의 국제화를 들 수 있다. 유럽의 볼로냐 프로세스와 ERA(European Research Area) 구상을 배경으로 유럽 권역에서 학생과 연구자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유럽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국제 연계를 통한 컨소시엄의 형성이 중요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일본의 과학기술·학술정책의 국제화이다.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재 육성과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를 통해 연구의 다양성과 연구 수준의 향상을 꾀하여 일본의 과학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환경, 식료, 의료 문제에의 대응이다. 국경을 넘어 환경과 의료 등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과제 대응형 연구에 국제적인 연계가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 협력의 측면에서 ‘대학 지(知)’의 활용이 요구되면서 대학의 국제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 대학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8세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대학 간 경쟁의 격화 등으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활로의 하나로 국제화가 중요 테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83년 나카소네 내각이 추진하던 유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을 이어 받아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현대의 고등교육’이라는 고등교육 전문지를 통해 1997년, 2001년, 2003년, 2006년 4차례에 걸쳐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국제화의 필요성, 국제화의 개념, 정책 제언 및 유학생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인적 자원 이동, 고등교육 커리큘럼의 국제화, 나아가서는 고등교육의 질적 평가, 지표 개발 등, 고등교육 국제화의 핵심 부분에 대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黃, 2006).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탁월한 교육연구거점의 형성을 위해 현행 COE 채택 거점 274개를 150 거점으로 선택 집중하여 2007년도 231억 엔을 배분하고 있다. 신진 연구자와 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잠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독립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와 연계하여 독립행정법인 일본 학술 진흥회를 통해 박사과정 학생의 6.5%인 4870명에게 월 20만 엔을 지급하기 위해 11,688 백만 엔을 지원하는 특별연구원제도(DC)를 시작으로, 박사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PD, SPD, 연구를 중단했다가 복귀하는 박사과정 수료자를 위한 RPD 등 특별연구원 제도의 운영을 위해 2007년도 175억 엔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표 III-1〉 일본의 교육연구 분야의 국제화 정책

대학원 진흥시책의 기술	2006년도	2007년도 예정
○ 2007년부터 포스트 ‘21세기 COE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모든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탁월한 교육연구의 실시가 기대되는 거점을 중심 지원		○ 글로벌 COE 프로그램 - 예산 231억
○ 국립대학법인 등, 시설 정비에 있어 대학 등의 실상을 바탕으로 ‘21세기 COE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 등을 포함하여 교육연구의 활성화 상황을 감안	○ 사업 채택 시에 ‘21세기 COE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 등을 포함하여 교육연구의 활성화 상황을 평가	○ 사업 채택 시에 ‘21세기 COE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 등을 포함하여 교육연구의 활성화 상황을 평가
○ 사립대학의 연구기능 강화의 시점에서 거점형성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	○ 사립대학 학술연구 고도화 추진 사업 - 예산 69억	○ 사립대학 학술연구 고도화 추진 사업 - 예산 71억
○ 2007년까지 국제적 교육연구 거점의 평가 방법을 검토	○ 21세기 COE 프로그램 위원회를 통해 평가 검증	○ 21세기 COE 프로그램 2002년도 채택 거점의 사후 평가

출처: 文部科學省(2007), 文部科學白書에서 작성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국제 통용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국제적으로 매력있는 대학원 교육의 전개를 위하여’라는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제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 학생의 해외 파견과 학위 취득을 장려하는 ‘장기해외유학지원’과 대학 교직원의 해외 연수를 통한 ‘해외 선진 교육연구 실천 지원’, 해외 대학과의 교류와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첨단 국제 연계 지원’을 위해 2007년도 28억 엔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자의 수용을 확대하여 사회 경제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트 COE 프로그램의 내용에 국제화를 강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표 III-2〉 일본의 대학원 수준에서의 국제화 정책

대학원 진흥시책의 기술	2006년도	2007년도 예정
○ 대학원 국제화 전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 국제화 추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19억 · 장기해외유학지원 - 2006년 60명 채용 · 해외 선진교육연구 실천 지원 - 2006년 교육 31건, 연구 250명 · 전략적 국제 연계 지원 - 2006년 채택 5건(신청 78) ○ 대학 국제전략 본부 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5억, 2005년 20대학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28 억 ○ 대학국제전략본부강화사업 - 예산 5억
○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교원 비율 및 대학의 외국인 수용을 위한 방안을 조사·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의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교원 비율 및 대학의 외국인 수용을 위한 방안을 조사·공표(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의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교원 비율 및 대학의 외국인 수용을 위한 방안을 조사·공표
○ 도일 전부터 귀국 후까지 체계적인 유학생 지원체제의 충실, 졸업 후 활약할 수 있는 장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외국인 유학생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227억 ○ 사비 외국인 유학생 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13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외국인 유학생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248억 ○ 사비 외국인 유학생 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136억
○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고등 교육의 질 보증에 관한 유네스코·OECD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OECD 가이드라인의 주지 ○ 유네스코의 '각국에서 인증된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틀' 구축에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OECD 가이드라인의 주지 ○ 유네스코의 '각국에서 인증된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틀' 구축에 참가
○ 대학의 적극적인 정보 발신을 촉진하고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대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구축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 사이트 구축

출처: 文部科學省(2007), 文部科學白書에서 작성

이러한 시책을 통해 첫째는 인재양성과 지의 거점이 되는 대학, 대학원 연구기관의 국제 경쟁력 강화, 둘째는 일본 문화의 해외 발신, 국제 공헌, 셋째로는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 제고와 아시아 근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대학의 국제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유학생 정책과 더불어 대학 구성원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활동을 국가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대학국제전략본부강화사업(연구 환경의 국제화 모델 개발)을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와 외국인 연구자 유치, 외부 자금의 획득, 국제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계획적 양성 등을 위해 국제화 목표 설정, 행동계획의 책정, 조직 체제의 정비를 꾀하고 있다. 다음에는 대학국제전략본부강화사업에 대한 추진 제도 및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제화 추진제도 및 전략

앞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국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대학 국제 전략 본부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간 교류협정이나 연구자 교류의 취약으로 대학의 외국인 교원은 3.5%에 지나지 않고 유학생 수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상 인식 하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학술 및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고 국제공동 연구, 국제 심포지엄 등을 촉진하여 우수한 연구자를 Brain Gain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연구 환경 정비를 꾀하고 있다.

국제전략본부 강화 사업이라는 제도를 설치한 목적은 대학 전체의 조직적 특성을 반영한 국제 전략의 책정과 추진, 국제화 기반 강화 방안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전개 전략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다른 대학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검토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5억 엔(500억 원)을 투입하여, 문부과학성 위탁을 받은 일본학술진흥회 및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JISTEC)가 선정한 대학에 연간 1000~400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조직화이다. 연구의 국제화와 유학생 담당 부서의 연계를 통해 외

국인 연구자 및 유학생을 확충하고 학생과 교원의 해외파견 등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둘째, 해외 발신의 강화이다. 홈페이지나 팜플렛의 다언어화, 해외에서의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해외 거점의 설치, 대학간 교류 협정의 체결, 외국인 연구자 및 유학생 네트워크 등의 실시를 통해 국제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 컨소시엄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구체적으로는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동아시아연구 중심형대학협회(AEARU), 일·중학장회의, 일·스페인학장 회의, EU기관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캠퍼스의 국제화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연구자와 유학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가 있으며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확보를 위한 직원의 해외파견, 어학연수 등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에서는 대학 국제전략 본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실현을 위해 ①조직체제 및 거버넌스, ②목표설정, 행동계획, 평가체제 확립, ③외부자금의 획득, ④국제적인 대학간 연계 및 컨소시엄 활용, ⑤개별 연구 테마를 중핵으로 한 국제 전개, ⑥직원의 양성 및 확보, ⑦외국인 연구자 유치 개선, ⑧일본인 신진 연구자의 해외 연수기회의 확대, ⑨해외 거점의 정비와 활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먼저 ①조직체제 및 거버넌스를 보면, 대학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화의 필요성에 다음과 같은 조직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연구자의 유치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와 관련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유치를 위해 가준 및 인수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인재 및 경비 배분을 포함한 실질적 행동 계획의 책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의 국제전략본부 내에 국제 전략의 기획과 입안 기능을 가진 상설 조직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목표설정, 행동계획, 평가체제를 보면 대학국제화를 위한 이념을 명확히 하여 대학 건학정신이나 국립대학의 중기목표 및 중기계획을 통해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 행동계획의 책정을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 제언으로 전형적인 메니지먼트 사이클인 PDCA, 즉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 사이클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계획을 책정하며, 평가체제의 정비를 제언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에서 평가와 개선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상분석을 통해 나고야 대학의 AC21을 활용한 벤치마킹의 도입을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⁴⁾.

③외부자금의 획득을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컨소시엄 펀드 획득 기회의 증가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히 EU의 제7차 연구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ODA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여 JICA나 JBIC 등 국제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금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 국제개발협력 서포트 센터의 지원과 홍보를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 자금 획득을 위한 체제 정비를 위해 학내 규정, 사무 절차 등을 정비하여 해외 펀딩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대학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국제적인 대학 간 연계 및 컨소시엄 활용 전략으로는 AEARU(동아시아연구형대학협회: 의장이 쿠토 대학), APRU(환태평양대학협회: 도쿄대학이 이사회 멤버), INU(국제대학네트워크: 부회장이 히로시마 대학), AC21(국제학술컨소시엄: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멤버가 나고야 대학), 아시아 총장회의(운영위원회 멤버가 큐슈대학)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CAAS(아시아 아프리카 교육 연구 컨소시엄) 등의 설립을 제창하는 등, 국제 대학 연계 활동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⑤개별 연구 테마를 중핵으로 한 국제 전개 전략으로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연구 거점의 다면적 활용(장기 연수, 인턴십 등) 등을 제안하고 있다.

⑥직원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 연수를 통한 직원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OJT를 강조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국제 컨소시엄의 해외 대학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국내 복수 대학과의 연계 연수, 해외 거점을 통한 해외 연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외부 인재의 효과적인 등용을 통해 국제 전개를 피하고 자교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통해 그

4) 나고야 대학의 경우 멜보른 대학을 참고로 2005년 12월 Mission, Vision, Goal, Objective, Action으로 나누어 Mission은 나고야대학 학술현장에 의거한 대학 이념을 제시하고 Vision에서는 국제화에 관한 중기 목표로 아시아 제국과의 교류, 국제발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Goal에서는 국제 연계 목표를 명시하고 연구, 교육, 개발협력, 매니지먼트의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Objective, Action을 도식화하여 학내 관계자들이 모두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들의 귀중한 잠재능력을 대학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스페셜한 기술을 가진 직원의 내부 승진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 국제적인 직원 양성을 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도 JSPS를 통해 대학 국제화에 공헌할 고도 전문 인재의 육성을 위해 국제교육교류담당직원 장기연수프로그램(Long-term Educational Administrators Program for International Exchange: LEAP)을 실시하고 있다.

⑦외국인 연구자 유치 개선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설정과 재원 확보를 제안하고 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유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숙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외국인 연구자 와의 의식 공유, 원스톱 서비스 확립, Web의 유효 활용 등을 구체적인 전략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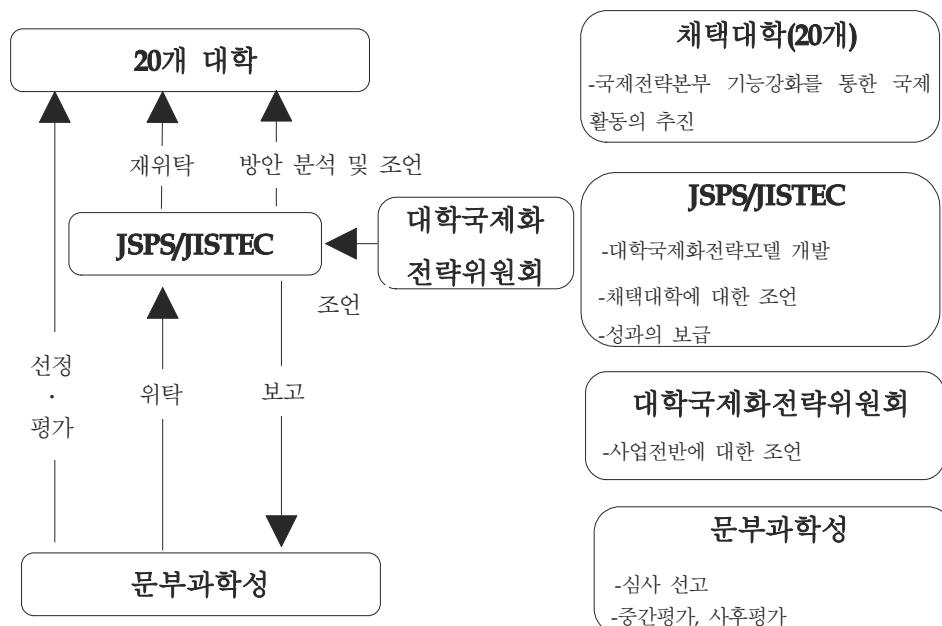
⑧일본인 신진 연구자의 해외연수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외 파견 연구자의 위기관리체제의 정비, 해외 거점의 활용, 국가 수준의 해외연수기회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일본의 대학과 해외 파트너 기관과의 조직적 연계를 통해 2개월에서 1년 동안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신진 연구자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프로그램(ITP)’를 시작하고 있다.

⑨해외 거점의 정비와 활용 전략의 실현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외거점의 설치와 운영을 장려하고 특히 일본의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해외 거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거점 간의 연계 지원 및 국가 수준의 All Japan의 서포트 체제 구축을 위해 국공사립의 모든 대학 및 기관들의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국제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국제화지표를 제시하여 이를 통한 평가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대학국제화지표 대항목으로는 ①대학의 이념, 목표, 계획, ②조직과 직원, ③예산과 집행상황, ④연구의 국제 전개, ⑤유치 시스템, 정보제공, 인프라(입시, 교육, 주택, 다언어, 환경), ⑥국제 연계의 다면적 추진, ⑦대학 수업에 있어서의 커리큘럼 국제화, ⑧학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교육교류, 인턴십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사후 평가를 통해 재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다. 추진 조직

조직 체제를 보면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일본학술진흥회(JSPS)와 사단법인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JISTEC)에 국제전략 강화사업을 공동 위탁하여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학술진흥회에서는 국제대학국제화전략위원회(위원장 기무라 다케시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장)를 설치하고 우수 대학을 선정할 뿐 아니라 국내외 대학의 국제전략, 국제화 방안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대학 국제화 전략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에 그 성과를 보급하고 있다.



(그림 III-1) 국제전략강화사업 추진 조직도

출처: 獨立行政法人日本學術振興會(2007), 大學の優れた國際展開モデルについて
(中間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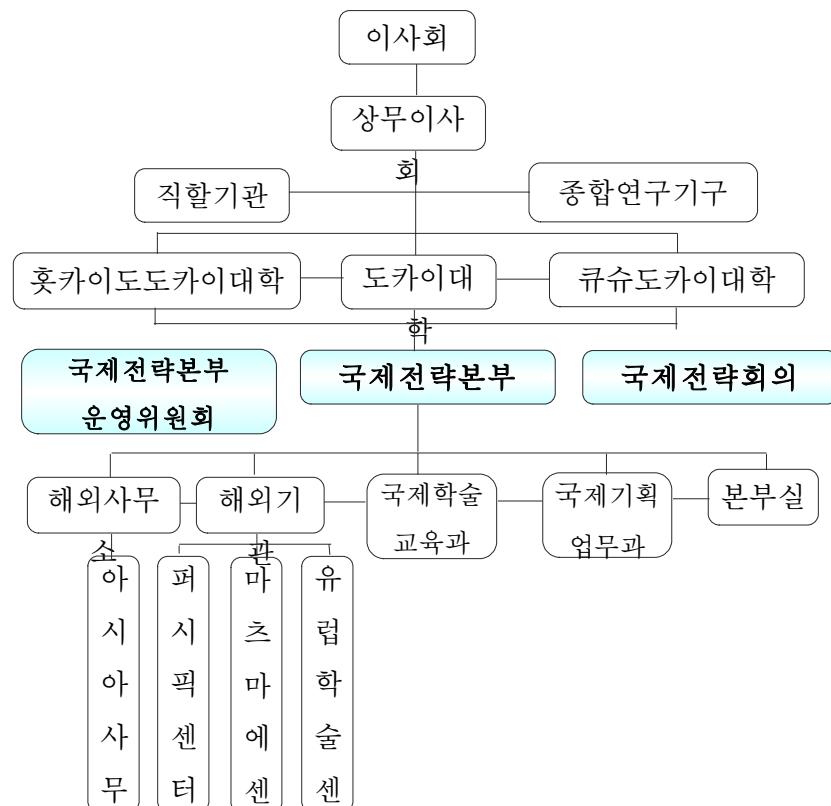
여기에서 채택된 20개 기관은 대학 내부에 국제전략본부를 조직하고 대학 국제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 내부의 추진 조직은 대학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총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계 부국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국제전략본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전략본부의 기능은 국제전략책정 등에 관한 기획입안 기능이 중심이 되어 실시 부분을 총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JSPS에서는 조직 운영에 있어 ①기획부분과 실시부분의 원활한 연계, ②본부와 부국의 적절한 업무 분담 및 연계, ③교원과 직원의 협동을 강조하고 있다.

〈표 III-3〉 국제전략강화사업 채택 기관 및 조직

번호	구분	기관명	조직
1	국립	홋카이도 대학	‘지속가능한개발’ 국제전략본부
2	국립	도호쿠대학	글로벌 오페레이션 센터
3	국립	도쿄대학	국제연계본부
4	국립	도쿄외국어대학	국제학술전략본부
5	국립	도쿄공업대학	국제전략본부
6	국립	히도츠바시대학	국제전략본부
7	국립	니가타대학	국제학술서포트오피스
8	국립	나고야대학	국제교류협력추진본부
9	국립	교토대학	국제교류추진기구
10	국립	오사카대학	국제교류추진본부
11	국립	고베대학	국제교류추진본부
12	국립	돗토리대학	국제전략기획추진본부
13	국립	히로시마대학	국제전략본부
14	국립	큐슈대학	국제교류추진기구
15	국립	나가사키대학	국제연계연구전략본부
16	공립	아이즈대학	국제전략본부
17	사립	게이오대학	국제연계추진기구
18	사립	도카이대학	국제전략본부
19	사립	와세다대학	국제연구추진본부
20	대학공동이용기관	자연과학연구기구	국제전략본부

여기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도카이 대학의 구체적인 조직 운영체제를 살펴보면, 국제전략본부는 3개 대학(도카이대학, 큐슈도카이대학, 홋카이도도카이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교육의 국제활동을 총괄하고 관리 운영의 실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전략본부에는 본부실, 국제기획업무과, 국제학술교육과, 해외기관 사무소를 배치하고 총괄적인 국제관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거점을 통해 시설 설비 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전략본부는 국제전략 회의와 국제전략본부 운영위원회라는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국제전략회의는 학내외의 국제경험이 풍부한 유식자로 구성하여 국제 활동에 관한 의견과 어드바이스를 하도록 하고 3대학의 국제관계 부서 담당자로 구성되는 국제전략본부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학의 국제전략을 책정하고 대학간 연계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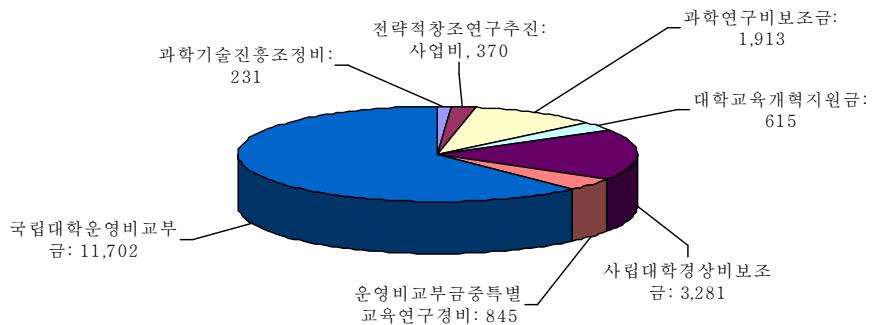


[그림Ⅲ-2] 도쿄대학 국제전략본부 사업 추진 조직도

출처: IDE大學協會(2007), 現代の高等教育 No482에서 작성

라. 예산 현황 및 재원 조달

먼저 대학에 배분되는 예산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전체 예산 18,957억 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영비 교부금 중 특별교육연구경비는 845억, 대학교육개혁지원금 615억, 과학연구비보조금 1,913억,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비 370억 등, 대부분이 경쟁적 중점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경쟁적 중점지원 예산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국제성을 중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유치하여 일본 내 거점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연구거점 형성 촉진 프로그램’이나 ‘대학 지적 재산 본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산관학 연계 추진 체제 정비 프로그램’,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 프로그램’ 등, 예산 배분이 대부분 국제화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 연구 조직의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고 국제 네트워크 기반 형성을 주요 평가 지표로 하고 국가 수준에서 대학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그림 III-3) 2007년도 일본 문부과학성의 대학 재정지원(단위: 억 엔)

출처: 獨立行政法人日本學術振興會(2007), 大學の優れた國際展開モデル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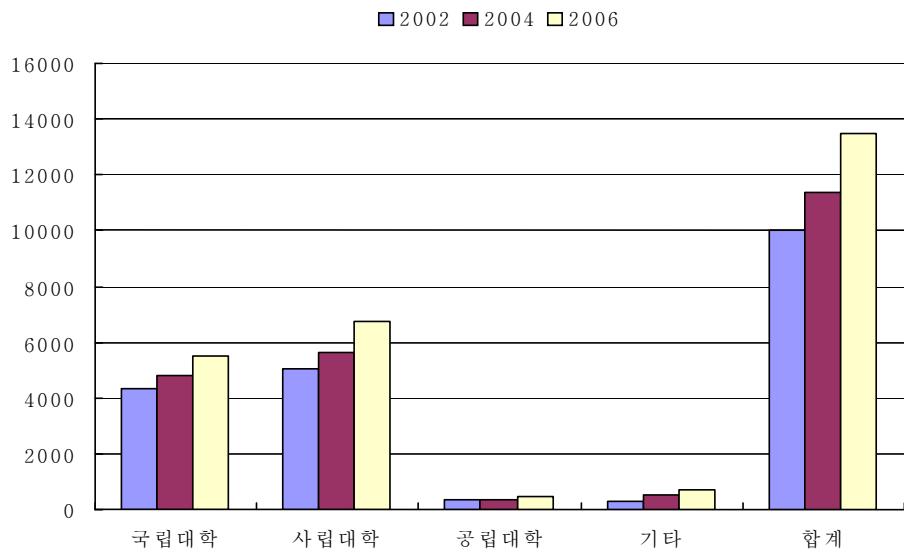
(中間報告書)

마. 국제화 현황

국제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개별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여기에서는 유학생 현황과 더불어 문부과학성이 조사하고 있는 교육과 학술 연구의 상호교류 현황을 통해 국제화 현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1) 대학간 교류협정

대학간 교류 협정이란 각 대학의 학부, 대학원, 연구소, 내부 조직 수준에서 MOU 등을 통해 체결한 협정을 말하므로 기관 하나에 다양한 협정이 있을 수 있다. 문부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전체 조사 대상기관의 약 80%에 해당하는 674기관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41%에 해당하는 5534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역시 50%에 해당하는 6745개의 협정을 맺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10,014에서 2006년 10월 현재 13,484건으로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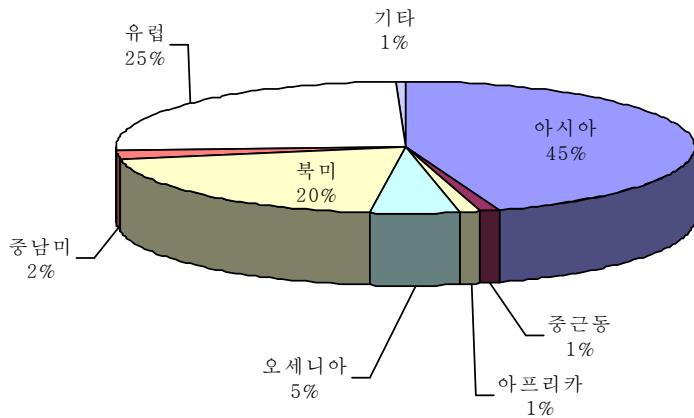


[그림 III-4] 대학 설립별·연도별 대학간 교류활동 건수

출처: 文部科學省(2007) 大學等間交流協定締結狀況調査에서 작성

가장 많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중국으로 2,565건에 달하며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미국이 2,298건으로 2위이며 한국이 1467건으로 3위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아시아 지역과의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교류 내용을 학생교류, 교원 및 연구자 교류, 사무직원 교류로 나뉘어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교류와 교원 및 연구자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도 3,022건으로 22.4%에 이르고 있다.



(그림 III-5) 상대 국가별 대학간 교류활동

출처: 文部科學省(2007) 大學等間交流協定締結狀況調査에서 작성

2) 해외거점 설치

나아가 해외에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 혹은 사무소를 설치하는 해외 거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 10월 현재, 해외에 설치하고 있는 거점은 276건으로 2004년 170건에 비해 약 60%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87개 국립대학 법인의 34.5%에 해당하는 기관이 137개의 해외 거점을 설치하고 있으며 571개 사립대학 역시 국립대학보다는 적으나 10%에 해당하는 100개 거점을 설치하고 있다. 163개의 해외 거점이 아시아 특히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해외 거점은 48개 거점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대학의 해외 거점이 가장 많은 도시는 북경(32거점), 방콕(20거점), 서울(165거점) 순으로 대학간 국제교류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을 중심으로 국제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해외 거점은 현지에서의 교육과 공동 연구 활동은 물론 이를 위한 서포트, 유학생 리쿠르트 활동, 정보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거점의 역할을 보면, 가장 많은 대학이 현지의 교육, 연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 서포트, 기관의 해외 홍보, 공동연구 실시 등의 순이었다. 설립별로 보면 국립대학은 공동연구 지원, 사립대학은 기관 홍보와 해외 자료 수집을 중심으로 해외 거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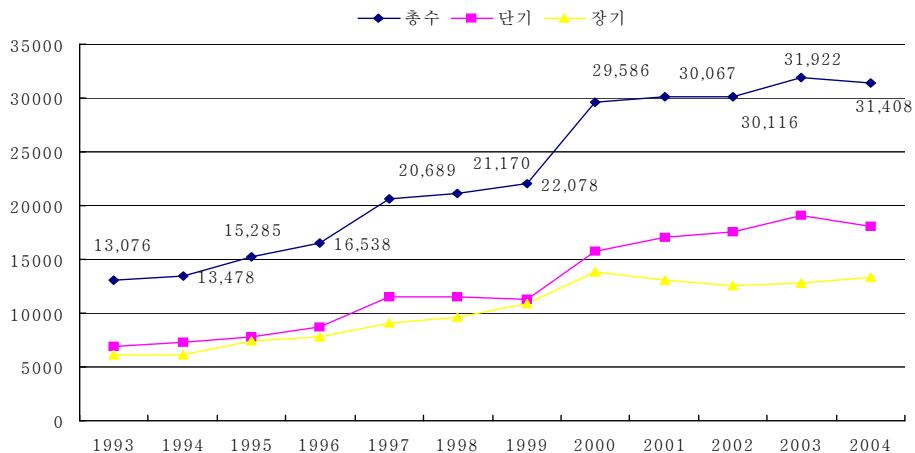
〈표 III-4〉 해외 거점 활동 내용

역할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	기타대학	총계
· 현지에서의 교육제공(일본 교육제도)	6	0	20	0	26
· 현지에서의 교육제공(설치국 교육제도)	9	0	13	0	22
· 일본 연구자의 연구 프로젝트 서포트	22	0	15	2	39
· 현지 대학과의 공동연구 서포트	95	7	41	19	162
· 현지 대학과의 공동연구 실시	93	6	23	4	126
· 현지 기업과의 연계 서포트	29	0	13	7	49
· 현지 기업과의 공동연구 실시	11	0	3	0	14
· 학생의 해외 연수 시설	15	0	15	0	30
· 직원의 해외 연수 시설	10	0	18	6	34
· 유학생 유치를 위한 리쿠르트 활동	27	0	46	0	73
· 연구자 유치를 위한 리쿠르트 활동	13	0	10	0	23
· 유학 및 인턴십 학생의 현지 지원	42	0	37	4	83
· 귀국한 유학생 및 외국인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38	0	42	7	87
· 현지 정보 수집	76	6	63	22	167
· 기관의 해외 홍보	51	6	60	22	139
· 현지의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 기관과의 연계 강화	42	0	28	16	86

출처: 文部科學省(2007) 大學等間交流協定締結狀況調査에서 작성

3) 연구자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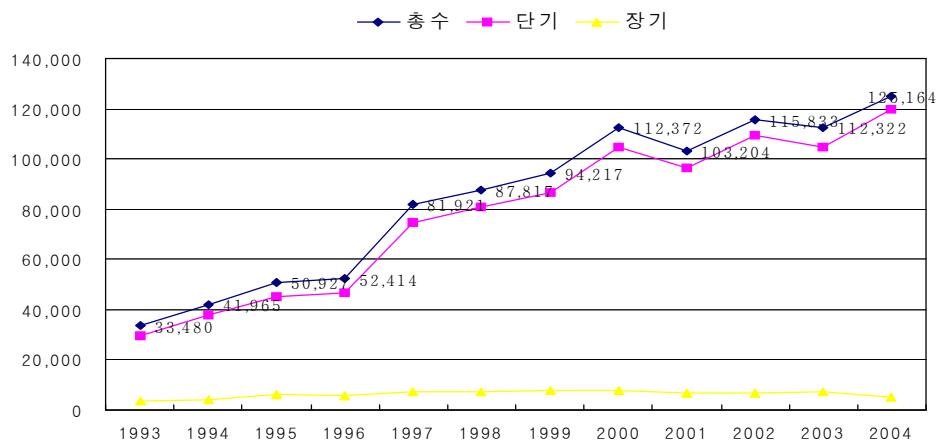
먼저 해외 연구자 유치 현황을 보면 외국인 연구자 유치 수는 2004년도 3만 명 수준으로 정체 경향에 있다. 이를 외국인 교수 비율로 따지면 일본의 외국인 교수 비율은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아 미국 19.3%, 영국 17.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III-6) 연도별 외국 연구자 수

출처: 文部科學省(2005) 國際研究交流の概要에서 작성

세계에서 피인용도 상위 논문의 37%가 해외직역이나 포스트 닉터를 경험한 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해외 연수 참가자의 국제화 공헌도가 매우 높다. 일본의 해외 파견 연구자 총수는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30일 이상 장기 파견자 수는 아직 매우 적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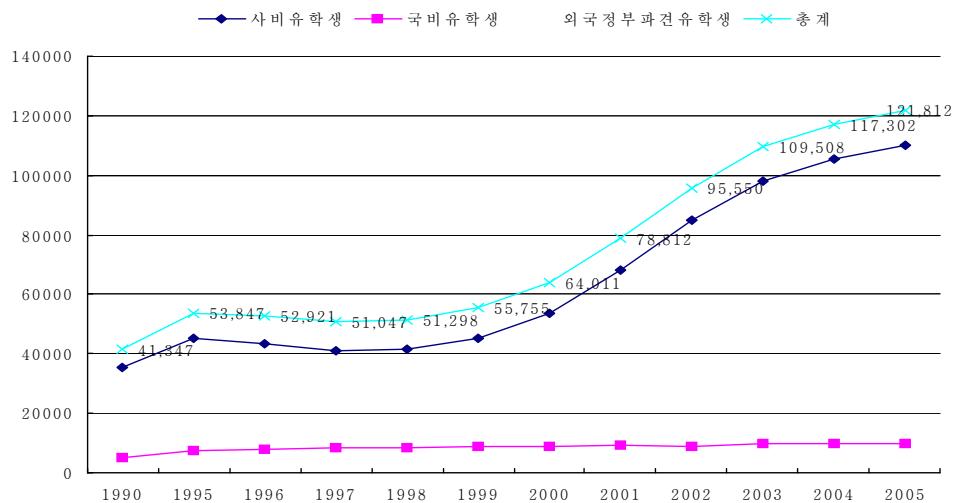


(그림 III-7) 연도별 해외 파견 연구자 수

출처: 文部科學省(2005) 國際研究交流の概要에서 작성

4) 유학생 유치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나카소네 정부의 유학생 10만 명 정책으로 1990년대 이 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조사에 의하면 2005년 현재 12만 명으로 주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한국, 대만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시아 중심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III-8) 연도별 유학생 현황

출처: 文部科學省(2007) 日本の留学生制度概要에서 작성

바. 시사점

이상으로 일본의 국제화 배경, 현황, 제도,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국제화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가 수준의 지원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주도로 대학 국제전략본부 사업단을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20개 대학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화를 위한 조직, 교육과정, 교류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 수준에서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 컨소시엄 및 협력망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컨소시엄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도 개별 대학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주도가 되어 국제 컨소시엄 및 협력망 구축을 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 정보발신기능의 강화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의 해외 거점 마련을 통해 해외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해외 과학 연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연구자의 해외 과학을 장려하고 있다. 기존의 수동적인 국제화 전략을 버리고 능동적으로 해외에 정보를 발신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국제화 전담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에서는 학생 혹은 교수 중심의 개별적인 국제화가 아니라 조직적인 국제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화 전담 인력의 연수와 해외 과학을 통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국제화 전담 부서조차 제대로 설치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이 많이 있으나 국제적인 인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유학생을 활용하여 언어 뿐 아니라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국제화를 꾀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평가 체제의 확립이다. 일본의 경우, 경쟁적 자금의 배분을 통해 대학들의 국제화 노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현상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대학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목표 달성을 평가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여 개선할 수 있는 PDCA 사이클을 운영하는 등, 피드백을 통한 계속적인 국제화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표의 개발을 통해 대학 국제화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중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중국에서 근대 고등교육기관은 19세기 말에 출현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다. 이러한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출현은 아편전쟁 이후 자본주의 물결의 도래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대학인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을 시작으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경사동문관은 당시 유신파였던 양계초가 일본대학의 체제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그후 근대 고등교육은 1911년 신해혁명 후 1927년까지 주로 일본과 미국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대학령>, <대학규정> 등을 공포하여 초보적으로나마 중국의 근대고등교육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927년 국민당통치시기부터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되기까지 22년간(항일전쟁 포함) 중국의 고등교육은 주로 미국의 교육을 모방하여 반식민지 반자본계급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 1947년 해방 전까지 고등교육기관은 207곳이 있었고, 학생수는 약 15.5만 명에 이르렀다. 1949년 신중국이 탄생한 이후 빈약한 토대위에서 사회주의 고등교육이 탄생하였다. 이때부터 소련의 교육방식을 따르는 교육개혁이 시작되었다. 그후 10년간 (1966-1976)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의 고등교육은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1978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국유제와 계획경제체제 아래 교육을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개혁개방에 따른 국제화의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임에 따라 국가가 학교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체제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으며 교육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저해하였다. 이에 중국 고등교육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제화’라는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경제성장에 맞춘 고등교육 개혁이 이루어졌다. 1984년에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결정이 승인된 후, 교육체제 개혁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서, 교육발전을 지원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중국 고등교육 체계가 개혁되는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났다. 1993년에 공적

교육 자금의 투입을 4%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발전과 개혁 프로그램이 나왔다. 1997년에는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세력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학비를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사설 고등교육의 확대가 있었고, 세계수준의 대학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 “211 프로젝트”와 “985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고등교육은 정치·경제의 변화 속에서 국제화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중국 고등교육기관이 준비한 것은 낙후된 고등교육기관을 발전시키는 일이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국제적 지위가 날로 커져가는 현재에도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화만을 위한 집중과 발전에 주력하기보다,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수준 향상과 내적 개선을 통해 국제화를 실현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이 자유롭게 유학을 가고, 외국의 학생들이 중국의 수준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유학을 오도록 하여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향한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등교육의 제도 및 전략

신중국의 성립 이후, 1950년대 초 중국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몇몇 주요 정책들을 단행하였다.⁵⁾

첫째, 고등교육기관들을 단일화했다. 중국에서는 원래 공공 고등교육, 사립 고등교육, 지방 고등교육 등으로 구분되었지만, 이러한 고등교육기관들이 공적인 고등교육기관들로 단일화되었다.

둘째, 급격한 경제성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교육기관들은 통합과 조정을 통해 재구조화되었다.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을 정부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이에 맞게 근대화 초기의 대학 형태를 바꾸었다. 따라서 이전의 몇몇 종합 대학들은

5) Market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2007. 10.6 Proceedings “중국본토에서의 다양화와 균등화 고등교육: 제도상의 계층화의 관점에서” 196–208.

공업대학으로 바뀌었다. 베이징 대학과 같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은 인문과학과 기초 자연과학만을 주요 학과로 삼았다. 또한 예전의 공업 고등교육 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공업 고등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이에 특정학과로 구분한 고등교육기관이 나타났다.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 대학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학위라기보다는 자격증) 등 4개의 범주이다. 유형별로는 종합, 재정과 경제, 정치와 법, 산업과 공학, 농업과 임학, 의학, 문학과 언어, 체육교육, 예술, 교사 교육, 군사 등이 있다. 대학의 성격으로는 대학교, 단과대학, 그리고 상급전문학교 등으로 구분되었다. 특정 직업을 목표로 하는 전공이나 학과가 생겼다. 국가의 중앙집권화 모든 계획으로 전공은 국가에서 계획하고 관리하였다. 신중국 성립 이후 10년 동안의 재구조화 후, 1963년 대학의 전공 수는 모두 373개였으나, 고등교육체계를 개선하고 몇 년 후인 1980년에는 전공 수가 모두 1039개가 되었고, 다음 해에는 1343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당시 취업에 따라 전공을 계획하는 것은 시대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1982년에는 전공 수를 줄이는 개혁을 실시했다. 그리하여 전공 수가 671개가 되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3년에는 그 수가 504개로 감소하였다.

셋째, 입학 정책을 단일화하였다. 과거 대학 입학시험은 개별 고등교육기관이 관리하였다. 이것은 지원자들이 서로 다른 기관들로부터 여러 제의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 결과 몇몇 기관은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학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높은 비용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학생들을 입학시켰고 이러한 입학시험은 전체 교육체계 심지어는 전체 사회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넷째, 대학의 등록금을 모두 정부에서 지급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공비로 배울 수 있었고 약간의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다섯째, 국가의 지원으로 인해, 단과 또는 종합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공공기관이든 사업체이든 법인이든 국가가 운영하는 직장에 배치되고 국가 간부의 신분을 얻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 적성과는 무관하게 배치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중국의 고등교육 전략은 새로운 개혁을 단행하였다. 세계는 지금 정보화·민주화·국제화의 흐름에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001

년 11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143번째로 정식 가입하면서 중국의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점진적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서비스 무역 총 협정(服務貿易總協定)> 관련 규정을 보면, 교육 서비스에 “원격교육 서비스 제공, 외국 유학 장려, 해외 학습 권장, 전문 인재 교류 장려”와 같은 네 종류의 사업이 있다.

이에 기초하여 중국은 특별한 서비스 예를 들어 군사, 경찰, 정치와 공산당학교 와 의무교육을 제외한 기타 교육서비스 모든 영역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에 교육 방면에서도 국내에만 국한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제화를 향한 준비를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방면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국내·외적으로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고등교육이 시작된 근대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지위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고등교육의 범위와 역할은 대학교육으로 모아졌다. 그러므로 현대 고등교육을 논하면서 그 의미를 대학교육으로 구체화시켜 언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대학교육 중심의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소수 특권세력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여, 중국의 고등교육은 오랫동안 질적으로 우수하고, 창의성이 있는 인재를 배양하지 못하였다. 100여 년 동안 중국의 대학교육은 개혁과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사회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배양할 것인지, 교학방법, 교육형식, 교학관리, 훌륭한 교사의 배양 등에 있어 전통문화와 전통교육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일류수준 대학의 양성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대학교육은 외형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그 수준은 높지 않다. 강택민(江澤民) 주석은 일찍이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선진국 수준의 일류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양하고, 세계민족 중 현대화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강대한 문화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국은 아직도 진정한 세계 일류수준의 대학이 없다. 한 개의

대학도 세계 10대 대학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겨우 아시아의 10위권 대학에 중국의 대륙에 북경대학이 5위에 머물고 나머지는 중국의 대만대학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점과 또한 5천년의 오래된 문명역사의 교육고국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⁶⁾ 이에 중국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다. 중국은 9·5기간(1996~2000)에 고등교육의 학생 규모를 두 배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80년대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고등교육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인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영화, 시장화의 방향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였다. 건국 초기부터 사립대학 관리에 실패한 이후, 중국은 민간의 역량을 오랫동안 간과해왔다. 현재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을 정부도 승인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 설립한 대학 이외에 사립대학도 세계화 추세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

6) 汪石滿, <中國教育>,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157.

1) 211 프로젝트

1995년 11월 국무원은 「211공정 총체적인 건설계획」을 비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100대 중점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211공정」을 제시하였다. 「211공정」에서 공정(工程)이란 계획 혹은 프로젝트란 중국말로서 “21세기 초에 세계적 수준의 「100대 중점대학」을 육성하자”는 계획을 줄여 지칭한 것이다. 2000년 말에 이르러 국가 교육부는 이미 99개의 대학을 비준하고 모두 602학과를 확정하여 중점학과 건설항목을 만들었다. 그중 북경대학(北京大學), 청화대학(清華大學), 복단대학(復旦大學), 남경대학(南京大學), 중국과학기술대학(中國科學技術大學), 절강대학(浙江大學), 남개대학(南開大學), 상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學), 서안교통대학(西安交通大學) 등 15개 대학교에 중점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계 일류대학과 경쟁하도록 하였다.⁷⁾

동시에 중점학과를 선정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 수준을 개선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표 III-5> '211프로젝트' 해당 학교 명단

北京大學	中國人民大學	清華大學	北方交通大學
北京工業大學	北京航空航天大學	北京理工大學	北京科技大學
北京化工大學	北京郵電大學	中國農業大學	北京林業大學
北京中醫藥大學	北京師範大學	北京外國語大學	北京廣播學院
對外經濟貿易大學	中央民族大學	中央音樂學院	南開大學
天津大學	天津醫科大學	河北工業大學	太原理工大學
內蒙古大學	遼寧大學	大連理工大學	東北大學
大連海事大學	吉林大學	延邊大學	東北師範大學
哈爾濱工業大學	哈爾濱工程大學	東北農業大學	夏旦大學
同濟大學	上海交通大學	華東理工大學	東華大學
上海第二醫科大學	華東師範大學	上海外國語大學	上海財經大學
上海大學	南京大學	蘇州大學	東南大學
南京航空航天大學	南京理工大學	中國礦業大學	河海大學
江南大學	南京農業大學	中國藥科大學	南京師範大學

7) 교육철학회 편, <대학교육 개혁의 철학과 각국의 동향>, 파주: 서현사, 2006: 258.

浙江大學	安徽大學	中國科學技術大學	廈門大學
福州大學	南昌大學	山東大學	中國海洋大學
中國石油大學(華東) 中國石油大學(北京)	鄭州大學	武漢大學	華中科技大學
中國地質大學	武漢理工大學	湖南大學	中南大學
湖南師範大學	中山大學	暨南大學	華南理工大學
華南師範大學	廣西大學	四川大學	重慶大學
西南交通大學	電子科技大學	四川農業大學	西南財經大學
云南大學	西北大學	西安交通大學	西北工業大學
西安電子科技大學	長安大學	蘭州大學	新疆大學
第二軍醫大學	第四軍醫大學	國防科學技術大學	

2) 985프로젝트

중국의 대학교육 발전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8년 5월 북경대학 개교 기념식 행사에서 강택민 전 주석은 211프로젝트에 선정된 100여 개 대학도 많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중 몇 개의 우수대학을 선정해 더욱 집중·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985프로젝트’이다. 211프로젝트의 토대위에서 985사업을 시작하여 일류대학과 수준 높은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강화했다. 또한 새로운 고급 인재배양과 과학교육에 집중하였다. 고등교육체계 중에서 그동안 간과했던 응용형 인재배양과 기술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985프로젝트에 따라 1999년 9개 대학을 1차 선정하고 2003년 12월에 2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였다. 2004년에 1개 대학이 더 추가됨으로써, 총 35개로 211공정이 1/3로 축소·재선택 되었다. 중점대학 및 중점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중점학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대학들이 세계 일류대학 수준으로 진보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은 211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중국은 새로운 대학체제를 수립해 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급인재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211프로젝트 및 985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어 대학의 교육환경과 수준이 제고되고, 관리 체제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⁸⁾

이들 정책은 대학별 경쟁력에 따라 지원에 차별을 두어 우수한 대학은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도퇴시킨다는 것으로, 대학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데 효

8) 교육철학회 편, <대학교육 개혁의 철학과 각국의 동향>, 펴주: 서현사, 2006: 260.

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985 프로젝트에 의해 선택된 고등교육기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6〉 “985프로젝트” 1기 중점 건설

학교	중점건설기관	체결날짜
南京大學	教育部、江蘇省	1999. 7
復旦大學	教育部、上海市	1999. 7
上海交通大學	教育部、上海市	1999. 7
西安交通大學	教育部、陝西省	1999. 9
浙江大學	教育部、浙江省	1999.11
南開大學	教育部、天津市	2000.12
天津大學	教育部、天津市	2000.12
東南大學	教育部、江蘇省	2001. 2
華中科技大學	教育部、湖北省、武漢市	2001. 2
吉林大學	教育部、吉林省	2001. 2
廈門大學	教育部、福建省、廈門市	2001. 2
武漢大學	教育部、湖北省	2001. 2
山東大學	教育部、山東省	2001. 2
中國海洋大學	教育部、山東省、國家海洋局、青島市	2001. 2
湖南大學	教育部、湖南省	2001. 2
中南大學	教育部、湖南省	2001. 2
大連理工大學	教育部、遼寧省、大連市	2001. 8
重慶大學	教育部、重慶市	2001. 9
四川大學	教育部、四川省	2001. 9
電子科技大學	教育部、四川省、成都市	2001. 9
中山大學	教育部、廣東省	2001.10
華南理工大學	教育部、廣東省	2001.10
蘭州大學	教育部、甘肅省	2001.12
東北大學	教育部、遼寧省、沈陽市	2002. 1
同濟大學	教育部、上海市	2002. 6
北京師範大學	教育部、北京市	2002. 8
中國人民大學	教育部、北京市	2003. 9
中國科技大學	中科院、教育部、安徽省	1999. 7
哈爾濱工業大學	國防科工委、教育部、黑龍江省	1999.11
北京理工大學	國防科工委、教育部、北京市	2001. 4
北京航天航空大學	國防科工委、教育部、北京市	2001. 9
西北工業大學	國防科工委、教育部、陝西省、西安市	2002. 1
中央民族大學	國家民委、教育部、北京市	2002. 6

〈표 III-7〉 ‘985프로젝트’ 2기 중점건설

학교	중점건설기관	체결날짜
中國科技大學	中科院、教育部、安徽省	2004.10
大連理工大學	教育部、遼寧省、大連市	2005.3
夏旦大學	教育部、上海市	2005.6
上海交通大學	教育部、上海市	2005.6
同濟大學	教育部、上海市	2005.6
重慶大學	教育部、重慶市	2005.7
浙江大學	教育部、浙江省	2005.7
山東大學	教育部、山東省	2005.8
吉林大學	教育部、吉林省	2005.8
中山大學	教育部、廣東省	2005.9
華南理工大學	教育部、廣東省	2005.9
蘭州大學	教育部、甘肅省	2006.4
南京大學	教育部、江蘇省	2006.9
東南大學	教育部、江蘇省	2006.9
中國海洋大學	教育部、山東省、國家海洋局、青島市	2006.12

3) 십일오 계획

그밖에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으로 ‘십일오(十一五)계획’이 있다. 이것은 1957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국가발전 계획인 ‘십일오(十一五)’는 5년마다 계획을 세워 이에 도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십일오란 11번째 5개년 계획을 가리킨다. 따라서 2006에서 2010년까지를 지칭한다.

십일오 계획은 11번째 5개년 계획으로 고등교육과 관련된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인재배양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배양 기구를 조성하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 창신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이렇게 하여 전체적으로 종류사회,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 창조성이 있는 국가와 인적자원이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제시하였다.

나.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진 조직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추진 조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로 구성된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분류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등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⁹⁾ 첫째, 비교적 높은 학술수준과 과학연구능력을 구비하고 교학과 과학연구를 병행하며 본 과교육과 연구생교육을 병행하는 연구형 대학이다. 둘째, 교학을 위주로 하며 본 과를 위주로 하는 일반 대학이다. 셋째, 창의적이며 예술적인 인재를 배양하는 전 문학과 학교, 사회지역학원, 직업기술학원, 단기직업대학 등이다.

최근 중국은 정기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구분되어 각종 형식의 학교가 합리적으로 각각의 특색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연구형 대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학과의 교수와 연구원은 자신의 영역 내에 권위를 가지며 정부内外의 어떤 사람도 그들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어떻게 연구하는지 알릴 수 없다. 둘째, 이러한 활동은 계획적이지 않다. 따라서 학술적 명예를 추구하는 행위는 선택적이다. 이러한 대학의 연구목표는 학술 혹은 응용에 있어 중대한 창업을 추구하며 사회경제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교학과학연구형 대학은 최고 수준의 연구의 질을 위해 부분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즉 교학과학 연구대학의 기본 학술경향은 특색 있는 기초학과발전(종합대학)과 특색 있는 고급기술연구(전문학과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은 전통산업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부분적으로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우세한 학과와 특색 있는 학과를 보호하고 학과군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술발전목표는 국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며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고급기술영역을 발전시키는 산업화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본과교학형 학원에서 자발적인 소규모의 과학연구 또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응용 연구는 이러한 학교 과학연구사업의 주체가 된다. 과학기술 발전목표는 지방에서

9) 馬陸享, 科學技術促進中的高等學校架構, 廣東: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6: 75.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는 주요한 동력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과교학형학원의 기본학술경향은 응용성 연구, 부분적으로 자주적인 연구(문리학원 위주)이다.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개발과 응용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기업기술진보를 위해 각종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한다. 현지 경제사회발전과 상호 긴밀한 결합을 통해 경제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주동적으로 지방경제건설 서비스를 통해 지방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 문화 과학과 기술의 원천과 중심이 된다.

전문학과 교학형학원은 기술과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주로 지방 발전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자문, 보급과 서비스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문학과 교학형학원의 기본 학술방향은 기술을 보급하고 서비스(직업기술 학원위주)를 하는 것이다. 현지의 기술시장, 직업시장, 문화시장의 수요와 긴밀하게 결합하고 지방의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 발전, 국민의 생활을 위해 서비스한다.

1982년 덩샤오핑은 ‘교육은 현대화를 위해,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소위 ‘3가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의하였고, 이것이 이후 중국교육의 개혁과 발전 방향의 지표가 되었다.

중국의 교육은 과거에는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드는 데 치중하여 왔으나 개혁, 개방 과정에서 실용적인 과학 기술과 전문기술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등교육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고등교육에서는 문과교육의 재건, 중점대학의 육성, 대학의 자주성 인정, 전원 기숙사 생활에 학비 면제라는 기준제도를 고치는 등의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대학은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 기능을 갖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21세기를 맞이하여 100여 개의 대학과 중점 대학을 지정하여 국가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또 하나의 사학 형태인 독립대학을 새로 출범시키는 등 대학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중국의 고등교육은 대부분의 학교가 국가의 통제 아래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은 주로 중국의 교육부로 바로 국무원 아래에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등교육 및 제반 교육에 대한 계획, 실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산하에는 행정부서 및 연구부서로 크게 사무실, 정책연구와 법제건설부, 발전계획부, 직속고등교육사업부, 인사부, 재무부, 기초교육부, 직업교육과 성인교육부, 고등교육부, 민족교육부, 사범교육부, 사상정치사업부, 사회과학부, 교육감독단 사무실, 고등교육학생부, 과학기술부, 체육위생과 예술교육부, 언어문자응용관리부, 언어문자정보관리부, 국제협력 및 교류부, 직속기관당위원회, 학위관리와 대학원생교육부, 퇴직간부국, 기율검사조직 및 감찰국이 있다. 이중 고등교육부에서 주로 고등교육에 대해 관리를 하고 계획하고 고등교육개혁에 대해 책임을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직속기관으로 국가교육행정학원(國家教育行政學院), 중앙교육과학연구소(中央教育科學研究所), 고등교육출판사(高等教育出版社), 교육부교육발전연구센터(教育部教育發展研究中心), 교육부고등교육사회과학발전센터(教育部高等學校社會科學發展研究中心), 교육부시험센터(教育部考試中心), 교육부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教育部職業技術教育中心研究所), 교육부유학서비스센터(教育部留學服務中心), 교육부대외한어교학발전센터(教育部對外漢語教學發展中心), 전국의 대학생 대출관리센터(全國學生貸款管理中心), 교육부고등교육학평가센터(教育部高等教育教學評估中心), 교육부학위와 석박사생교육발전센터(教育部學位與研究生教育發展中心), 교육부과학기술발전센터(教育部科技發展中心), 전국대학생 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全國高等學校學生信息諮詢與就業指導中心), 중국교육국제협회(中國教育國際交流協會), 교육관리정보센터(教育管理信息中心) 등이 있다.

그밖에 중국교육신문사(中國教育報刊社), 어문출판사(語文出版社), 언어문자응용연구소(語言文字應用研究所) 등이 있으며 학술협회로 중국교육학회(中國教育學會), 중국고등교육학회(中國高等教育學會), 중국성인교육협회(中國成人教育協會), 중국직업기술교육학회(中國職業技術教育學會) 등이 있어 전문가들의 연구 참여 및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고등교육의 예산 현황 및 재원

1993년 중공중앙국무원(中共中央國務院)에서는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를 반포하여 ‘고등교육은 고급 전문인재를 배양하고 과학기술문화를 발전시키며 현대화건설을 촉진하는 중대한 임무를 떠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1994년 국가는 정식으로 211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하였고 1995년 중공중앙국무원에서 “과학교육으로 국가를 흥성시키자(科教興國)”는 전략을 제시했다.

1996년 국무원은 <9·5기간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심화시키자는 것에 관한 결정>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사업체계의 구성은 기업을 주체로 산학연이 서로 결합한 기술개발 체계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일류대학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중앙재정교육경비를 매년 1%씩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비는 국내의 저명한 중점대학에 나누어 주어 세계 일류대학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표 III-8〉 자금 확보로 분류한 고등교육기관들의 변화¹⁾

회계 년도	1996	1997	1998	2000	2002	2003
전체 재정(만)	3678981	4362767	5981215	9831365	15832129.1	18736788
국가 교육재정	78.56%	76.51%	64.16%	57.34%	49.74%	46.80%
단체, 개인의 투자	0.39%	0.4%	0.40%	0.93%	2.64%	4.14%
기부와 자선금	1.07%	1.42%	1.98%	1.56%	1.77%	1.37%
등록금	15.06%	16.29%	14.23%	22.04%	26.94%	29.29%
그 외	4.92%	5.43%	19.17%	18.14%	18.92	18.40%

출처 : 중국 통계 연감(성인 교육기관 포함)

고등교육관의 전체 재정을 보면 국가에서 투자하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도농간, 지역간, 기초교육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대상이 다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90년대 이전까지 국가의 지원금을 통해 학생의 등록금을 충당하던 것에서 현재는 학생이 자비로 입학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졸업 후에도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중국의 고등교육은 놀랄 만한 발전을 하여 사회전체와 정부 투자 모든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전체에서 교육경비 투자 비율은 GDP 비율 1993년의 3.1%에서 2003년에 5.3%가 증가하였다. 교육발전과 인력자원 개발을 중시하는 미국, 한국, 칠레(사회전체에서 교육투자가 GDP 비율 평균 약 7%)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큰 차이가 있지만 그중 중국의 재정성 공공교육투자는 GDP 비율 1993년도의 2.5%에서 2003년에 3.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도상국가의 공공 교육투자 비율과 비교해볼 때 GDP 비율 평균 4.2%보다 낮아 교육발전과 인력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라. 국제화 추진 계획 및 현황

중국은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고등교육 기관을 국제화 수준에 맞추기 위한 내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으로 중국의 고등교육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2005년, 고등교육을 받은 재학생 수는 2300만 명을 초과했는데, 그 규모로 보았을 때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년에 비하여 약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입학률은 거의 21% 이상 증가하여, 2000년에 비하여 8.5% 상승하였다. 2005년 전국적으로 모집한 일반 대학교와 성인 대학교, 고등 직업(고등전문)학교 학생은 697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하여 320만 명 정도 증가하여,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같은 고등교육의 발전은 고등교육을 받아들인 국민에게 만족감을 주었고,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른 전문 인재의 수요에 부응하였다. 최근 들어, 국무원이 고등교육 발전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과학발전 이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학생 모집 증가 폭을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 규모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학생수로 보면, 2006년 말, 전국에 있는 2286 곳의 일반 고등교육 기관 가운데, 교육부와 기타 관련 부와 위원회가

주관한 일반 고등교육기관은 모두 107개이며, 나머지 2179개의 일반 고등교육기관은 지방 고등교육기관(사립 고등교육기관 포함)이다. 이는 전국 보통 고등교육기관 수의 95.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596개로, 2005년에 비하여 49곳이 증가하여, 9%의 성장률을 보였다. 독립학원(獨立學院)은 318곳으로 2005년에 비하여 23곳이 새로 생겼는데, 이는 7.8% 증가한 것이다.

2006년 전국 사립 고등교육(일반 및 성인 대학과 전문대 포함)에서 선발한 학생은 10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1%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6년, 사립 고등교육의 재학생 수는 280.5만 명으로, 이는 2005년 대비 31.9% 성장한 것이다.¹⁰⁾ 고등교육기관의 주요 변화 흐름을 <표1>과 <표2>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표 III-9> 제공자로 분류한 고등교육 기관들의 변화

연도	공공 고등교육			성인 고등교육 기관	독립 대학	사설 고등교육 기관			
	공립 정규 고등교육기관들								
	전문직업학교 & junior colleges (하급대학)	학사학위 수여 고등교육기관	석사학위 수여 고등교육기관						
2007	NA	NA	NA	NA	NA	295			
2006	1147	720	450	444	318	278			
2005	1091	701	450	481	295	252			
2004	1047	684	454	505	NA	228			
2003	1552		407	558	NA	173			
2002	1396		408	607	NA	NA			
2001	1225		411	686	NA	NA			
2000	1041		415	772	NA	NA			
1999	1071		446		NA	NA			
1998	590	432	408	962	NA	NA			

위의 표를 보면 성인고등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학위수여기관들과 사

10) 中國校友會網大學評價課題組. 2007中國民辦高校評價研究報告[R]. <大學>雜志：21世紀人才報.2007 (5). 재인용.

11) Market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2007. 10.6 Proceedings “중국본토에서의 다양화와 균등화 고등교육: 제도상의 계층화의 관점에서” 214-215.

설 고등교육기관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고등 교육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고학력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암시하며, 과거 거의 모든 기관이 공립기관에 치중되어 있다면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사설 고등교육기관이 팽창하여 고등교육이 조금이나마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에서 보면 종합대학이 명확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과학과 공학, 인문 사회과학 등, 과거 소련의 영향으로 설립되었던 특성화 단과대학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의 대학 평가기준이 종합대학 추세로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과학과 공학, 인문사회과학대가 종합대학으로 바뀌거나 학교간 통합으로 인해 종합대학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에는 신설 종합대학도 포함된다.

〈표 III-10〉 유형으로 분류한 고등교육기관의 변화

연도	합계	종합대학	과학과 공학	인문, 사회과학	사범대학	그 외
pre-1949	207	55	59	34	22	37
1949	205	49	68	49	12	27
1950	193	50	70	41	12	20
1951	206	47	78	47	30	4
1952	201	22	102	40	33	4
1953	181	14	96	37	33	1
1957	229	17	112	41	58	1
1960	1289	37	880	117	227	28
1962	610	31	402	65	110	2
1965	434	29	272	72	59	2
1971	328	27	227	26	44	4
1975	387	29	254	37	58	9
1976	392	29	258	38	58	9
1977	404	29	264	43	59	9
1980	675	32	378	84	172	9
1981	704	32	384	92	186	10
1985	1016	43	450	142	253	128
1986	1054	45	461	155	257	136
1993	1065	62	488	170	251	94
1996	1032	79	466	161	232	94
1999	1071	74	440	157	227	173
2002	1396	112	369	152	203	560

출처 : 중국 교육 통계 연감

고등교육은 미래 10년에서 20년까지 보다 개혁되고 진보할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설치와 분포를 조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성, 지역성, 지방성이라는 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것이다. 중국의 상황에 맞는 교학,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구생을 배양하기 위한 교학과학연구형 대학을 두고 본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을 설립할 것이며, 다양한 전문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응용성, 기능형 인재를 배양하는 고등직업대학을 설치할 것이다. 그밖에 일반 대학교와 성인대학이라는 두 개의 계열은 각 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종합성대학, 대학교, 다양한 학과를 둔 대학과 단과성 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발전규모 수요에 근거하면 2004-2010년까지 중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이 740곳 정도 새롭게 설립될 것이며, 더불어 대학교 및 대학원을 설치한 학교의 비율과 중서부지역 고등교육기관의 비율이 적정하게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약 20년 후를 생각하여 작성한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표 III-11〉 미래 20년 중국 고등교육 발전목표

년도	재학생수	그중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그중 대학원생	학령 인구	입학율
2003	2102	1109	65	12365	17
2010	2898	1706	142	11630	24.9
2015	3321	2021	194	9142	36.3
2020	3659	2243	257	8644	42.3

사회경제의 발전에 근거하면 높은 소질을 지닌 노동자와 기술형 인재가 요구됨에 따라 대학교 및 대학에서의 학생모집 비율은 비슷해질 것이다. 2010년 1700만 명이 일반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학생, 대학교 학생은 1130만 명이 될 것이다. 2020년에 이르러 2240만 명이 일반 대학교와 전문대학생으로 대학교 재학생수는 1510명 정도 이를 것이다.

12) 上海市教育科學研究院智力開發研究所. <新時期中國教育發展研究>. 上海: 上海科學院出版社. 2006: 165.

2003년 말 중국에서 석사생 및 박사생의 비율은 5:1이었다. 미국의 고등교육 비율은 일반적으로 10:1이다. 일반적으로 기타 선진 국가에서의 석사생과 박사생의 학생모집 비율은 12:1 정도이다. 국가 경험과 중국의 건설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10년에 석·박사생 비율은 조정되어 12:1이 될 것이다. 중국의 박사 연구생과 석사 연구생은 각각 16만 명과 126만 명 될 것이다.

2003-2020년 중국의 대학생 규모는 매년 1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만약 현재 공립대학의 내부적 본다면, 이러한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대적으로 사립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발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중국의 사립 대학교육기관은 전문대학과 직업교육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분은 사회에서 이름이 있는 사립대학교로서 본과중심으로 발전하여, 2010년까지 사립전문대학 대학교(고등직업)의 학생수는 일반 전문대학생수의 약 4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20년에는 60% 정도 차지할 것이며, 사립 대학교(독립학원 포함) 학생수가 일반 대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에 25%, 2020년에는 35%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예측으로 볼 때 2010년 중국의 일반 사립 일반 대학 교육에서 차지하는 학생 규모는 510만 명에 이르는 것이며, 2020년에 97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이다. 전국의 보통 고등교육기관 수는 2002년의 1400개 정도에서 2280개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2020년 중국의 일반대학교는 2010년의 토대에서 다시 700개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일반 고등교육기관 수가 2980곳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규모를 만족시키는 것이다.¹³⁾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가주도형 발전을 통한, 국제화 시대에 맞는 세계 일류 대학의 건설이다.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국가 규모에 비추어 그 위치나 수준이 매우 낮다. 이에 중국 정부는 211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 주도형 계획으로 중국을 대표할 고등교육기관을 건설하려 한다. 이에 북경대학과 청화대학에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경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몇몇 대학 및 학과에 집중 투자하여 학교수준을 세계수준에 이르도록 하고, 이곳에서 세계적 수준에 걸맞는 훌륭한 인재를 배양한다고 한다.

13) 上海市教育科學研究院智力開發研究所. <新时期中國教育發展研究>. 上海: 上海科學出版社. 2006: 166-167.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등교육의 국제적 발전 모색이다. 과거 건국초기에 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중국 고등교육기관도 평등에 기초한 발전 계획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국 고등교육 재정은 공부담 원칙으로 진학률 향상이 힘들었고,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개혁개방 이후 세계화시대에 중국을 대표할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이 부재한 상태에 직면하였다. 결국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소수 몇몇 대학을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뒤, 이를 다른 대학 으로 확대시켜 나아가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셋째,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흐름에 편승한 인재 배양이다. 중국의 고등 교육 발전은 사회적 요구, 세계화 시대에서의 국제적 흐름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려 한다. 서로 다른 계층과 규모에서 다양한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지향하고, 통일된 척도로 인재를 배양하던 과거의 방식을 지양하고 있다.

넷째, 학생의 요구와 질적인 면을 고려한 특성화이다. 고등교육의 특성화는 질 적인 제고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존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토대 이다. 더불어 고등교육의 수요자에 맞춰 전체 고등교육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수요자에 맞춘 인재배양이다. 고등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반드시 교육자 개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배양하는 인재는 반드시 국가, 사회, 사람 을 채용하는 기관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고등교육의 수준은 창의성을 키우 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며, 합리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대학원 교육의 제고이다. 중국 정부는 9·5기간 (1996-2000)에 고등교육의 학생 규모를 두 배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률을 42.3%까지 높여 고등교육의 대 중화 시대를 열 계획이다. 한편, 대학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고 한다.

일곱째, 대학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다.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는 대학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00여 개의 대학이 통합되었는데 이러한 추세

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경대(北京大)와 북경의대(北京醫大)가 북경대로, 청화대(清華大)와 중앙공예미대(中央工藝美大)가 청화대로, 복단대(復旦大)와 상해의대(上海醫大)가 복단대로, 절강대(浙江大)·항주대(杭州大)·절강의대(浙江醫大)·절강농대(浙江農大)가 절강대 등으로 통합되었다. 통합조정을 통해 일부 지역에 고등교육기관이 다시 설치되거나 단과학교가 많아지고 학교의 규모도 개선되는 등 비교적 좋은 종합대학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¹⁴⁾

마. 시사점

현재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 교류에 힘입어, 중국 교육은 과거 국내에만 국한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제화를 향한 준비가 요구 되고 있다. 이미 154개 국가와 지역에 교육교류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103개 국가와 지역에 32만 명의 유학생을 보냈다. 164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유학생만 해도 34만여 명이다. 국외에 파견한 교사, 전문가가 1800명, 외국교사의 초빙과 전문가의 초빙도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한·중 교육관계는 한때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소홀해지기도 했지만 20세기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세계정세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통하여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교육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한국의 고등교육이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시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의 고등교육이 국제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의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외적 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사회의 세계화이다. 2001년 11월 11일 세계무역 기구에 143번째로 정식 가입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세계화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중국인들의 의식과 중국 사회를 변화시켜 고등교육의 국제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의 점진적 개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면서 고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

14) 교육철학회 편, <대학교육 개혁의 철학과 각국의 동향>, 펴낸곳: 서현사, 2006: 261쪽.

하고 있다. 이는 중국 고등교육을 국내에만 국한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제화를 향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방면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국내·외적으로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둘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례한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이다. WTO의 가입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급기야 오늘날 세계경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북경(北京)과 상해(上海), 천진(天津)과 광주(廣州) 등을 국제적 도시로 만들었고, 고등교육기관은 이러한 도시를 중심으로 국제화 되어 갔다.

셋째, 개방에 따른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개선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자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게 되었다. 과거의 지식중심, 학과중심의 교육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쟁체계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개혁이 시대적·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한자문화 및 중국 전통 문화의 이용이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3000만 명에 이르렀고, 지구 전체에서 ‘중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부흥하여 중국은 세계 140여 곳, 50여 국가에 공자학원(孔子學院)을 설립하여 중국의 언어와 문화, 현대 중국의 상황을 알리려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이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상황에 맞게 창의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중국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밖에 중국의 고등교육은 내·외적으로 재외국 거주 인력과 화교인력을 활용하여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비입학이나 기부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교육투자 방법을 개선하여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중국은 세계 속의 중국으로 응비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그 노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폐쇄성을 띠고 있지만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내적 요인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주도형 발전 방안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주도의 중국 고등교육 발전 형태는 고등교육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화 정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211프로젝트’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국가의 적극적 의지가 개입되어 고등 교육 기관의 발전을 계획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기업을 통한 재원의 확보이다. 북경대의 북대방정(北大方正)이나, 청화대의 청화동방(清華東方)의 경우 그 수입이 중국 일류 기업 수준에 이르고, 여기서 생긴 재원(財源)은 대학시설의 확충, 면학 분위기와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중국 정부의 소수 몇몇 학교에 집중된 차별적 지원과 학교기업으로 인한 부자학교의 탄생은 중국 내 고등교육 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유도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상황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 학교기업을 통해 국제화의 대열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다.

셋째, 중국 내 우수 인재의 유치이다. 중국의 특정 대학에 우수 인재가 몰려드는 것은 중국 교육의 세계화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중국은 ‘211프로젝트’에 이어 ‘985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중국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에 의거하여 일부 소수 대학을 먼저 발전시키고 이를 점차 확대시켜 중국의 모든 대학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넷째, 학교 행정 시스템의 차별화이다. 이는 한국의 대학과 다른 체제로 중국의 대학은 학교 행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교수는 연구와 강의에 집중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은 전문 직원이 전담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되면서 지속적인 학교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국제화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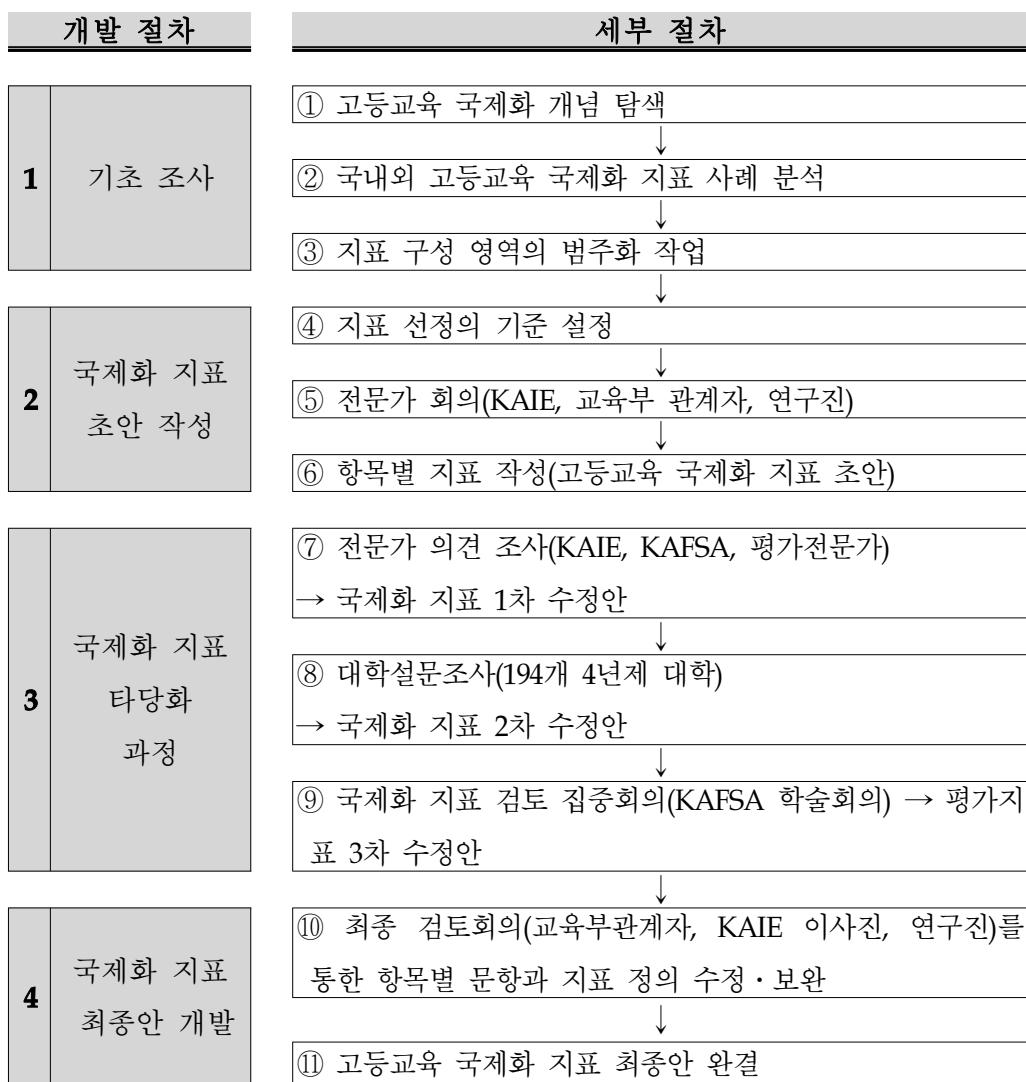
다섯째, 중국의 대학은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 비해 한국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업 시수와 수업량으로 실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인재의 배출로 외국 유수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국제적 감각을 배우고 키우는데 커다란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50년대 소련식 교육을 모방하여 임업대(林業大), 지질대(地質大), 광업대(礦業大)와 같은 전문 영역의 대학을 육성하였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미국

식 교육을 모방하여 대학간의 연합을 통해 그 규모를 키웠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지금도 존재하면서 특성화로 국제적 경쟁력을 고취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북경대나 청화대 같은 경우는 세계 유수 대학과의 경쟁을 준비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있다.

IV.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IV장에서는 국제화 지표 및 지수의 개발 절차와 그 결과를 제시한다. 개발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 절차

1.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 개발

고등교육 지표 개발의 첫 단계로서 국제화 지표 선정의 준거를 설정하였다. 다음은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의 기반 작업으로 국제화 평가 영역 및 부문을 범주화하고 각 부문별 지표를 선정하여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타당화 작업을 거치기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을 작성하였다.

가.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의 준거

구체적인 국제화 지표 개발에 앞서 우선 고등교육 지표 개발 국제화 지표 선정의 준거로서 타당성, 포괄성 및 간명성의 조화, 기능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나. 평가 영역 및 부문 설정을 통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의 범주화

고등교육 국제화 평가 지표를 범주화하는 첫 단계로서 평가 영역을 설정한 후 각 평가 영역별 하위 개념인 평가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각 평가 부문별 평가 지표를 정하였다. 고등교육 국제화 평가 영역 및 항목을 구획하고 각 부문에 속한 지표를 선정해 나가는 데 II장에서 소개한 국내외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 및 지표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 및 항목을 우선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을 위한 기본 열개를 구성하였고 다음으로 공동연구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대학의 국제교류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각 부문별 국제화 지표 선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각 부문별로 지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초기 단계에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들에서 영역은 목표 및 계획, 국제화 부서의 조직 구성, 예산의 책정 및 집행, 지원체제 및 기타 인프라, 교육과정, 인적구성 원의 국제화, 연구·교육활동의 국제화 등 7개 영역으로 설정하였고 각 영역별 하

위 항목인 평가 영역과 항목별 세부 지표는 다음에 소개되는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에 제시되었다.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은 이후 수행된 다단계의 지표 타당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평가 영역, 항목 및 지표 등 모든 구성 요소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영역, 항목, 지표의 세부 사항에 대한 소개와 논의는 3절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안>에 제시하였다.

다.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

<표 IV-1>은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 조사를 위한 대학설문조사지가 고안되었다. 또한 지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 지표 타당성에 대한 대학 설문조사, 전문가 집중 회의 등이 수행되었는데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은 전문가 검토 및 지표 타당성에 대한 대학설문조사에 조사도구로 활용되었다.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에 포함된 각 지표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대학설문조사 결과는 2절의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

영 역	항 목	지 표
목표 및 계획	국제화 지향 목표 및 국제화 전략 설정	국제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대학 차원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등 구체화된 국제화 실천 전략(action plan)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대학의 국제화 수행 현황 및 수준을 평가하는 자체 평가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공식 문서를 근거로 정성적으로 판단)
국제화 전담 부서의 조직 구성 및 직원 개발	국제화 전담 조직	국제교류 전담기구 설치 유무 및 형태 1.본부 내 계선조직 2.총장직속기구 3.부속기관 4.기타
		국제교류부서의 업무 범위 1.국제교류 2.외국인학생 3. 국제교류 및 외국인학생 4.국제교류, 외국인학행, 외국어교육
	국제화 전담 조직 구성원 현황 및 역량 개발	국제교류부서 근무자수 국제교류부서 직원의 직무 관련 위치 1. 국제교류전담 2.일반행정직과 순환 근무

영 역	항 목	지 표
		국제교류부서 직원의 해외 연수 참가 현황
	일반 행정 직원의 국제화 역량 개발	일반 행정 직원의 해외 연수 참가 현황
예산 책정 및 집행	국제화를 위한 예산	국제화를 위해 책정된 세부 항목별 예산 규모 (예. 국제전담부서 예산이 전체 학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원체제 등 인프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인프라	각종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으로부터의 질의-응답 횟수 - 영어 웹사이트 구축 여부, 영어 웹사이트 업데이트 주기 - 제공정보의 충실성(예.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유형화하여 정성 평가 항목 개발)
	외국인 학생, 교수, 연구자를 위한 제반 지원 체계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외국인 학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생모임과 국제관련 부서의 연계 운영 여부 - 국제학생모임에 대한 직접적 예산 지원 여부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부 및 학내 외국인 구성원 참여 현황 (예.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외국인 교수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국제학생 주거지원 외국인 교수 주거지원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해외 대학과의 네트워크 (자매결연 대학수 및 국가수) *MOU체결 기준 국제교류기구와의 네트워크 현황 (예. IIE, NAFSA, EAIE, KAIE 등에 가입한 수)
		학생 및 연구자 모집 또는 파견에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국제교류협의체 참가 횟수(예. NAFSA, EAIE, UMAP, APPLE, APIE 등) - 연간 유학박람회 참가횟수 - 연간 유학설명회 개최건수
		교원 또는 직원의 직무수행 평가시 국제활동성과 반영 여부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의한 학점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정 학점수 (졸업요건으로 인정가능한 최고 학점수) - 인정방식 (A,B,C,D 형태의 학점인정 vs. pass/non-pass 형태의 학점인정)
	국제화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해외 거점 마련
	해외 거점 마련	해외분교 설립 실적
교육과정	외국과의 공동운영 프로그램 설치	교육과정 공동운영 설치 실적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과목 운영	국제 평가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규모 (학과수 및 참가 학생수) (예. Washington Accord 가입으로 공학교육인증원의 학과프로그램 인증은 국제적 인증을 받게 됨. 이같은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국제 평가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수)
	교육과정	외국어 전용 강좌 현황

영 역	항 목	지 표
		외국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현황 국제학 관련 강좌 현황 한국학 강좌 현황
	기타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강좌 설치 이외의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현황 (예. International Summer School)
인적구성원의 국제화	인적구성원의 국제화	외국인 학생 등록 현황 외국인 학생 국적별 다양성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학생 현황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 등 외국인 학내 구성원을 대학국제화에 활용한 정도 (예. 조교, 글로벌라운지, 멘토제도, 언어교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수, 교수수) 외국인 교원수, 전체 교원에서 외국인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
교육연구 활동의 국제화	연구	외국연구소 유치 실적 교수 연구 성과의 국제화 - 외국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수 (SCI급, 외국학술지 일반) - 해외 저널 인용수 국제 공동 연구 실적 교환 교수 실적 - 외국 대학 또는 연구소 등과의 교환 프로그램에 의한 교수 교류 실적 교수의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기구회의 참석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회의 주최 현황
	교육	해외 인턴십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한 학위취득자수

2.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타당화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평가 영역 및 평가 항목 범주화 작업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 대학설문조사, 고등교육 국제화 관계자 집중회의, 최종 검토 회의 등 총 4단계에 걸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타당화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가 협의회 및 전문가 의견 검토

고등교육 국제교류 담당 부서장, 국제교류 실무자, 평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 자문진을 중심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수합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본 연구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실시하였다. 지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실시한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총 6명의 연구 자문진이 참석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II장에서 제시된 7건의 국내외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의 개념적 틀 및 지표 리스트를 참고하여 전문가들이 평가 영역 및 부문 구성, 각 부문별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지표 정의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표 IV-1>에 제시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은 다시 10명의 연구 자문진에게 메일을 통해 배포되었다. 전문가 의견 검토 과정에서는 각 지표별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평가 틀에 대한 검토 의견이 수합되었다.

〈표 IV-2〉 지표 초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항 목	정 의	대학설문 평가결과	전문가 평가결과
국제화 지향 목표 및 국제화 전략 설정	국제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대학 차원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3.72	3.44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등 구체화된 국제화 실천 전략(action plan)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3.69	4.00
	대학의 국제화 수행 현황 및 수준을 평가하는 자체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3.28	
	국제화 실천 전략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3.55	
국제화 전담 조직	국제교류 전담기구 설치 유무 및 형태 1.본부 내 계선조직 2.총장직속기구 3.부속기관 4.기타	3.27	3.22
	국제교류부서의 업무 범위 1.국제교류 2.외국인학생 3.국제교류 및 외국인학생 4.국제교류, 외국인학행, 외국어교육	3.60	4.78
국제화 전담 조직 구성원 현황 및 역량 개발	국제교류부서 근무자수	3.08	4.33
	국제교류부서 직원의 직무 관련 위치 1. 국제교류전담 2.일반행정직과 순환 근무	3.01	4.78
	국제교류부서 직원의 해외 연수 참가 현황	3.02	4.56
일반 행정 직원의 국제화 역량 개발	일반 행정 직원의 해외 연수 참가 현황	2.97	4.44
국제화를 위한 예산	국제화를 위해 책정된 세부 항목별 예산 규모 (예. 국제전담부서 예산이 전체 학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38	4.00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인프라	각종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여부 - 외국으로부터의 질의-응답 횟수 - 영어 웹사이트 구축 여부, 영어 웹사이트 업데이트 주기 - 제공정보의 충실성(예.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유형화하여 정성 평가 항목 개발)	3.19	4.22
외국인 학생, 교수, 연구자를 위한 제반 지원 체계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3.60	4.44
	외국인 학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국제학생모임과 국제관련 부서의 연계 운영 여부 - 국제학생모임에 대한 직접적 예산 지원 여부	3.42	4.22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부 및 학내 외국인 구성원 참여 현황 (예.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3.67	3.67
	외국인 학생·외국인 교수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3.65	4.00
	국제학생 주거지원	3.78	4.33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교수 주거지원	3.68	4.00
	해외 대학과의 네트워크 (자매결연 대학수 및 국가수) *MOU체결 기준	3.66	3.89
	국제교류기구와의 네트워크 현황	3.09	4.56

항 목	정 의	대학설문 평가결과	전문가 평가결과
	(예. IIE, NAFSA, EAIE, KAIE 등-에 가입한 수) 학생 및 연구자 모집 또는 과전에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 정도 - 연간 국제교류협의체 참가 횟수(예. NAFSA, EAIE, UMAP, APPLE, APIE 등) - 연간 유학박람회 참가횟수 - 연간 유학설명회 개최건수		
국제화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교원 또는 직원의 직무수행 평가시 국제활동성과 반영 여부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의한 학점 인정 범위 - 총인정 학점수 (졸업요건으로 인정가능한 최고 학점수) - 인정방식 (A,B,C,D 형태의 학점인정 vs. pass/non-pass 형태의 학점인정)	3.55 2.67 2.91	3.00 4.33
해외 거점 마련	해외분교 설립 실적	2.21	3.11
외국과의 공동운영 프로그램 설치	교육과정 공동운영 설치 실적	2.61	4.44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과목 운영	국제 평가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규모 (학과수 및 참가 학생수) (예. Washington Accord 가입으로 공학교육인증원의 학과프로그램 인증은 국제적 인증을 받게 됨. 이같은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국제 평가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수)	2.61	3.89
교육과정	외국어 전용 강좌 현황 외국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현황 국제학 관련 강좌 현황 한국학 강좌 현황	3.42 3.45 3.24 3.21	4.67 3.89 4.00 3.44
기타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강좌 설치 이외의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현황 (예. International Summer School)	3.19	4.22
인적구성원의 국제화	외국인 학생 등록 현황 외국인 학생 국적별 다양성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학생 현황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 등 외국인 학내 구성원을 대학국제화에 활용한 정도 (예. 조교, 글로벌라운지, 멘토제도, 언어교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수, 교수수) 외국인 교원수, 전체 교원에서 외국인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	3.59 3.09 3.33 3.06 3.28	4.89 4.44 4.00 4.44 4.56
연구	외국연구소 유치 실적 교수 연구 성과의 국제화 - 외국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수 (SCI급, 외국학술지 일반) - 해외 저널 인용수 국제 공동 연구 실적 교수 교류 실적 교수의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기구회의 참석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회의 주최 현황	2.42 3.22 2.97 3.18 3.15 2.88	3.56 4.78 4.11 4.33 4.00 3.78 3.89
교육	해외 인턴십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한 학위취득자수	3.24 2.67	4.44 4.22

나. 대학설문조사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초안은 동 초안을 바탕으로 축조된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 조사 설문지에 포함되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201개 4년제 대학에 배포되었다. 국제화 지표 초안의 타당성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 타당과 과정에서 201개의 대상 대학 중 194개 대학으로부터 조사지가 회수되었다. 조사지가 회수된 194개 대학 중에서 무응답, 오류 등의 사유로 응답이 무효 처리된 12개 대학을 제외한 182개 대학의 응답을 바탕으로 <표 IV-2>에 제시된 지표별 타당성에 평가 결과가 산출되었다.

다. 대학 국제화 관계자 집중 회의

대학설문조사를 통한 국제화 지표 타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화 지표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수정안을 마련한 후 대학 국제화 관계자 집중 회의를 통한 지표 타당성 검토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전국 60여개 대학 국제교류 부서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인 KAFSA(Korea Association of Foreign: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의 추계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계자 집중 회의를 가졌다. 약 70여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가한 동 회의에서 지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논의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 지표틀(Macroscope)

- 영역 및 부문 구분 및 지표 선정의 타당성
- 전체 지표수 및 영역 부문별 지표수의 적절성 여부.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하고 어떤 수준의 조정이 필요 한가?
- 교육중심대학 vs 연구중심대학 또는 대규모대학 vs 중소규모 대학 별로 국제화 지표를 적용하는 경우, 선택적 지표 적용(학교별로 차별적 지표 적용을 통

해 학교 특성 반영)과 가중치 적용(지표를 공통으로 적용하되 차별적 가중치 적용을 통해 학교 특성 반영)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

2) 세부 지표 관련 문제(Microscope)

- 교육과정 지표의 경우 지표 정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상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예컨대 1) 전체학생 중 수강학생의 비율 2) 전체과목 중 해당 교과목의 비율 3) 전체교수 중 해당 교수의 비율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각 항목별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만약 상대적 수치로 할 경우에는 대학을 대규모 대 중소규모로 분류하여 각각의 그룹 내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교육과정 관련 지표의 경우, 교과목 수 산정시 발생할 수 있는 전공 과목 및 교양 과목 구분 문제. 예컨대 ‘외국어 전용 강좌’의 경우 전공과목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 학습 관련 교과목’과 ‘국제화 관련 교과목’의 경우, 교양과목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까지 모두 지표 정의에 포함시킬 것인가?
- ‘외국어 전용 강좌’ 지표 정의에 있어서 현재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 정의에 의하면 영어 전용 강의 과목수 산정시 영문과 등 해당 언어 학과에 설치된 교과목 수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한국학 강좌’ 지표의 필요성 및 지표 정의에 대한 의견은? 예컨대 한국학 강좌의 경우 지표 선정의 지향점을 정할 때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한국 한생을 대상으로 자국에 대한 이해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 학문 프로그램 중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과목 운영’이라는 지표는 대학 수준에서는 타당도가 낮게 나왔으나 전문가 검토에서는 높게 나왔음. 현 지표 안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지표 채택 여부에 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외국인 교수’ 지표의 경우 전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비전임외국인 교원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두 개의 항목의 합으로 지표를 정의할 것인가?

- 연구 영역 지표에 대한 집중적 조언 구함
-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회의 주최 실적 지표의 타당성
- ‘교수 교환’ 지표의 정의에 있어서 현재 잠정적으로 ’외국과의 교수 교류 협정 체결에 근거한 교수 교환 실적으로서 해당 교수가 외국의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연구 또는 교육 활동에 참여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하는 안을 고려중임.
이에 대한 논의 필요

라. 최종 검토 회의

상기 대학 국제화 관계자 집중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과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2차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KAIE 이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 자문진, 연구진이 참여한 최종 검토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검토한 후 최종 지표 및 지수안을 확정하였다.

3.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안

〈표 IV-3〉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안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지 표
I. 목표, 전략 및 실행 계획	1-1 전략 수립 타당성	-대학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한 목표 및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대학의 미션, 특성 및 전반적인 대학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가?
	1-2 실행 계획의 체계성	-단기·중기·장기 등 시기별 계획과 목표가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국제화 목표 및 전략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II. 조직·예산	2-1 조직	-국제화 관련 계획의 실행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조직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은 합리적인가? -국제화 목표 및 실행 계획 달성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2-2 예산	-실행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 기획 및 실행이 이루어졌는가? -대학 전체 예산 대비 국제화 예산 규모 및 국제화 예산 내 세부 항목간 예산 배분이 적정한가?
III. 인프라	3-1 정보체제	-외국인 대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내용이 입학, 학사, 생활, 취업 등 외국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충실히 담고 있으며 주기적 정보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정보지원의 견실성)
	3-2 지원체제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차원에서 마련된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이며 충실히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거 지원 체제: 외국인 구성원 기숙사 수용율 -한국어 지원 체제 -학습 지원 체제 -기타 적응 및 생활 지원 체제
	3-3 네트워크	협력협정 대학의 활용 정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지 표
		국제교류네트워크 활용도
IV. 학습프로그램	4-1 교육과정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외국어 학습 능력 향상 강좌 비율
		국제화 관련 강좌 비율
		한국학 강좌 비율
V. 인적구성원의 활동	4-2 공동운영 학위 프로그램	복수학위 학위취득자 비율/수
		공동학위 학위취득자 비율/수
		해외인턴십 참여 학생 비율
VI. 연구	5-1 학생	외국인학생비율 (학위/대학원)
		교환학생프로그램 참여 내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국적별 다양성
	5-2 교수	외국인 교원 비율
VI. 연구	6-1 연구 성과 발표	교수1인당 SCI 논문수
		해외저널피인용지수
		교수1인당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회의 발표 건수
	6-2 연구 활동의 국제화	국제 공동 연구 실적
		해외 수주한 연구 전수 및 연구비 총액
		교수 교류 실적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정의

1. 목표 · 전략 · 실행 계획

1.1 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기준

대학은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대학 고유의 미션, 특성, 그리고 전반적인 대학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1.1.1 국제화를 위한 목표 및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대학의 미션, 특성,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가?

<A/B/C/D/E>¹⁵⁾

▶ 평가 내용

- ① 대학 차원의 국제화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 ② 대학의 미션 및 특성과의 연계성
- ③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계획과의 연계성

1.2 실행 계획의 체계성

평가
기준

대학은 국제화 전략 및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5) A는 가장 높은 수준, E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며 아래의 평가 내용이 평정 근거로 활용될 것임.

1.2.1 단기 · 중기 · 장기 등 시기별 계획과 목표가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국제화 목표 및 전략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A/B/C/D/E>

▶ 평가 내용

- ① 단기 · 중기 · 장기 등 시기별 계획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설정 여부
- ② 실행 계획의 실현가능성 ③ 대학 국제화 목표 및 전략 내용과의 연계성

1.2.2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A/B/C/D/E>

▶ 평가 내용

- ① 세부 계획 실행을 위한 기구 및 부서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② 실행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의 적절성

2. 조직 · 예산

2.1 조직

평
가
기
준

대학은 국제화 관련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역할 및 책임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구성해야 하여 양적 · 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1.1 국제화 관련 계획의 실행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조직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은 합리적인가?

<A/B/C/D/E>

▶ 평가 내용

- ① 국제화(또는 국제교류)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② 국제화

(또는 국제교류) 전담 조직이 학내 다른 조직과 업무 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국제화(또는 국제교류) 전담 조직내 역할 및 책임 배분의 적절성

2.1.2 국제화 목표 및 실행 계획 달성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A/B/C/D/E>

▶ 평가 내용

① 국제 부서 구성원의 수, 구성원의 고용 상태¹⁶⁾ 등에 비추어 본 국제화(또는 국제교류) 전담 인력 구조의 적절성 ② 국제 부서 직원 배치시 국제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 등에 관한 자격 요건 고려 여부 ③ 국제 부서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 해외 연수 등을 통한 국제 부서 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조직적 노력의 수준.

2.2 예산

평
가
기
준

대학은 국제화 관련 실행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해야 하며 대학 전체 예산 대비 국제화 예산 규모 및 국제화 예산 내 세부 항목간 예산 배분이 적정해야 한다.

2.2.1 실행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 기획 및 실행이 이루어졌는가?

<A/B/C/D/E>

▶ 평가 내용

① 실행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예산 편성 여부 ② 편성 계획에 따른 예산 실행의 적절성

16) 국제 부서 직원수 산출시 겹직을 하고 있는 직원수는 제외함. 고용 상태란 안정적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또는 임시직 등 안정적, 장기적 근무가 불가능한 고용 상태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

2.2.2 대학 전체 예산 대비 국제화 예산 규모 및 국제화 예산 내 세부 항목 간 예산 배분이 적정한가?

<A/B/C/D/E>

▶ 평가 내용

- ① 대학 전체 예산 대비 국제화 예산 규모의 적절성
- ② 국제화 예산의 세부 항목간 예산 배분의 적절성

3. 인프라

조직 · 예산 등을 제외한 제반 여건을 나타내는 영역을 인프라로 설정하였으며 동 영역의 하위 요소로서 정보체계, 지원체계, 네트워크 등 3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3.1 정보체제

평가 기준

대학은 현재 또는 잠재적 외국인 구성원을 위해 입학, 학생, 생활, 취업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충실히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 제공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1.1 외국인 대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내용이 입학, 학사, 생활, 취업 등 외국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충실히 담고 있으며 주기적 정보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A/B/C/D/E>

▶ 평가 내용

- ① 외국인 대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내용의 포괄성 및 충실히 정도 ②

주기적 정보 갱신의 적정성 ③ 질의-응답 담당자 등 외국인 대상 학교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이행 정도

3.1.2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차원에서 마련된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이며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A/B/C/D/E>

▶ 평가 내용

①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차원의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도구의 종류 ② 제공되는 정보의 포괄성 및 충실성 ③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화 프로그램 관련 질의-응답 전담 담당자 확보 여부

3.2 지원체제

평
가
기
준

대학은 학내 외국인 구성원을 위해 학습, 연구, 생활, 진로 등 전반에 걸쳐 충실히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3.2.1 주거지원체제: 외국인 구성원 기숙사 수용률

▶ A+B+C

A=(학생기숙사 및 대학지원 민간임대 이용하는 학위과정등록 외국인 학생수/학위과정등록 외국인학생수)*100

B=(학생기숙사 및 대학지원 민간임대 이용하는 비학위과정등록¹⁷⁾ 외국인 학생수/비학위과정등록 외국인학생수)*100

C=(교수아파트 및 대학지원 민간임대 이용하는 외국인 교수수/외국인 교수교)*100

3.2.2 한국어 지원 체제

<A/B/C/D/E>

▶ 평가 내용

- ①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 수준 평가 체제 보유 여부 ② 평가 결과의 등급 설정 등에서 볼 수 있는 평가 체제의 체계성 ③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한 한국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부

3.2.3 학습 지원 체제

<A/B/C/D/E>

▶ 평가 내용

- ①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지원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 및 인력 확보 여부 ② 한국 학생, 교수 등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3.2.4 기타 적응 및 생활 지원체제

<A/B/C/D/E>

▶ 평가 내용

- ① 외국인 구성원 모임과 국제 부서의 연계 운영 여부 ② 외국인 구성원 모임에 대한 직접적 예산 지원 수준 ③ 다양하고 충실향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④ 외국인 학생 및 교수 동반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3.3 네트워크

평
가
기
준

대학은 국제화를 원활하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3.1 협력협정 대학의 활용 정도

- ▶ (협력협정 체결 대학 중에서 학생, 교수, 또는 직원의 교류 실적이 있는 대학수/ 협력협정 체결 대학수)*100

3.2.2 국제교류 네트워크 활용 정도

▶ A+B

A=국내외 국제교류 협의체 모임에 단순 참가한 횟수

B=국내외 국제교류 협의체 모임을 통하여 유학박람회, 유학설명회 등을 개최한 횟수

\

4. 학습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영역은 정규·비정규, 교과·비교과를 망라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국제화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위프로그램, 비정규 프로그램 등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교육과정 18)

평
가
기
준

대학은 한국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외국인 학생이 학내에서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화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1.1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 (외국어로 제공되는 정규 강좌수/전체 정규강좌수)*100

※ 전공강과와 교양강좌를 모두 포함하는 정규과정 중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강좌수를 기재하되 해당언어강좌(외국어 전공, 외국어 회화 등 교양강좌는 제외함. 예컨대 영어 전공과목의 영문학 강독, 영어 회화, 불어 전공과목의 시사불어 강독, 불어회화 등은 제외함.

18) 교육과정 영역에서 강좌수 산정시 대학의 학부과정에 개설된 정규강좌만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강좌는 제외함. 1개 강좌가 2개 이상으로 분반된 경우에는 1개 강좌로 산정함.

4.1.2 외국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비율

- ▶ (외국어 학습 관련 강좌수/전체 교양 과목 강좌수)*100
- ※ 외국어 학습 능력 강좌수는 학생의 외국어 학습 능력 향상과 관련되는 교양 강좌수를 말하며 전공강좌는 제외됨.

4.1.3 국제화 관련 강좌 비율

- ▶ (국제화 관련 정규 강좌수/전체 정규강좌수)*100
- ※ 국제화 관련 강좌수는 국제관계, 국제경제, 외교, 국제정책, 지역학(미국학, 아시아, 이슬람 등), 외국 문화 등 국제적인 주제와 관련되는 강좌를 말하며 전공강좌는 제외됨.

4.1.4 한국학 강좌 비율

- ▶ (한국학 관련 정규 강좌수/전체 정규 강좌수)*100
- ※ 한국학 관련 강좌수는 한국의 미술, 사상, 역사, 경제, 사회 등을 주제로 다루는 정규 강좌 중에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를 의미함.

4.2 공동운영 학위 프로그램

평가기준

대학은 외국 및 한국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학습 결과의 국제적 통용성에 기여하는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4.2.1 복수학위¹⁹⁾ 학위취득자 비율

교육중심대학

- ▶ (학부 과정 복수학위 취득자수/전체 학부 재학생 수)*100

연구 중심 대학

- ▶ A+B

A=(학부 과정 복수학위 취득자수/전체 학부 재학생 수)*100

B=(일반대학원 과정 복수학위 취득자수/전체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100

4.2.2 공동학위 학위취득자 비율²⁰⁾

교육중심대학

- ▶ (학부 과정 공동학위 취득자수/전체 학부 재학생 수)*100

연구 중심 대학

- ▶ A+B

A=(학부 과정 공동학위 취득자수/전체 학부 재학생 수)*100

B=(일반대학원 과정 공동학위 취득자수/전체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100

4.3 비정규 학습 프로그램

평가기준

대학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비정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19) 외국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한 복수학위(Dual Degree)를 말함.

20) 외국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한 공동학위(Joint Degree)를 말함.

4.3.1 해외인턴십 참여 학생 비율

▶ (A+ B+ C)/전체 내국인 재학생 수*100

A=1개월 미만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수

B=6개월 미만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수

C=1년 미만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수

5. 인적구성원의 활동

5.1 학생

평가
기준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국제화를 통해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 교류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1.1 외국인 학생 비율

▶ (A+ B+ C)/전체 재학생 수*100

A= 학점 이전이 없는 3개월 이하의 단기 비학위 과정에 등록한 학생수

B= 한 학기 이상의 학점 이전이 있는 비학위 과정에 등록한 학생수

C= 정규 학위 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수

5.1.2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국인 학생 비율

▶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국인 학생수/전체 내국인 재학생 수*100

5.1.3 외국인 학생 국적별 다양성

▶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의 갯수

5.2 교수

평가기준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국제화 수준 제고를 위해 외국인 교수를 적극적으로 유치·활용 하여야 한다.

5.2.1 외국인 교원 비율

▶ (A+ B)

A=(외국인 전임 교원수/외국인 및 내국인 전임 교원수)*100

B=(외국인 비전임 교원수/외국인 및 내국인 비전임 교원수)*100

6. 연구

6.1 연구 성과 발표

평가기준

연구 성과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는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 성과는 해외 정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6.1.1 교수1인당 SCI 논문수

▶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전임교원의 총 논문수/전임교원 수

※ 최근의 대학 평가도구들은 해외 학술지 중 주로 SCI급 논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공계에 유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교수1인당 해외 학술지 논문수는 SCI급 논문수와 일반 해외 학술지 논문수의 합산으로 산출함.. SCI급은 SCI, SCIE(이공계), SSCI(사회과

학), A&HCI(인문)급 학술지가 해당되고, 일반 해외 학술지의 경우 SCI급을 제외한 외국학술지(단 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는 국내학술지에 포함됨)가 포함됨.

6.1.2 해외저널피인용지수

- ▶ 미국 톰슨 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구 ISI)의 논문피인용지수 데이터베이스 기준

6.1.3 교수1인당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회의 발표 건수

- ▶ 전임교원이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건수/전임교원수

6.2 연구 활동의 국제화

평가
기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외국 학자와의 공동 연구, 해외 연구비 수주, 각종 국제학술회의 주최 등 다각적인 연구 활동의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6.2.1 국제 공동 연구 실적

- ▶ 국제 공동 연구 갯수 및 총 연구비
- ※ 공동연구란 양국간 공동연구비가 투자되어 연구산출물이 산출되는 산업임. 단 세미나, 심포지움, 학술발표 등 행사성 사업은 제외.

6.2.2 해외에서 수주한 연구 건수 및 연구비 총액

- ▶ 해외에서 수주한 연구 건수 및 연구비 총액

6.2.3 교수 교류 실적

▶ A+B+C

A=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학내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수

B=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해외 대학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교수수(자비)

C=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해외 대학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교수수(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 교류 목적은 연구 또는 강의에 한정되며 방문, 학술회의 참석, 특강 등은 제외

※ 교류 근거: 조약, 법률, 교환협정, 자비(안식년)

〈표 IV-5〉 고등교육 국제화 항목별 평가 반영 비율안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항목별 비중 (중소규모 또는 교육중심)	항목별 비중 (대규모 또는 연구중심)
I. 목표, 전략 및 실행 계획	1-1 전략 수립 적절성	5%	4%
	1-2 실행계획의 체계성	5%	4%
II. 조직 · 예산	2-1 조직	10%	8%
	2-2 예산	5%	4%
III. 인프라	3-1 정보체제	4%	3%
	3-2 지원체제	16%	13%
	3-3 네트워크	5%	4%
IV. 학문프로그램	4-1 교육과정	15%	10%
	4-2 공동운영 학위 프로그램	10%	3%
	4-3 비정규 학습 프로그램	4%	2%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항목별 비중 (중소규모 또는 교육중심)	항목별 비중 (대규모 또는 연구중심)
V. 활동	5-1 학생	16%	13%
	5-2 교수	5%	4%
VI. 연구	6-1 연구 성과 발표	해당사항없음	20%
	6-2 연구 활동의 국제화		8%
합계		100%	100%

V.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 분석

이 장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반적인 국제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표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규모, 소재지, 설립 형태 등 대학 특성별로 지표값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는 국제화 전략·목표, 국제화 전담 조직·예산, 제반 여건의 차이가 국제화 현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본 실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201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에 응하지 않은 7개 대학을 제외한 194개의 대학이 최종적인 현황 분석에 포함되었다. 조사에 포함된 대학의 특성은 <표 V-1>과 같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사 대학의 약 44.33%는 대도시에, 55.67%는 시도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대학설립주체별로는 20.62%가 국공립 대학이었으며, 79.38%는 사립대학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학의 45.88%는 5,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었으며,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은 24.74%,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의 대학은 16.49%였으며, 20,000명 이상의 대학은 전체의 12.98%였다.

<표 V-1> 조사 대학 특성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소재지역	서울경기	69	35.57	35.57
	충청	35	18.04	53.61
	강원	9	4.64	58.25
	경상	48	24.74	82.99
	전라	33	17.01	100.00
	소계	194	100	
지역규모	대도시	86	44.33	44.33
	시도군	108	55.67	100.00
	소계	194	100.00	

대학 설립주체	국공립	40	20.62	20.62	20.62
	사립	154	79.38	79.38	100.00
	소계	194	100.00	100.00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9	45.88	45.88	45.88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48	24.74	24.74	70.62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32	16.49	16.49	87.11
	20000명 이상	25	12.89	12.89	100.00
	소계	194	100.00	100.00	

가. 목표 및 전략

대학의 국제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은 국제화 목표,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이다. <표 V-2>과 <표 V-3>는 각각 대학 특성별 국제화 발전전략 유무와 시기별 국제화 목표 유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대학 중, 국제화 발전전략을 수립 한 대학은 총 128개 대학으로,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66개 대학보다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65.98%의 대학이 국제화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특성에 따른 국제화 목표 수립 여부의 차이를 살펴 보면, 국공립/사립의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보다는 대학규모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약 46.07%, 5,000명 이상 ~ 10,000명 이하의 대학은 34개 대학은 약 68.75%,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대학에서는 약 90.63%가 국제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000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약 100%의 대학이 국제화 목표를 수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들의 단기 및 중장기 등 시기별 국제화 목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 대학 특성별 국제화를 위한 발전전략의 유무

		발전전략의 유무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20 (23.26)	66 (76.74)	86 (100.00)	.006
	시도군	46 (42.59)	62 (57.41)	108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10 (25.00)	30 (75.00)	40 (100.00)	.195
	사립	56 (36.36)	98 (63.64)	154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8 (53.93)	41 (46.07)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5 (31.25)	33 (68.75)	48 (100.00)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3 (9.38)	29 (90.63)	32 (100.00)	
	20000명 이상	0 (0.00)	25 (100.00)	25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한편, 국내 대학들은 교환학생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국제교류활성화, 해외 자매대학 및 관련 기관에서 학생 해외연수 및 실습실시,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교류프로그램 확대,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의 확대, 시계시민 양성화 프로그램, 세계화 정책 추진, 노벨상/필즈상 수상자 및 후보자 초빙프로그램, 국제적 학술연구 인프라 구축, 아시아 현장 밀착형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력양성, 우수학생 유치프로그램,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 집단 단계적 육성, 캠퍼스 국제화 실현, 원어민 회화 강좌 확대, 교수교류 프로그램 학과지원, 자체와 연계된 협력적 국제교류를 국제화의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표 V-3〉 국제화 목표 유무

		시기별 국제화 목표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28 (32.56)	58 (67.44)	86 (100.00)	.041
	시도군	51 (47.22)	57 (52.78)	108 (100.00)	
	Total	79 (40.72)	115 (59.28)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16 (40.00)	24 (60.00)	40 (100.00)	1.00
	사립	63 (40.91)	91 (59.09)	154 (100.00)	
	Total	79 (40.72)	115 (59.28)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56 (62.92)	33 (37.08)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4 (29.17)	34 (70.83)	48 (100.00)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7 (21.88)	25 (78.13)	32 (100.00)	
	20000명 이상	2 (8.00)	23 (92.00)	25 (100.00)	
	Total	79 (40.72)	115 (59.28)	194 (100.00)	

대학들이 제시한, 시기별 국제화 목표를 살펴보면 <표 V-4>와 같다. 1~3년을 기간으로 추진되는 단기 계획으로는 국제교류 담당부서의 재정비와 단일화, 자매 대학과의 교류확대,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이 있었으며,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는 국제화 역량 강화, 해외대학과의 교류 추진,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복수 학위제, 공동학위제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표 V-4〉 시기별 국제화 목표

단기 (1~3년)	중장기 (3년 이상)
- 국제교류 담당부서의 재정비와 단일화	- 국제화 역량 강화
- 자매대학과의 교류확대	- 국제분야 특성화
- 외국인 학생 유치	- 해외대학과의 교류 추진
- 외국어집중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 외국어 능력 함양
- 국제화 여건 마련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스트하우스 - 국제, 해외 동문회 결성 - 해외취업 확대 - 국제교류를 통한 대학의 위상정립을 위해 국제교류발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제, 공동학위제 추진 - 외국인 학생수 및 외국인 교원수 확대 - 교환학생 확대 - 지식과 기술의 세계수준화 - 아시아 시민사회 공동체 교류 - 유학생센터 설립 - 자매결연 대학 확대 - 해외 인턴쉽 확대 - 인프라확충 및 국제화 평가체계 구축 - 아시아권 대학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리더 강화 프로그램 개발및 운영 - 지역과 함께하는 국제화 - 해외 명문 100대 대학과 교류증진 - 해외 탐방 및 봉사단 운영 - 외국어 인증제 도입
--	---

나. 조직 · 예산

1) 조직

다음으로 국제화 목표를 수행을 위해 대학이 갖고 있는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체 대학중 국제화 전담 기구를 갖고 있는 대학은 137개 대학으로 약 70%에 해당하며, 약 30 %에 해당하는 57개 대학은 국제화 전담 기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전담기구의 유무 현황을 대학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규모나 대학설립유형에 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대학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5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약 49.44%,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약 79.17%의 대학이 국제화 전담 기구를 갖고 있었던 반면,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대학에서는 96.88%, 20,000명 이상의 대학은 100%의 대학이 국제화 전담 기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10,000명 이상의 규모 이상의 대학에서는 모든 대학이 국제화 전담기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는 대학 특성별 국제화 전담기구 유무를 보여 주고 있다.

〈표 V-5〉 대학 특성별 국제화 전담기구 유무

		전담기구의 설치 유무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21 (24.42)	65 (75.58)	86 (100.00)	.206
	시도군	36 (33.33)	72 (66.67)	108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11 (27.50)	29 (72.50)	40 (100.00)	.847
	사립	46 (29.87)	108 (70.13)	154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5 (50.56)	44 (49.44)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 (20.83)	38 (79.17)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1 (3.13)	31 (96.88)	32 (100.00)	
	20000명 이상	1 (4.00)	24 (96.00)	25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전체 대학의 국제화 조직의 형태를 살펴보면, 본부 내 계선 조직이 73개 대학(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속 기관이 44개 대학(32.1%), 총장직속 기구가 16개 대학(11.7%)로 많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제화 조직은 본부 내 계선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알 수 있다.

〈표 V-6〉 국제화 조직의 형태

	빈도	퍼센트
본부 내 계선 조직	73	53.3
총장직속 기구	16	11.7
부속기관	44	32.1
기타	2	1.5
Total	135	98.5

2) 예산

다음으로 대학에서 국제화와 관련된 예산을 집하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면, 약, 전체 194개 대학 중 146개의 대학이 국제화 예산을 보고하고 있어, 전체 대학의 약 75%에 이르는 대학이 국제화 관련예산을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와 관련된 예산을 할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대학 특성은 대학의 설립 유형과 대학규모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97.5%에 해당하는 대학이 국제화 관련 예산을 할당 및 집하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에서 이 비율은 69.48%로 낮아진다. 대학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000명 미만의 대학에서 국제화 관련예산을 활용하는 경우는 약 53.93%인데 반하여, 5,000이상의 규모를 가진 대학들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대학이 국제화 관련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은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하여 국가의 정책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소규모의 대학 중 상당수가 사립대학에 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V-7〉 국제화 관련 예산 유무

		국제화 관련 예산의 활용 유무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16 (18.60)	70 (81.40)	86 (100.00)	.094
	시도군	32 (29.63)	76 (70.37)	108 (100.00)	
	Total	48 (24.74)	146 (75.26)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1 (2.50)	39 (97.50)	40 (100.00)	.000
	사립	47 (30.52)	107 (69.48)	154 (100.00)	
	Total	48 (24.74)	146 (75.26)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1 (46.07)	48 (53.93)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4 (8.33)	44 (91.67)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2 (6.25)	30 (93.75)	32 (100.00)	
	20000명 이상	1 (4.00)	24 (96.00)	25 (100.00)	
	Total	48 (24.74)	146 (75.26)	194 (100.00)	

<표 V-8>는 대학의 총예산 및 국제화 관련 예산을 보여 주고 있다. 대학의 총 예산을 보면, 대학의 평균 예산은 9,639,310.38 만원 이었으며, 이중 평균적으로 175,066.92 만원을 국제화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대학 총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제화 관련 예상으로 할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화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 교류 담당 부서에 책정된 예산이 103,855.72 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타 항목이 31,840.16만원으로 많았지만,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조사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제화 관련 예산의 약 60 %가 국제 교류 담당 부서에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8〉 대학 총예산 및 국제화 관련 예산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제화 관련 예산	대학총예산	126	300	50908300	9639310.38	10090757.76
	국제 교류 담당 부서에 책정된 예산	126	0	4459452	103855.72	411274.75
	해외 파견 등 교수 교류에 책정된 예산	126	0	210000	16417.07	33612.57
	학교 차원의 국제회의, 학술 대회 주체 등 국제 행사 주체와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	126	0	756000	16410.32	71604.19
	직원의 해외 연수에 책정된 예산	126	0	111000	6543.65	13450.75
	기타	126	0	757301	31840.16	107020.11

다. 인프라

1) 정보 체제

대학의 국제화 활동을 이루어 질 수 있는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과 국제교류 담당부서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정보 체제가 갖추어진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체제가 갖추어진 정도는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규모나 대학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0명 미만의 대학의 경우 단지 28.09%의 대학만이 이러한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과 국제교류 담당부서를 갖고 있었던 데 반하여, 20,000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약 88%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과 국제교류 담당부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과 국제교류 담당부서

		모임과 국제교류 담당부서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36 (41.86)	50 (58.14)	86 (100.00)	.060
	시도군	61 (56.48)	47 (43.52)	108 (100.00)	
	Total	97 (50.00)	97 (50.00)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25 (62.50)	15 (37.50)	40 (100.00)	.109
	사립	72 (46.75)	82 (53.25)	154 (100.00)	
	Total	97 (50.00)	97 (50.00)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64 (71.91)	25 (28.09)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20 (41.67)	28 (58.33)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10 (31.25)	22 (68.75)	32 (100.00)	
	20000명 이상	3 (12.00)	22 (88.00)	25 (100.00)	
	Total	97 (50.00)	97 (50.00)	194 (100.00)	

2) 지원 체제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 중 약 36%의 대학이 외국인 교수 모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해당 모임을 가진 97개 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70개의 대학(72.16%)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는 이러한 예산 지원 여부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표 V-10〉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

		예산 지원 여부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44 (51.16)	42 (48.84)	86 (100.00)	.001
	시도군	80 (74.07)	28 (25.93)	108 (100.00)	
	Total	124 (63.92)	70 (36.08)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29 (72.50)	11 (27.50)	40 (100.00)	.268
	사립	95 (61.69)	59 (38.31)	154 (100.00)	
	Total	124 (63.92)	70 (36.08)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72 (80.90)	17 (19.10)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32 (66.67)	16 (33.33)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13 (40.63)	19 (59.38)	32 (100.00)	
	20000명 이상	7 (28.00)	18 (72.00)	25 (100.00)	
	Total	124 (63.92)	70 (36.08)	194 (100.00)	

한편, 이러한 예산지원의 규모를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평균적으로 1,177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예산지원액 현황은 〈표 V-11〉에 나타나 있다.

〈표 V-11〉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액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예산 지원액	194	0	65050	1177.01	6065.63

다음으로,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 모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외의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문화적응 프로그램으로 알아보았다.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네션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 중 74.74%였으며,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49.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각 대학은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에 대한 초기의 오리엔테이션은 활발히 실시하고 있지만, 좀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규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5,000명 미만의 정원을 가진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90% 안팎의 실시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0,000명 이상의 경우에만, 90%이상의 운영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V-12〉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유무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Total	유의 확률
지역 규모	대도시	17 (19.77)	69 (80.23)	86 (100.00)	.136
	시도군	32 (29.63)	76 (70.37)	108 (100.00)	
	Total	49 (25.26)	145 (74.74)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9 (22.50)	31 (77.50)	40 (100.00)	.838
	사립	40 (25.97)	114 (74.03)	154 (100.00)	
	Total	49 (25.26)	145 (74.74)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39 (43.82)	50 (56.18)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6 (12.50)	42 (87.50)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2 (6.25)	30 (93.75)	32 (100.00)	
	20000명 이상	2 (8.00)	23 (92.00)	25 (100.00)	
	Total	49 (25.26)	145 (74.74)	194 (100.00)	

〈표 V-13〉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 대상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유무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36 (41.86)	50 (58.14)	86 (100.00)	.043
	시도군	62 (57.41)	46 (42.59)	108 (100.00)	
	Total	98 (50.52)	96 (49.48)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17 (42.50)	23 (57.50)	40 (100.00)	.289
	사립	81 (52.60)	73 (47.40)	154 (100.00)	
	Total	98 (50.52)	96 (49.48)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70 (78.65)	19 (21.35)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20 (41.67)	28 (58.33)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7 (21.88)	25 (78.13)	32 (100.00)	
	20000명 이상	1 (4.00)	24 (96.00)	25 (100.00)	
	Total	98 (50.52)	96 (49.48)	194 (100.00)	

한편, 각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한국문화탐방, 문화체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국제교류처나 국제교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유학생활의 적응을 돋는 프로그램(MT 등)이 국제학생부, 기획처, 언어교육원, 국제대학원, 총학생회실 등에서 이루어져 있다.

3) 네트워크

국제 교류관련 협의체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대학 중 약 56.7%의 대학이 국제 교류관련 협의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협의체의 가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학의 설립유형과 규모였다. 특히 대학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000명 미만의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에서 약 90% 안팎의 가입률을 보이며, 특히

20,000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96.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표 V-14〉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 가입 여부

		가입 여부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28 (32.56)	58 (67.44)	86 (100.00)	.009
	시도군	56 (51.85)	52 (48.15)	108 (100.00)	
	Total	84 (43.30)	110 (56.70)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15 (37.50)	25 (62.50)	40 (100.00)	.475
	사립	69 (44.81)	85 (55.19)	154 (100.00)	
	Total	84 (43.30)	110 (56.70)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71 (79.78)	18 (20.22)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8 (16.67)	40 (83.33)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4 (12.50)	28 (87.50)	32 (100.00)	
	20000명 이상	1 (4.00)	24 (96.00)	25 (100.00)	
	Total	84 (43.30)	110 (56.70)	194 (100.00)	

한편,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은 평균적으로 1.47개의 협의체에 가입하고 있어, 협의체의 가입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대학특성별 이러한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군(.91개)보다는 대도시(2.19)에 위치한 대학에서, 국립대학(1.18개)보다는 사립대학(1.55개)에서 가입 숫자가 더 많으며, 특히 대학 규모에서는 5,000명 미만에서는 .91개인 것에 반하여, 20,000명의 대학에서는 4.00개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대학특성별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 가입수

		프로그램 갯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대학		194	0	13	1.47	2.21
소재지	대도시	86	0	13	2.19	2.79
	시도군	108	0	9	0.91	1.37
설립주체	국립대학	40	0	3	1.18	1.06
	사립대학	154	0	13	1.55	2.42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9	0	9	0.48	1.42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48	0	3	1.42	0.85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48	0	3	1.42	0.85
	20000명 이상	25	1	12	4.00	3.07

194개 대학 중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 가입한 현황은 〈표 V-16〉과 같다. 국제교류 관련 협회 30개 중 ‘KAIE’에 가입한 대학이 100개로 가장 많았고, 가입 수는 2000년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그러한 국제교류 관련 협회에의 가입 수는 계속 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가 국제화 조류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표 V-16〉 국제교류 관련 협회 및 협의체 가입 현황

협의체 명	계	'07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96	'95	'94	'90	'85	연도 없음
KAIE	100	5	4	6	8	10	5	6	11	6	8	1						30
KAFSA	53	5	2	2	5	2	4	4	7	5	3							14
NAFSA	20	5		2	1	1	1		3	1	1				1			4
EAIE	10	2	1						1	1	1							4
ACUCA	2															1	1	
IFCU	2											1						1
ASEACCU	3											1		1				1
EPU	1	1																
NAFDA	1																	1
CCIS	1										1							
ISEP	1									1								
LOEWI	1												1					
SAP	2		2															
AUAP	1																	1
UMAP	1						1											
ICEF	2				1						1							
국제교육자협회	2					1					1							
환태평양총장 포럼	1		1															
국제교육진흥원	1												1					
세계해양대학연합회	1									1								
아시아태평양대학간교류협력체	1									1								
국제교류협회	3						2											1
Bolashak	1	1																
QS APPLE	2		1	1														
APAIE	4		3	1														
CIEE	1														1			
AJUC EAO	1																	1
UNINET	2																	2
IAU	1																	1
AIESEC	1																	1
합계	223	19	14	12	15	14	13	10	24	15	14	2	2	2	1	1	1	64

라. 학문프로그램

1) 교과과정

학문프로그램은 각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연수프로그램과 영어전용 강좌, 마지막으로 외국어나 국제 학습 관련 과목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우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대학 중 실시하고 있

는 대학과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지역규모나 대학설립주체에 따라서 대학을 구분해 보았을 때에도 차이가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을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여 살펴보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우선 5,000명 이하의 대학에서는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22.47%에 그치는데 반해, 5,000명 이상 ~ 10,000명 이하에서는 64.58%로 증가하였으며, 20,000이상의 대학에서는 그 비율이 96.0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학규모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은 <표 V-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7〉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유무

		프로그램 유무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32 (37.21)	54 (62.79)	86 (100.00)	.006
	시도군	62 (57.41)	46 (42.59)	108 (100.00)	
	Total	94 (48.45)	100 (51.55)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19 (47.50)	21 (52.50)	40 (100.00)	1.000
	사립	75 (48.70)	79 (51.30)	154 (100.00)	
	Total	94 (48.45)	100 (51.55)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69 (77.53)	20 (22.47)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7 (35.42)	31 (64.58)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7 (21.88)	25 (78.13)	32 (100.00)	
	20000명 이상	1 (4.00)	24 (96.00)	25 (100.00)	
	Total	94 (48.45)	100 (51.55)	194 (100.00)	

한편,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석한 외국인 수를 전체 대학을 중심으로 알아보면,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41명이 외국인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로그램에 등록한 외국인을 대학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규모, 설립유형, 대학규모의 모든 요소에 의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도시(45.35명)에 비하여 대도시(263.13명), 국립대학(96.28)에 비하여 사립대학(153.74)에서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또한 대학규모에 따라서 보면, 이러한 차이가 현격이 켜져서, 5,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단지 10.12 명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데 비하여, 20,000명 이상의 프로그램에서는 720.04명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한국어 프로그램 등록자수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등록자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대학		194	0	4117	141.89	451.90
지역규모	대도시	86	0	4117	263.13	650.28
	시도군	108	0	697	45.35	105.82
설립주체	국립대학	40	0	995	96.28	216.49
	사립대학	154	0	4117	153.74	494.94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9	0	143	10.12	27.93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48	0	697	48.23	107.98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32	0	1051	197.19	271.90
	20000명 이상	25	0	4117	720.04	1042.50

마지막으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의 국적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계 학생이 124.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북미(8.27명), 유럽(4.75)명 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9〉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등록자 국적분포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아시아	194	0	3358	124.86	378.83
북미	194	0	703	8.27	57.01
중남미	194	0	75	0.96	6.16
아프리카	194	0	15	0.54	2.29
유럽	194	0	269	4.75	23.44
오세아니아	194	0	34	0.44	2.89
기타	194	0	40	0.76	4.04

□ 외국어 전용강좌

외국어 전용강좌의 현황은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학부과정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 전용강좌를 갖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각각 50%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규모나 대학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았다. 5,000명 미만의 대학의 경우 단지 24.72%만이 외국어 전용강좌를 개설한 데 비하여, 그 수치는 5,000이상의 대학에서 급격히 증가, 20,000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97%의 대학이 외국어 전용강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학부)

		유무(학부)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31 (36.05)	55 (63.95)	86 (100.00)	.001
	시도군	66 (61.11)	42 (38.89)	108 (100.00)	
	Total	97 (50.00)	97 (50.00)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14 (35.00)	26 (65.00)	40 (100.00)	.050
	사립	83 (53.90)	71 (46.10)	154 (100.00)	
	Total	97 (50.00)	97 (50.00)	194 (100.00)	
	5000명 미만	67 (75.28)	22 (24.72)	89 (100.00)	
대학 규모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23 (47.92)	25 (52.08)	48 (100.00)	.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5 (15.63)	27 (84.38)	32 (100.00)	
	20000명 이상	2 (8.00)	23 (92.00)	25 (100.00)	
	Total	97 (50.00)	97 (50.00)	194 (100.00)	

한편, 학부과정의 외국어 전용강좌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평균적으로 1799.82개의 전체 강좌 중, 46.79개의 외국어 전용강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3.3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1〉 외국어 전용 강좌 현황(학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강좌수	194	0.00	8363.00	1799.82	2350.41
외국어 전용강좌수	194	0.00	692.00	46.79	117.83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	103	0.00	61.62	3.37	7.39
외국어 전용 강좌 참여 내국인 교원수(명)	194	0.00	584.00	21.35	66.14

다음으로, 대학원 과정의 외국어 전용강좌를 살펴보면, 대학원에서는 외국어 강좌를 갖지 않은 대학(67.53%)이 외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32.47%)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학원 과정에서의 외국어 강좌 역시 대학규모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10,000명 미만의 대학과 10,000명 이상의 대학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대학원)

		유무(대학원)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46 (53.49)	40 (46.51)	86 (100.00)	.000
	시도군	85 (78.70)	23 (21.30)	108 (100.00)	
	Total	131 (67.53)	63 (32.47)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25 (62.50)	15 (37.50)	40 (100.00)	.454
	사립	106 (68.83)	48 (31.17)	154 (100.00)	
	Total	131 (67.53)	63 (32.47)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74 (83.15)	15 (16.85)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38 (79.17)	10 (20.83)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13 (40.63)	19 (59.38)	32 (100.00)	
	20000명 이상	6 (24.00)	19 (76.00)	25 (100.00)	
	Total	131 (67.53)	63 (32.47)	194 (100.00)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원에는 평균적으로 330,51개의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그중 25.34개의 과목이 외국어 전용 강좌이다. 외국어 전용강좌의 비율은 학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 3.85%이다.

〈표 V-23〉 외국어 전용 강좌 현황(대학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강좌수	194	0.00	4095.00	330.51	664.87
외국어 전용강좌수	194	0.00	696.00	25.34	82.41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	194	0.00	100.00	3.85	12.05
외국어전용 강좌 참여 내국인 교원수(명)	194	0.00	648.00	19.82	71.05

□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면, 학부과정의 경우, 평균적으로 72.16%의 대학이 관련 과목을 갖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은 지역규모, 대학설립유형, 대학규모에 의해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국제화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대학규모에 의한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은 공동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대학규모에 의한 차이의 폭이 작아, 5,000명 이하의 대학에서도 56.18%의 대학이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 유무(학부)

		교육과정 유무(학부)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15 (17.44)	71 (82.56)	86 (100.00)	.006
	시도군	39 (36.11)	69 (63.89)	108 (100.00)	
	Total	54 (27.84)	140 (72.16)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6 (15.00)	34 (85.00)	40 (100.00)	.048
	사립	48 (31.17)	106 (68.83)	154 (100.00)	
	Total	54 (27.84)	140 (72.16)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39 (43.82)	50 (56.18)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9 (18.75)	39 (81.25)	48 (100.00)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4 (12.50)	28 (87.50)	32 (100.00)	
	20000명 이상	2 (8.00)	23 (92.00)	25 (100.00)	
	Total	54 (27.84)	140 (72.16)	194 (100.00)	

한편, 학부과정의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강좌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대학은 평균적으로 외국어 학습 강좌는 149.92개 개설하였으며, 국제화 학습 강좌는 43.08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 평균 강좌수의 1799.82의 8.32%와 2.39%가 외국어 학습 강좌와 국제화 학습 강좌에 해당된다.

〈표 V-25〉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강좌 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외국어 학습	194	0.00	1386.00	142.92	207.40
국제화 관련	194	0.00	1100.00	43.08	111.56

대학원 과정의 경우,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전체 대학의 32.47%로 학부과정에 비해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과정이 학부과정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결과로 추정된다. 대학원 과정에서의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소도시 소재 대학(19.44%)보다 대도시 소재 대학(48.84), 5,000명 미만의 대학(11.24%)보다 20,000 이상의 대학(72.00%)에 더 많았지만, 특이 한 것은 학부과정과 달리, 사립대학(29.22%)에서보다 국공립대학(45.00%)에서 더 많은 대학이 해당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 유무(대학원)

		교육과정 유무(대학원)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44 (51.16)	42 (48.84)	86 (100.00)	.000
	시도군	87 (80.56)	21 (19.44)	108 (100.00)	
	Total	131 (67.53)	63 (32.47)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22 (55.00)	18 (45.00)	40 (100.00)	.087
	사립	109 (70.78)	45 (29.22)	154 (100.00)	
	Total	131 (67.53)	63 (32.47)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79 (88.76)	10 (11.24)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31 (64.58)	17 (35.42)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14 (43.75)	18 (56.25)	32 (100.00)	
	20000명 이상	7 (28.00)	18 (72.00)	25 (100.00)	
	Total	131 (67.53)	63 (32.47)	194 (100.00)	

대학원 과정의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는 평균적으로 4.73개의 외국어 학습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은 9.39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원의 평균 개설 과목수인 330.51개의 1.43%와 2.84%에 해당된다. 대학원의 경우 영어 학습강좌보다 국제화 학습 강좌의 수가 더 많다는 것으로,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영어 학습강좌가 학부과정에서 더 많이 개설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V-27〉 국제화 및 외국어 학습관련 프로그램 현황(대학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외국어 학습	194	0.00	376.00	4.73	32.28
국제화 관련	194	0.00	282.00	9.39	32.01

나. 공동운영 프로그램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대학은 약 13.40%로, 수치가 매우 작다. 공동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시도군 소재 대학(5.56%)보다 대도시 소재 대학(23.26%), 5,000명 미만의 대학(3.37%)보다 5,000명 이상의 대학에서 더 많아지는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표 V-28〉 공동운영 교육과정 유무

		교육과정 공동운영 여부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66 (76.74)	20 (23.26)	86 (100.00)	.000
	시도군	102 (94.44)	6 (5.56)	108 (100.00)	
	Total	168 (86.60)	26 (13.40)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36 (90.00)	4 (10.00)	40 (100.00)	.608
	사립	132 (85.71)	22 (14.29)	154 (100.00)	
	Total	168 (86.60)	26 (13.40)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86 (96.63)	3 (3.37)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41 (85.42)	7 (14.58)	48 (100.00)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22 (68.75)	10 (31.25)	32 (100.00)	
	20000명 이상	19 (76.00)	6 (24.00)	25 (100.00)	
	Total	168 (86.60)	26 (13.40)	194 (100.00)	

공동운영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면, 개설 강좌수가 학사의 경우 최대 114개이지만, 평균적으로는 1.12개로 매우 적으며, 석사의 경우에는 최대 22개이며 평균은 .024개, 박사과정은 최대 6개, 평균은 .07개로, 전 과정에 걸쳐 공동운영 프로그램의 수가 매우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9>와 <표 V-30>은 공동운영 프로그램의 전체 현황과 가 대학의 세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V-29〉 공동운영 프로그램 전체 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사	협약 설치 강좌수	194	0	114	1.39	10.29
	개설 강좌수	194	0	114	1.12	9.06
	참여 학생수(명)	194	0	257	2.74	20.53
	외국인 교수수(명)	194	0	25	0.31	2.22
석사	협약 설치 강좌수	194	0	22	0.26	2.08
	개설 강좌수	194	0	22	0.24	1.89
	참여 학생수(명)	194	0	29	0.30	2.45
	외국인 교수수(명)	194	0	6.00	0.07	0.58
박사	협약 설치 강좌수	194	0	9	0.05	0.65
	개설 강좌수	194	0	3	0.02	0.22
	참여 학생수(명)	194	0	2	0.01	0.14
	외국인 교수수(명)	194	0	0	0.00	0.00

〈표 V-30〉 각 대학의 공동운영 교육과정 현황

	학교명	국가명	설치 강좌수	개설 강좌수	학위종류	학위구분			외국인 교수	학생수
						학사	석사	박사		
국공립	서울산업	영국	34	34	공동				1	257
	인천	미국	10	5	복수					1
	충남	미국			공동	-	-	-	-	-
	제주	중국, 대만, 일본, 칠레			복수	o	o	o		
계	4									
사립	한국정보통신	미국	11	11	복수				12	61
	선문	미국, 중국			복수					6
	세종	미국			공동				3	25
	신라	미국, 영국, 중국								1
	을지	캐나다	10	10	공동				1	26
	우송	일본, 중국, 미국	14	14	복수	o			13	90
	상명	미국, 중국							25	
	동서	독일	22	22	복수		o		5	12
	동덕여자	미기재		미기재	-	-	-	-	-	-
	연세	미국, 일본	13	5	공동		o		4	13
	이화여자	미국			공동				3	
	서강	중국, 독일, 미국, 영국	미기재	미기재	복수/공동	o	o			2
	대구가톨릭	미국, 중국	1			o	o		1	60
	한남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80	41	복수	o				
	고려	미국	13	12	공동/복수		o		12	29
	경남	대만			복수	o				2
	대구한의	중국			복수	o				
	전주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	-	-	-	-	-
	중앙	미국	9	3	복수		o	o		2
	강남	독일			복수	o				
	한국외국어	코스타리카			공동		o			
	경희	러시아, 영국, 프랑스		7	복수	o	o		6	61
계	22									
합계	26		217	164					86	648

다. 해외 분교 등 학교 설립 실적 및 계획

해외 분교의 설립실적 혹은 설립계획이 있는 대학은 194개 대학 중 5개 대학(동서대학교, 홍익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고신대학교, 위덕대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대학 중 세부사항까지 제시한 것은 2개 대학(동서대학교, 광주여자

대학교)만이었으며, 나머지 3개 대학 중 1개 대학교(고신대학교)는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만, 2개 대학(홍익대학교, 위덕대학교)는 해당사항과 설치(예정)국가명만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해외분교(혹은 학교)의 세부적인 내용파악까지는 하기 어려우나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해외분교 내지 학교를 가진(혹은 가질) 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이며, 설립 대상국은 홍익대학교(미국)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모두가 아시아권에 집중되어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해외분교 혹은 학교 설립추진 시 양국 간의 학제 차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V-31〉 해외 분교 등 학교 설립 실적 및 계획

학교명	설치(예정) 국가명	설치(예정) 년도	과정	학부 (과)수	학생 수	운영 방식	설립추진시 장애요인	설립 활성화방안
동서	중국	2002	석사	1	132	-	-	-
홍익대	미국	-	-	-	-	-	-	-
광주여자	중국	2008	학사	5	120	학제	○ 교수파견 ○ 교육과정 반영	
	중국	2008	학사	1	20			
고신	-	-	-	-	-	-	-	-
위덕	네팔	-	-	-	-	-	-	-

라. 활동

1) 학생

학생의 국제화 관련 활동은 외국인 학생 현황, 학점 교류 프로그램, 복수 및 공동 학위 취득, 해외 인턴십에 참가한 국내외 학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 외국인 학생 현황

학생의 국제화 관련 활동으로 첫 번째로 살펴 본 것은 각 대학의 외국인 학생 현황이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외국인 학생이 존재하는 학교는 155개교로 전체의 79.90%에 해당한다. <표 V-32>에서 보여지듯이, 지역규모나 대학설립주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다

만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외국인 학생의 유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도 다른 지표와 달리 매우 작아서 5,0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65.17%에 외국인 학생이 존재하고 있으며, 20,000명 이상의 모든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32〉 외국인 학생 유무

		외국인 학생 유무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13	73	86	.150
		15.12	84.88	100.00	
	시도군	26	82	108	
		24.07	75.93	100.00	
	Total	39	155	194	
		20.10	79.90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5	35	40	.267
		12.50	87.50	100.00	
	사립	34	120	154	
		22.08	77.92	100.00	
	Total	39	155	194	
		20.10	79.90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31	58	89	.000
		34.83	65.17	10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5	43	48	
		10.42	89.58	100.00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3	29	32	
		9.38	90.63	100.00	
	20000명 이상	0	25	25	
		0.00	100.00	100.00	
	Total	39	155	194	
		20.10	79.90	100.00	

〈표 V-33〉는 각 대학에 존재하는 외국인 학생의 세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대학의 경우, 가장 많은 경우 학부과정에 1134명, 대학원 과정에는 613.00명의 외국인 학생이었으며, 평균적으로 학부 과정에 86.03명, 대학원 과정에는 41.87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었다. 그 이외에도, 학점 이전이 있는 교환학생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34.97명의 외국인 학생이 존재했다.

〈표 V-33〉 외국인 학생의 세부 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현황	학부 학생수	193	0.00	1134.00	86.03	152.87
	대학원 학생수	193	0.00	613.00	41.87	86.51
	총 대상 국가수	193	0.00	61.00	6.59	10.05
비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현황	학점 이전 교환학생수	193	0.00	285.00	16.46	38.72
	총 대상국가수	193	0.00	22.00	2.27	4.07
	총 대상국가수	193	0.00	165.00	6.04	18.70
	총 대상 대학수	193	0.00	663.00	5.55	50.27
기타프로그램 참여	학점 이전이 있는 교환학생수	194	0.00	3415.00	34.97	257.74

□ 국내 학생의 학점교류 프로그램 참가

국내 학생의 학점교류 프로그램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 중 63.40%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규모나 대학 설립유형에서 보다는 대학규모에 의해서 더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5,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34.83%의 대학에서만 학생들이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반면,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79.17%, 10,000 이상 ~ 20,000명 미만에서는 93.75%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00명 이상 대학의 96.00%에서 학생들이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해, 사실상 20,000명 이상 규모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점교류프로그램에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4〉 학점 교류 국내 학생 유무

		학점 교류 국내 학생 유무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20 (23.26)	66 (76.74)	86 (100.00)	.001
	시도군	51 (47.22)	57 (52.78)	108 (100.00)	
	Total	71 (36.60)	123 (63.40)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11 (27.50)	29 (72.50)	40 (100.00)	.201
	사립	60 (38.96)	94 (61.04)	154 (100.00)	
	Total	71 (36.60)	123 (63.40)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58 (65.17)	31 (34.83)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 (20.83)	38 (79.17)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2 (6.25)	30 (93.75)	32 (100.00)	
	20000명 이상	1 (4.00)	24 (96.00)	25 (100.00)	
	Total	71 (36.60)	123 (63.40)	194 (100.00)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학생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504명, 평균적으로는 각 대학에서 14.23명의 학생이 학점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과정의 경우에는 최대 1132명의 학생이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62.5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다. 학부과정의 학생들은 최대 36개 국가의 198개 대학에서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평균적으로는 3개 국가의 10개 대학에서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석사과정의 경우, 교류학생수는 최대 3012명이었지만, 평균적으로는 16.4명의 학생이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참여 국가와 대학은 평균적으로 .15개 국가, .30개의 대학이었다. 마지막으로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0명의 학생이 .13개 국가의 .29개 대학에서 교환학생 수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V-35〉 학점교류 프로그램 참여 국내학생 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비학위 과정	교류학생수	194	0.00	504.00	14.23	62.41
	총 대상 국가수	194	0.00	23.00	0.87	3.20
	총 대상 대학수	194	0.00	75.00	2.28	8.65
학사과정	교류학생수	194	0.00	1132.00	62.50	165.40
	총 대상 국가수	194	0.00	36.00	3.02	5.43
	총 대상 대학수	194	0.00	198.00	10.09	26.59
석사과정	교류학생수	194	0.00	3012.00	16.04	216.25
	총 대상 국가수	194	0.00	17.00	0.15	1.28
	총 대상 대학수	194	0.00	44.00	0.30	3.19
박사과정	교류학생수	194	0	59	0.60	5.73
	총 대상 국가수	194	0	17	0.13	1.27
	총 대상 대학수	194	0	44	0.29	3.21

□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취득현황

복수 학위를 취득한 국내 학생과 외국 학생이 존재하는 대학은 각각 전체의 18.04%와 9.79%로 매우 작은 숫자였다.

〈표 V-36〉 복수학위 취득현황

	취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국내 학생	159	35
	81.96	18.04
외국 학생	175	19
	90.21	9.79

복수 학위를 취득한 국내 학생과 외국 학생의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각 학교에서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국내학생은 최대 56명이었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균 수치는 1.10명으로 나타났으며, 외국학생으로서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최대 203명으로 많았지만, 평균 수치는 1.91명이었다. 석사, 박사 학위의 경우에는 국내 학생과 외국학생 모두에서 4명 이하의 매우 작은 수치로 조

사되었다.

〈표 V-37〉 복수학위 취득 국내외 학생 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내 학생	학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56	1.10	5.41
		총 국가수(개)	194	0	4	0.16	0.51
		총 대학수(개)	194	0	4	0.19	0.61
	硕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3	0.04	0.32
		총 국가수(개)	194	0	2	0.04	0.21
		총 대학수(개)	194	0	2	0.04	0.21
	박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0	0.00	0.00
		총 국가수(개)	194	0	0	0.00	0.00
		총 대학수(개)	194	0	0	0.00	0.00
외국 학생	학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203	1.91	15.39
		총 국가수(개)	194	0	2	0.08	0.29
		총 대학수(개)	194	0	3	0.10	0.39
	硕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3	0.03	0.30
		총 국가수(개)	194	0	2	0.04	0.24
		총 대학수(개)	194	0	2	0.04	0.24
	박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0	0.00	0.00
		총 국가수(개)	194	0	0	0.00	0.00
		총 대학수(개)	194	0	0	0.00	0.00

다음으로, 외국에서 공동학위를 취득한 국내학생이 존재하는 대학의 전체의 3.09%였으며, 국내에서 공동학위를 취득한 외국학생이 존재하는 대학은 .52%로 매우 낮은 수치였다.

〈표 V-38〉 공동학위 취득현황

	취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국내 학생	188	6
	96.91	3.09
외국 학생	193	1
	99.48	0.52

국내외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학생의 경우는 최대 25명, 평균 .13명이었으며, 외국 학생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외의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도 국내 학생의 경우와 외국학생

의 경우에서 모두, 1명이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표 V-39〉 공동학위 취득 국내외 학생 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내 학생	학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25	0.13	1.79
		총 국가수(개)	194	0	1	0.01	0.10
		총 대학수(개)	194	0	1	0.01	0.10
	석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1	0.01	0.07
		총 국가수(개)	194	0	1	0.01	0.10
		총 대학수(개)	194	0	1	0.01	0.10
	박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1	0.01	0.07
		총 국가수(개)	194	0	1	0.01	0.07
		총 대학수(개)	194	0	1	0.01	0.07
외국 학생	학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0	0.00	0.00
		총 국가수(개)	194	0	1	0.01	0.07
		총 대학수(개)	194	0	1	0.01	0.07
	석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0	0.00	0.00
		총 국가수(개)	194	0	0	0.00	0.00
		총 대학수(개)	194	0	0	0.00	0.00
	박사	학위취득 학생 수(명)	194	0	0	0.00	0.00
		총 국가수(개)	194	0	0	0.00	0.00
		총 대학수(개)	194	0	0	0.00	0.00

□ 해외 인턴십

해외 인턴십의 경우 전체 대학의 33.51%에서 학생들이 인턴십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인턴십은 시도군(16.67%)에서 보다는 대도시(54.65%)의 대학에서 더 많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5000명 미만(12.36)에서 보다는 20,000명 이상(84.00%)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인턴십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공립과 사립의 대학설립유형에 따라서는 해외 인턴십 참여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V-40〉 해외 인턴십 유무

		해외 인턴십 유무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39 (45.35)	47 (54.65)	86 (100.00)	.000
	시도군	90 (83.33)	18 (16.67)	108 (100.00)	
	Total	129 (66.49)	65 (33.51)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27 (67.50)	13 (32.50)	40 (100.00)	1.000
	사립	102 (66.23)	52 (33.77)	154 (100.00)	
	Total	129 (66.49)	65 (33.51)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78 (87.64)	11 (12.36)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35 (72.92)	13 (27.08)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12 (37.50)	20 (62.50)	32 (100.00)	
	20000명 이상	4 (16.00)	21 (84.00)	25 (100.00)	
	Total	129 (66.49)	65 (33.51)	194 (100.00)	

<표 V-41>의 해외 인턴십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최대 6개의 인턴십 프로그램, 113,500만원의 지원 예산, 525명의 참여 학생, 30개의 파견국을 갖고 있었으나, 평균적으로는 48개의 프로그램에 3,207.57만원의 지원 예산, 13명의 파견인원, 1.42개의 파견국가를 갖고 있었다.

〈표 V-41〉 해외 인턴십 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프로그램 수	194	0.00	6.00	0.48	0.87
지원예산	194	0.00	113500.00	3207.57	11881.82
파견인원	194	0.00	525.00	13.05	48.55
파견국가수	194	0.00	30.00	1.42	3.89

2) 교수

국제화 관련 교수 활동은 외국인 교원의 현황과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교수의 현황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외국인 교원 유무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 중 외국인 교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대학은 약 25.26%에 해당하며, 나머지 74.74%의 대학에는 외국인 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외국인 교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역규모, 대학설립유형, 대학규모 등이 대학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군(63.59%) 보다는 대도시(88.37%)에서, 사립(69.48%) 보다는 국공립(95.00%)에서, 5,000명 미만(59.55%)보다는 20,000명 이상의 대학(96.00%)에서 외국인 교원이 존재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표 V-42〉 외국인 교원 유무

		대학별 외국인 교원 비율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10 (11.63)	76 (88.37)	86 (100.00)	.000
	시도군	39 (36.11)	69 (63.89)	108 (100.00)	
	Total	49 (25.26)	145 (74.74)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2 (5.00)	38 (95.00)	40 (100.00)	.000
	사립	47 (30.52)	107 (69.48)	154 (100.00)	
	Total	49 (25.26)	145 (74.74)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36 (40.45)	53 (59.55)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8 (16.67)	40 (83.33)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4 (12.50)	28 (87.50)	32 (100.00)	
	20000명 이상	1 (4.00)	24 (96.00)	25 (100.00)	
	Total	49 (25.26)	145 (74.74)	194 (100.00)	

한편, 외국인 교원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은 평균적으로 전임교원의 경우 9.55명의 외국이 존재하며, 이는 대학 전임교원의 3.54%에 해당된다. 겸임교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2명이 존재하며, 이는 전체의 .58%에 해당된다. 특이한 것은 초빙교원이나 시간강사 및 기타 교원의 경우에는 100% 외국인 교원인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는 외국어 학습관련 원어민 강사들이나 기타 초빙외국인 교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및 기타의 모든 교원을 포함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평균적으로 18.08명의 외국인 교원이 존재하며, 이는 평균적으로 대학 교원의 2.7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V-43〉 외국인 교원 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임교원	내국인 교원수	189	0.00	1742	231.86	302.61
	외국인 교원수	189	0.00	149	9.55	19.52
	외국인 교원비율	189	0.00	58.33	3.54	7.26
겸임교원	내국인 교원수	189	0.00	221	36.62	50.25
	외국인 교원수	189	0.00	13	0.32	1.29
	외국인 교원비율	189	0.00	33.33	0.58	2.75
초빙교원	내국인 교원수	189	0.00	639	16.10	51.76
	외국인 교원수	189	0.00	75	3.91	9.56
	외국인 교원비율	189	0.00	100.00	14.64	28.84
시간강사 및 기타	내국인 교원수	189	0.00	2530	281.69	407.44
	외국인 교원수	189	0.00	68	4.30	9.30
	외국인 교원비율	189	0.00	100.00	3.64	14.76
계	내국인 교원수	189	0.00	3421	566.27	718.00
	외국인 교원수	189	0.00	174	18.08	29.74
	외국인 교원비율	189	0.00	48.57	2.74	4.80

□ 교수 교류 프로그램 참가 교수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수의 경우, 우리나라 교수와 외국인 교수의 두 경우로 조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교수의 경우를 보면, 전체 우리나라 대학 중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나라 교수를 가진 대학은 전체의 40.21%로 비교적 낮았다.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한 교수를 가진 대학의 비율은 대학 소재 규모에서는 시도군(27.78%), 대학설립 유형에서는 사립대학(35.71%)에서 낮았으며, 대학규모에서는 특히 5,000명 미만의 대학(21.35%)로 특히 낮았다.

〈표 V-44〉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나라 교수 유무

		우리나라 교수 유무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38 (44.19)	48 (55.81)	86 (100.00)	.000
	시도군	78 (72.22)	30 (27.78)	108 (100.00)	
	Total	116 (59.79)	78 (40.21)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17 (42.50)	23 (57.50)	40 (100.00)	.018
	사립	99 (64.29)	55 (35.71)	154 (100.00)	
	Total	116 (59.79)	78 (40.21)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70 (78.65)	19 (21.35)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28 (58.33)	20 (41.67)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13 (40.63)	19 (59.38)	32 (100.00)	
	20000명 이상	5 (20.00)	20 (80.00)	25 (100.00)	
	Total	116 (59.79)	78 (40.21)	194 (100.00)	

각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가 강의를 목적으로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한 값은 최대 31.00건이었지만, 평균적으로는 .46으로 매우 낮았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교수교류프로그램 참여 건수가 최대 64건이며, 평균적으로는 3.74건에 해당한다.

〈표 V-45〉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나라 교수 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강의	전수	194	0.00	31.00	0.46	2.60
	비용(한국)	194	0.00	250000.00	1460.65	18028.23
	비용(상대국)	194	0.00	12600.00	122.68	1037.50
연구	전수	194	0.00	64.00	3.74	8.65
	비용(한국)	194	0.00	596062.00	8968.02	50124.94
	비용(상대국)	194	0.00	83000.00	571.77	6056.31

한편,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대학 교수가 존재하는 대학은 총 57개 대학으로, 전체의 29.38%로 국내 대학교수보다 더 낮은 수치였다. 외국대학 교수가 존재하는 대학의 비율은 지역규모나 대학설립주체 요인에 의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학규모에 의해서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10.11%의 대학에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대학교수가 존재하는 반면, 5,000명 이상 ~ 10,000명 이하에는 29.17%, 10,000명 이상 ~ 20,000 명 미만에는 50.00%, 마지막으로 20,000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72.00%의 대학에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대학교수가 존재하였다.

〈표 V-46〉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대학 교수 현황

		외국 대학 교수 유무		Total	유의 확률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지역 규모	대도시	53 (61.63)	33 (38.37)	86 (100.00)	.017
	시도군	84 (77.78)	24 (22.22)	108 (100.00)	
	Total	137 (70.62)	57 (29.38)	194 (100.00)	
대학 설립 주체	국공립	29 (72.50)	11 (27.50)	40 (100.00)	.847
	사립	108 (70.13)	46 (29.87)	154 (100.00)	
	Total	137 (70.62)	57 (29.38)	194 (100.0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80 (89.89)	9 (10.11)	89 (100.00)	.000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34 (70.83)	14 (29.17)	48 (100.00)	
	10000이상 ~ 20000명 미만	16 (50.00)	16 (50.00)	32 (100.00)	
	20000명 이상	7 (28.00)	18 (72.00)	25 (100.00)	
	Total	137 (70.62)	57 (29.38)	194 (100.00)	

한편,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대학교수의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최대 76건, 평균적으로 1.52건이었으며,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최대 18건, 평균적으로는 .31건이었다. 비교적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국내대학 교수는 연구를 목적으로 한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중이 더 크다면, 외국대학 학교수의 경우는 주로 강의를 목적으로 한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47〉 교수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대학 교수 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강의	건수	194	0.00	76.00	1.52	7.52
	비용(한국)	194	0.00	830587.00	10572.82	68514.59
	비용(상대국)	194	0.00	900.00	5.93	66.97
연구	건수	194	0.00	18.00	0.31	1.57
	비용(한국)	194	0.00	366000.00	3256.13	27761.08
	비용(상대국)	194	0.00	12000.00	95.05	919.77

가. 연구

1) 연구 활동의 국제화

□ 외국연구소 유치 현황

국내 대학 중, 외국의 우수 연구소 유치한 대학은 194개 대학 중 불과 8개 대학이었다. 10개 연구소 중 절반인 5개 연구소가 미국에서 유치되었으며, 나머지는 캐나다, 호주, 일본, 오스트리아로 집계되었다.

〈표 V-48〉 외국연구소 유치 현황

	대학명	연구소		
		국가명	설치시기	연구분야
국공립	경인교육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계	1			
사립		미국		RF ID
	한국정보통신	캐나다		광통신
		호주		광통신
		고려	‘08. 3	미기재
	홍익	미국	‘05.10	디자인공학
	연세	미국	‘99.10	IT
	한남	미국	‘05. 3	생명공학
	한양	일본	‘05. 5	NIT, NBT
	인하	오스트리아		자동차 엔진
계	8			
합계	9			

□ 대학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소 현황

우리나라 대학이 국제 공동 연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소재 지역을 보면 일본과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대학이 17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13개 대학, 프랑스와 10개 대학, 중국과 8개 대학, 이탈리아와 8개 대학이 국제 공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표 V-48> 대학(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 현황

구분	국가명	대학수
아시아	일본	17
	중국	8
	태국	1
	베트남	1
소 계		27
아메리카	미국	13
	캐나다	5
	소 계	28
유럽	프랑스	10
	독일	3
	스위스	2
	스페인	2
	이탈리아	8
	스웨덴	1
	이스라엘	1
	터키	1
	폴란드	1
	스페인	1
	영국	1
소 계		31
오세아니아	호주	2
		2
합 계		88

2. 국제화 영역간 관련성 분석

가. 국제화 전략, 조직, 예산, 정보에 따른 현황 분석

1) 국제화를 위한 발전전략 시기별 목표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

각 대학의 국제화 발전전략 수립 여부가 국제화 현황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V-50>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에 분교 등의 학교 설립 및 계획 유무, 국내 학생의 공동 학위 취득 현황 유무, 외국인 학생의 공동 학위 취득 현황 유무, 교육과정 외국진출 현황 유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제화 현황과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국제화 발전전략의 수립 여부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학생 현황과 큰 관련성을 가졌다.

<표 V-50> 국제화 발전전략 유무에 따른 차이 검정결과

		국제화발전전략		Total	Pearson Chi-Square	유의확률
		없음	있음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없음	48 (72.73)	46 (35.94)	94 (48.45)	23.596	.000
	있음	18 (27.27)	82 (64.06)	100 (51.55)		
	Total	66 (100.00)	128 (100.00)	194 (100.00)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없음	34 (64.15)	19 (35.85)	53 (100.00)	29.493	.000
	있음	32 (22.70)	109 (77.30)	141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외국인 교수 주거 지원 여부	없음	36 (55.38)	29 (44.62)	65 (100.00)	19.877	.000
	있음	30 (23.26)	99 (76.74)	129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국제교류 협력 협정을 위한 외국대학 유무	없음	24 (82.76)	5 (17.24)	29 (100.00)	36.083	.000
	있음	42 (25.45)	123 (74.55)	165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외국에 분교 등 학교설립 유무	없음	65 (34.76)	122 (65.24)	187 (100.00)	1.260	.426
	있음	1 (14.29)	6 (85.71)	7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교육과정 공동운영 여부	없음	64 (38.32)	103 (61.68)	167 (100.00)	9.896	.000
	있음	2 (7.41)	25 (92.59)	27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국내학생의 복수학위 취득 현황	없음	65 (40.88)	94 (59.12)	159 (100.00)	18.476	.000
	있음	1 (2.86)	34 (97.14)	35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외국 학생의 복수 학위 취득현황 유무	없음	65 (37.14)	110 (62.86)	175 (100.00)	7.760	.004
	있음	1 (5.26)	18 (94.74)	19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국내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없음	66 (35.11)	122 (64.89)	188 (100.00)	3.192	.079
	있음	0 (0.00)	6 (100.00)	6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외국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없음	66 (100.00)	127 (99.22)	193 (99.48)	.518	1.000
	있음	0 (0.00)	1 (0.78)	1 (0.52)		
	Total	66 (100.00)	128 (100.00)	194 (100.00)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학부)	없음	50 (51.55)	47 (48.45)	97 (100.00)	26.546	.000
	있음	16	81	97		

		(16.49)	(83.51)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대학원)	없음	60 (45.80)	71 (54.20)	131 (100.00)	24.942	.000
	있음	6 (9.52)	57 (90.48)	63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외국어/국제화 학습 강좌(학부)	없음	34 (62.96)	20 (37.04)	54 (100.00)	27.924	.000
	있음	32 (22.86)	108 (77.14)	140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외국어/국제화 학습 강좌(대학원)	없음	55 (41.98)	76 (58.02)	131 (100.00)	11.399	.001
	있음	11 (17.46)	52 (82.54)	63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외국인 학생 유무	없음	28 (71.79)	11 (28.21)	39 (100.00)	31.030	.000
	있음	38 (24.52)	117 (75.48)	155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학생 유무	없음	45 (63.38)	26 (36.62)	71 (100.00)	43.004	.000
	있음	21 (17.07)	102 (82.93)	123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외국인 교원 유무	없음	35 (71.43)	14 (28.57)	49 (100.00)	40.870	.000
	있음	31 (21.38)	114 (78.62)	145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외국 연구소 국내 대학 유치 여부	없음	66 (35.68)	119 (64.32)	185 (100.00)	4.866	.029
	있음	0 (0.00)	9 (100.00)	9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대학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 활동	없음	63 (39.87)	95 (60.13)	158 (100.00)	12.994	.000
	있음	3 (8.33)	33 (91.67)	36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해외 인턴십 유무	없음	61 (47.29)	68 (52.71)	129 (100.00)	30.187	.000
	있음	5 (7.69)	60 (92.31)	65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교육과정 외국진출여부	없음	65 (34.57)	123 (65.43)	188 (100.00)	.831	.666
	있음	1 (16.67)	5 (83.33)	6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교수	없음	56 (48.28)	60 (51.72)	116 (100.00)	26.119	.000
	있음	10 (12.82)	68 (87.18)	78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 교수	없음	62 (45.26)	75 (54.74)	137 (100.00)	26.220	.000
	있음	4 (7.02)	53 (92.98)	57 (100.00)		
	Total	66 (34.02)	128 (65.98)	194 (100.00)		

2) 국제화 전담기구 설치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각 대학의 국제화 전담기구 설치 여부가 국제화 현황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V-51>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화 전담기구 설치 여부는 외국에 분교 등의 학교 설립 및 계획 유무, 국내 학생의 공동 학위 취득 현황 유무, 외국인 학생의 공동 학위 취득 현황 유무, 외국 연구소 국내 대학 유치 여부, 교육과정 외국진출 현황 유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제화 현황과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국제화 전담기구 설치 여부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외국학생

을 위한 기숙사 설치, 국제교류 협력 협정을 위한 외국대학 유무,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학생 유무 등과 큰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1〉 전담기구 설치 유무 따른 차이 검정결과

		전담기구유무		Total	Pearson Chi-Square	유의확률
		없음	있음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없음	50 (53.19)	44 (46.81)	94 (100.00)	49.826	.000
	있음	7 (7.00)	93 (93.00)	100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없음	33 (62.26)	20 (37.74)	53 (100.00)	38.002	.000
	있음	24 (17.02)	117 (82.98)	141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인 교수 주거 지원 여부	없음	34 (52.31)	31 (47.69)	65 (100.00)	24.763	.000
	있음	23 (17.83)	106 (82.17)	129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국제교류 협력 협정을 위한 외국대학 유무	없음	26 (89.66)	3 (10.34)	29 (100.00)	59.701	.000
	있음	31 (18.79)	134 (81.21)	165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에 분교 등 학교설립 유무	없음	56 (29.95)	131 (70.05)	187 (100.00)	.798	.676
	있음	1 (14.29)	6 (85.71)	7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교육과정 공동운영 여부	없음	55 (32.93)	112 (67.07)	167 (100.00)	7.299	.006
	있음	2 (7.41)	25 (92.59)	27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국내학생의 복수학위 취득 현황	없음	55 (34.59)	104 (65.41)	159 (100.00)	11.529	.000
	있음	2 (5.71)	33 (94.29)	35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 학생의 복수 학위 취득현황 유무	없음	56 (32.00)	119 (68.00)	175 (100.00)	5.905	.015
	있음	1 (5.26)	18 (94.74)	19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국내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없음	57 (30.32)	131 (69.68)	188 (100.00)	2.576	.180
	있음	0 (0.00)	6 (100.00)	6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없음	57 (100.00)	136 (99.27)	193 (99.48)	.418	1.000
	있음	0 (0.00)	1 (0.73)	1 (0.52)		
	Total	57 (100.00)	137 (100.00)	194 (100.00)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학부)	없음	45 (46.39)	52 (53.61)	97 (100.00)	27.054	.000
	있음	12 (12.37)	85 (87.63)	97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대학원)	없음	51 (38.93)	80 (61.07)	131 (100.00)	17.731	.000
	있음	6 (9.52)	57 (90.48)	63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어/국제화 학습 강좌(학부)	없음	33 (61.11)	21 (38.89)	54 (100.00)	36.308	.000
	있음	24 (17.14)	116 (82.86)	140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어/국제화	없음	50	81	131	15.010	.000

		(38.17)	(61.83)	(100.00)		
학습 강좌(대학원)	있음	7 (11.11)	56 (88.89)	63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인 학생 유무	없음	28 (71.79)	11 (28.21)	39 (100.00)	42.320	.000
	있음	29 (18.71)	126 (81.29)	155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학생 유무	없음	41 (57.75)	30 (42.25)	71 (100.00)	43.424	.000
	있음	16 (13.01)	107 (86.99)	123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인 교원 유무	없음	28 (57.14)	21 (42.86)	49 (100.00)	24.351	.000
	있음	29 (20.00)	116 (80.00)	145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외국 연구소 국내 대학 유치 여부	없음	56 (30.27)	129 (69.73)	185 (100.00)	1.518	.287
	있음	1 (11.11)	8 (88.89)	9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대학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 활동	없음	56 (35.44)	102 (64.56)	158 (100.00)	15.078	.000
	있음	1 (2.78)	35 (97.22)	36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해외 인턴십 유무	없음	56 (43.41)	73 (56.59)	129 (100.00)	36.523	.000
	있음	1 (1.54)	64 (98.46)	65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교육과정 외국진출여부	없음	57 (30.32)	131 (69.68)	188 (100.00)	2.576	.183
	있음	0 (0.00)	6 (100.00)	6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교수	없음	48 (41.38)	68 (58.62)	116 (100.00)	20.016	.000
	있음	9 (11.54)	69 (88.46)	78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 교수	없음	56 (40.88)	81 (59.12)	137 (100.00)	29.692	.000
	있음	1 (1.75)	56 (98.25)	57 (100.00)		
	Total	57 (29.38)	137 (70.62)	194 (100.00)		

3) 국제화 관련 예산 할당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각 대학의 국제화 관련 예산 할당 여부가 국제화 현황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V-51>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화 관련 예산의 할당 여부는 국내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외국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외국 연구소 국내 대학 유치 여부, 교육과정 외국진출여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제화 현황 유무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화 관련 예산 할당 여부는 국제교류 협력 협정을 위한 외국대학 유무, 외국인 교수 주거 지원 여부, 외국인 교원 유무, 외국인 학생 유무 등과 큰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2> 국제화 관련 예산 할당 여부 따른 차이 검정결과

		예산할당		Total	Pearson Chi-Square	유의확률
		없음	있음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없음	40 (83.33)	54 (36.99)	94 (48.45)	31.068	.000
	있음	8 (16.67)	92 (63.01)	100 (51.55)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인 학생을	없음	28	25	53	30.896	.000

		(58.33)	(17.12)	(27.32)		
위한 기숙사 운영	있음	20 (41.67)	121 (82.88)	141 (72.68)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인 교수 주거 지원 여부	없음	36 (75.00)	29 (19.86)	65 (33.51)	49.292	.000
	있음	12 (25.00)	117 (80.14)	129 (66.49)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국제교류 협력 협정을 위한 외국대학 유무	없음	25 (52.08)	4 (2.74)	29 (14.95)	69.179	.000
	있음	23 (47.92)	142 (97.26)	165 (85.05)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에 분교 등 학교설립 유무	없음	48 (100.00)	139 (95.21)	187 (96.39)	2.388	.000
	있음	0 (0.00)	7 (4.79)	7 (3.61)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교육과정 공동운영 여부	없음	47 (97.92)	120 (82.19)	167 (86.08)	7.456	.004
	있음	1 (2.08)	26 (17.81)	27 (13.92)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국내학생의 복수학위 취득 현황	없음	46 (95.83)	113 (77.40)	159 (81.96)	8.304	.002
	있음	2 (4.17)	33 (22.60)	35 (18.04)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 학생의 복수 학위 취득현황 유무	없음	48 (100.00)	127 (86.99)	175 (90.21)	6.925	.004
	있음	0 (0.00)	19 (13.01)	19 (9.79)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국내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없음	48 (100.00)	140 (95.89)	188 (96.91)	2.036	.339
	있음	0 (0.00)	6 (4.11)	6 (3.09)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없음	48 (100.00)	145 (99.32)	193 (99.48)	.330	1.000
	있음	0 (0.00)	1 (0.68)	1 (0.52)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학부)	없음	37 (77.08)	60 (41.10)	97 (50.00)	18.713	.000
	있음	11 (22.92)	86 (58.90)	97 (50.00)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대학원)	없음	44 (91.67)	87 (59.59)	131 (67.53)	16.951	.000
	있음	4 (8.33)	59 (40.41)	63 (32.47)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어/국제화 학습 강좌(학부)	없음	31 (64.58)	23 (15.75)	54 (27.84)	42.879	.000
	있음	17 (35.42)	123 (84.25)	140 (72.16)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어/국제화 학습 강좌(대학원)	없음	43 (89.58)	88 (60.27)	131 (67.53)	14.151	.000
	있음	5 (10.42)	58 (39.73)	63 (32.47)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인 학생 유무	없음	26 (54.17)	13 (8.90)	39 (20.10)	46.076	.000
	있음	22 (45.83)	133 (91.10)	155 (79.90)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학생 유무	없음	37 (77.08)	34 (23.29)	71 (36.60)	45.053	.000
	있음	11 (22.92)	112 (76.71)	123 (63.40)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인 교원	없음	30	19	49	46.860	.000

		(62.50)	(13.01)	(25.26)		
유무	있음	18 (37.50)	127 (86.99)	145 (74.74)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외국 연구소 국내 대학 유치 여부	없음	48 (100.00)	137 (93.84)	185 (95.36)	3.103	.116
	있음	0 (0.00)	9 (6.16)	9 (4.64)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대학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 활동	없음	46 (95.83)	112 (76.71)	158 (81.44)	8.739	.002
	있음	2 (4.17)	34 (23.29)	36 (18.56)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해외 인턴십 유무	없음	45 (93.75)	84 (57.53)	129 (66.49)	21.266	.000
	있음	3 (6.25)	62 (42.47)	65 (33.51)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교육과정 외국진출여부	없음	48 (100.00)	140 (95.89)	188 (96.91)	2.036	.339
	있음	0 (0.00)	6 (4.11)	6 (3.09)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교수	없음	46 (95.83)	70 (47.95)	116 (59.79)	34.459	.000
	있음	2 (4.17)	76 (52.05)	78 (40.21)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 교수	없음	46 (95.83)	91 (62.33)	137 (70.62)	19.544	.000
	있음	2 (4.17)	55 (37.67)	57 (29.38)		
	Total	48 (100.00)	146 (100.00)	194 (100.00)		

4)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각 대학의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가 국제화 현황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표 V-53>와 같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학생 또는 교수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는 외국에 분교 등 학교설립 유무, 교육과정 공동운영 여부, 국내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외국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외국 연구소 국내 대학 유치 여부, 교육과정 외국진출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화 관련 예산 할당 여부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국제교류 협력 협정을 위한 외국대학 유무, 외국인 학생 유무,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등에 큰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3>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차이 검정결과

		오리엔테이션		Total	Pearson Chi-Square	유의확률
		없음	있음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없음	45 (91.84)	49 (33.79)	94 (48.45)	49.402	.000
	있음	4 (8.16)	96 (66.21)	100 (51.55)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없음	35 (71.43)	18 (12.41)	53 (27.32)	64.238	.000
	있음	14 (28.57)	127 (87.59)	141 (72.68)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인 교수 주거 지원 여부	없음	31 (63.27)	34 (23.45)	65 (33.51)	26.062	.000
	있음	18 (36.73)	111 (76.55)	129 (66.49)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국제교류 협력 협정을 위한 외국대학 유무	없음	23 (46.94)	6 (4.14)	29 (14.95)	52.770	.000
	있음	26 (53.06)	139 (95.86)	165 (85.05)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에 분교 등 학교설립 유무	없음	49 (100.00)	138 (95.17)	187 (96.39)	2.454	.195
	있음	0 (0.00)	7 (4.83)	7 (3.61)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교육과정 공동운영 여부	없음	46 (93.88)	121 (83.45)	167 (86.08)	3.325	.093
	있음	3 (6.12)	24 (16.55)	27 (13.92)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국내학생의 복수학위 취득 현황	없음	48 (97.96)	111 (76.55)	159 (81.96)	11.351	.000
	있음	1 (2.04)	34 (23.45)	35 (18.04)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 학생의 복수 학위 취득현황 유무	없음	49 (100.00)	126 (86.90)	175 (90.21)	7.118	.004
	있음	0 (0.00)	19 (13.10)	19 (9.79)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국내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없음	49 (100.00)	139 (95.86)	188 (96.91)	2.092	.340
	있음	0 (0.00)	6 (4.14)	6 (3.09)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유무	없음	49 (100.00)	144 (99.31)	193 (99.48)	.340	1.000
	있음	0 (0.00)	1 (0.69)	1 (0.52)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어 전용강좌 유무(학부)	없음	41 (83.67)	56 (38.62)	97 (50.00)	29.735	.000
	있음	8 (16.33)	89 (61.38)	97 (50.00)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어	없음	44	87	131	14.827	.000

		(89.80)	(60.00)	(67.53)		
전용강좌 유무(대학원)	있음	5 (10.20)	58 (40.00)	63 (32.47)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어/국제화 학습 강좌(학부)	없음	31 (63.27)	23 (15.86)	54 (27.84)	40.969	.000
	있음	18 (36.73)	122 (84.14)	140 (72.16)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어/국제화 학습 강좌(대학원)	없음	43 (87.76)	88 (60.69)	131 (67.53)	12.234	.000
	있음	6 (12.24)	57 (39.31)	63 (32.47)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인 학생 유무	없음	28 (57.14)	11 (7.59)	39 (20.10)	55.998	.000
	있음	21 (42.86)	134 (92.41)	155 (79.90)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학생 유무	없음	35 (71.43)	36 (24.83)	71 (36.60)	34.276	.000
	있음	14 (28.57)	109 (75.17)	123 (63.40)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인 교원 유무	없음	29 (59.18)	20 (13.79)	49 (25.26)	39.970	.000
	있음	20 (40.82)	125 (86.21)	145 (74.74)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외국 연구소 국내 대학 유치 여부	없음	49 (100.00)	136 (93.79)	185 (95.36)	3.189	.115
	있음	0 (0.00)	9 (6.21)	9 (4.64)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대학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 활동	없음	45 (91.84)	113 (77.93)	158 (81.44)	4.686	.033
	있음	4 (8.16)	32 (22.07)	36 (18.56)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해외 인턴십 유무	없음	46 (93.88)	83 (57.24)	129 (66.49)	22.064	.000
	있음	3 (6.12)	62 (42.76)	65 (33.51)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교육과정 외국진출여부	없음	49 (100.00)	139 (95.86)	188 (96.91)	2.092	.340
	있음	0 (0.00)	6 (4.14)	6 (3.09)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교수	없음	41 (83.67)	75 (51.72)	116 (59.79)	15.550	.000
	있음	8 (16.33)	70 (48.28)	78 (40.21)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 교수	없음	48 (97.96)	89 (61.38)	137 (70.62)	23.619	.000
	있음	1 (2.04)	56 (38.62)	57 (29.38)		
	Total	49 (100.00)	145 (100.00)	194 (100.00)		

나. 국제화 현황의 결정요인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화 현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국제화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제화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기보다는, 국제화를 주요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화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연속변수로 파악하는 분석기법보다는 국제화 현황의 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종속변인으로 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화 현황 중,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제공 여부(대학 활동), 해외 인턴십 참여(학생 활동), 교수 교류

프로그램 참국 국내 교수(교수 활동)의 세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대학들의 기본정보를 나타내는 소재 지역의 규모, 설립 유형, 대학의 규모의 문항과 특성과, 국제화 목표, 조직, 예산, 정보를 나타내는 문항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V-54>과 같다.

<표 V-54> 국제화 현황 결정요인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유무		해외 인턴십 참여		교수 교류프로그램 참가 국내 교수	
	B	Exp(B)	B	Exp(B)	B	Exp(B)
지역규모	0.27 (0.42)	1.32	1.60*** (0.43)	4.96	0.76* (0.36)	2.15
설립유형	-0.74 (0.51)	0.48	-0.53 (0.54)	0.59	0.89* (0.43)	2.44
대학규모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42** (0.47)	4.15	0.40 (0.53)	1.49	0.40 (0.44)	1.49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1.61** (0.61)	4.99	1.35* (0.58)	3.88	0.58 (0.53)	1.79
20,000명 이상	3.83*** (1.35)	45.96	2.27** (0.86)	9.65	0.70 (0.72)	2.01
국제화전략	-0.45 (0.50)	0.63	0.60 (0.60)	1.82	0.81 (0.46)	2.26
국제화전담기구	1.18* (0.59)	3.24	2.84* (1.18)	17.12	0.56 (0.57)	1.76
오리엔테이션 실시	2.18** (0.72)	8.89	0.49 (0.84)	1.63	0.27 (0.58)	1.31
대학총예산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Constant	-3.60*** (0.73)	0.03	-5.64*** (1.21)		-2.86*** (0.54)	0.06
사례수	194		194		194	
-2 Log likelihood	156.684***		142.317***		198.184	
Nagelkerke R Square	.585		.580		.376	

우선,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특성과 국제화 관련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대학에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는 대학규모와 국제화전담기구의 설립 유무, 외국인 교수 또는 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의 존재는 대학 규모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5,000명 미만의 대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의 대학과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의 대학은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존재할 가능성이 각각 4.15배와 4.99배 컸으며, 20,000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그 수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45.96배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생의 숫자를 통해서 파악한 대학규모 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50,0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보다는 20,000명 이상의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필요의 증가에 따라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리엔테이션의 실시도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데, 오리엔테이션이 존재하는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의 8.89배였다. 오리엔테이션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존재하는 외국인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규모, 설립 유형, 국제화 전담 기구 설치 유무, 대학 예산의 영향력은 없었는데, 이는 앞의 설명과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이 대학의 특성과 국제화 추진 활동보다는 학교에 존재하는 외국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에 참여에는 지역규모, 대학규모, 국제화 전담기구 설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대도시 및 시도군으로 파악되는 지역규모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에 참여할 가능성은 대도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약 4.9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과 시도군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지는 정보의 격차 등의 기본 여건 차이로 추정되지만, 이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학규모 역시 큰 영향을 주었는데, 20,000명 이상의 대학은 5,000명 이하의 대학보다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에 참여할 가능성이 약 9.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인턴십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존재하는 국내 학생들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수가 증가할 수록 해외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화 전담기구의 설치가 설치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해외 인턴십에 참여할 학생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17.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인턴십은 국내 대학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외국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교수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교수의 존재에는, 지역규모와 설립유형, 대학예산이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소시에 소재한 대학은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교수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교수가 존재할 가능성은 2.15배 컸으며,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일 때는 그 가능성이 2.44배 컸다. 대학 예산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유의하지만, 실재적인 효과는 1로서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가 존재할 가능성은 대도시에 존재하는 사립학교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었으며, 대학 규모나 국제화 추진 여부와는 영향관계가 없었다.

3. 지표에 관한 시사점

이상으로 개발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 국제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모든 국제화 활동이 국공립 대학, 서울 소재 대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립대학의 국제화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 교류 부분에서는 상대국의 법, 제도, 운영의 제약을 받는 해외 분교의 설치나 외국 연구소 유치, 또는 강의 교수 교류가 저조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교육 부분 뿐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상호 국제화 운영 방침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국제적 통용성을 가진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교환학생,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학생 교환 활동이 국제화의 중심이 되어 있어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외국인 교수를 위한 주거 지원 등, 시설 여건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공동학위 수여 혹은 복수학위 수여,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국제 교류 활동은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자체적으로 국제화 전담 부서는 물론 국제 교류 부서를 따로 설치하

고 적극적인 외국인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문화적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비율은 높으나 대학 총 예산에 대한 국제화 예산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아 대학 국제화,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성을 가진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 교류 협정이나 공동연구 등이 주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 역시 아시아에서의 유입 비율이 높으므로 아시아 허브 구축을 위한 아시아 중심의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수립과 실행 및 평가의 기반이 되는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을 비교 분석 하여 국제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제화 접근 방법과 각각의 접근 방법에 따른 국제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Knight의 연구, IMHE(고등교육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OECD 프로그램)에서 제안하고 있는 IQRP, ACE(미국교육위원회)의 국제화 지표, 오사카 대학의 국제화 지표, 국내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등의 분석을 통해 전략 및 계획, 지원 및 인프라,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의 교류활동, 연구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어지는 고등교육 국제화 영역이라는 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해외 동향을 목적, 내용, 추진제도 및 기구, 재정 체제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화를 위해 다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국제화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도형의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였다. 먼저 고등교육 지표 개발의 첫 단계로 국제화 지표 개발의 준거를 타당성, 포괄성과 간명성의 조화, 기능성으로 설정하고 평가 영역 및 부분을 설정하였다. 고등교육 국제화 평가 영역은 목표 및 계획, 국제화 부서의 조직구성, 예산 책정 및 집행, 지원체제 및 기타 인프라, 교육과정, 인적 구성원의 국제화, 연구·교육활동의 국제화 등, 7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하위 항목과 항목별 세부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고등교육 지표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 대학관계자 설문조사, 고등교육 국제화 관계자 집중회의, 최종 검토회의 등, 총 4단계에 걸쳐 지표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지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표 및 지수를 바탕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응답에 응하지 않은 7개 대학을 제외한 194개 대학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 및 전략 영역을 살펴보면, 약 60%에 해당하는 115개 대학이 국제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학 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 목표 및 전략 수립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 및 예산 영역의 경우, 국제화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137개 대학으로 조사 대상 대학의 70%에 이르고 있었다. 대학 특성별로는 지역이나 설립 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국제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대학 평균 국제화 예산은 17억 정도로 대학 총예산의 약 1.8%를 국제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대학 특성별로는 국립대학의 경우 97%에 해당하는 대학이 국제화 관련 예산을 할당 집행하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대학의 90% 이상이 대학 국제화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

지원체제 및 기타 인프라의 경우,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을 주최하는 비율은 조사 대상 대학의 약 50% 정도였으며 규모가 큰 대학에서 외국인 지원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 문화적응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 프로그램 편성의 측면에서도 학생 수가 20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의 경우, 외국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국제교류 관련 협의체 가입 등, 국제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의 56.7%가 국제 교류관련 협의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대학 규모로 대학 규모의 대소에 따라 국제 네트워크 형성 정도가 다르나 나타났다. 대도시 소재의 사립대학의 경우 국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교육과정 영역을 교과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한국

어 연수 프로그램, 영어전용 강좌, 외국어 및 국제학습 관련 과목 등의 교과과정의 모든 항목에서 대학 규모의 영향이 가장 컸다. 즉, 대학규모가 클수록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도 많았다. 최근 들어 국제화 지표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영어 전용강좌의 경우, 대규모 대학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외국어 전용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거나 외국 연구소 유치 및 해외 분교 설치를 통해 학점 교류나 복수 학위, 공동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교원 및 학생의 교류활동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외국인 교원배율은 전임 교원의 약 3.54% 정도이며 겸임, 초빙, 시간 강사 등을 포함하며 대학 평균 18.08명으로 대학 교원의 2.7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지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국제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국제화 현황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교육과정 중 한국어 연수, 국제 교류 영역에서의 학생의 해외 인턴십, 교수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가 등이 소재지는 물론 대학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책 제언

이상의 해외 정책 동향 및 지표 및 지수 개발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대학 현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 수준의 지원체제의 구축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문부과학성 주도로 대학 국제전략본부 사업단을 구성하여 대학 국제화를 위한 조직 및 인프라 개발은 물론 교육과정 개선, 국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국가 주도형의 211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수준의 인재 양성을 통한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대학의 경우 개별 대학 수준에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화 전담 기구 설치와 같은 인프라 구축은 물론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 연구자의 국제 교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분교의 설립과 같은 국가 수준의 외교 능력이 요구되는 국제화의 경우는 전체 대학 중, 4개에 불과하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국제화 전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수준의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와 더불어 해외 정보 발신 기능을 가진 국제 컨소시엄 및 협력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미국과의 다양한 국제 협력망을 구축하여 고등 교육 수준의 국제적인 인재 양성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주로 연구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 참석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컨소시엄 및 협력망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해외 발신과 외국인 학생 및 연구자 유치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국제적 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인 인재 개발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학생, 연구자 수준에서 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차원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 SD 등을 통해 국제화 인력 양성을 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재외 국민, 유학생, 화교 등을 통해 언어 뿐 아니라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국제화를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혹은 한국문화를 알리는 교육과정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 조차 국제적인 인재 개발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유학생 정책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SD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 체제의 확립이다. 국제화 지표 및 지수가 개발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대학의 국제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표 및 지수가 대학의 국제화 평가 지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국제화 지표 및 지수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국제화 실태를 보면, 국제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은 서울 소재의 대규모 대학이었다. 설립별로는 특히 사립대학에서 예산 배분은 물론 국제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으며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의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하고 있었다. 선택과 집중의 재정 배분을 통해 대학 특성화를 꾀해 효율적인 대학 국제화를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국제화 지표 및 지수가 평가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근 외 (2006).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 및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센터.
- 김경화(2003). 대학교육의 수월성 강화를 위한 대학수업의 질적 개선에 대한 사례연구. *열린교육연구*, 11(2) 345-375.
- 김혜숙(2006). 학부교육 국제화의 교육정치학, **고등교육 국제화의 교육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2006년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06. 6. 24.
- 김안나 외(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 김안나 외(2004).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박남기(2004). 호주, 프랑스, 일본의 대학평가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대학평가제도 발전 방향. *비교교육연구*, 14(2), 67-94
- 신현석(2006). 대학원교육 국제화의 교육정치학, **고등교육 국제화의 교육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2006년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06. 6. 24.
- 유현숙 외(1999).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외(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 이만희 외(2002).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
- 이만희 외(2003). **고등교육기관 체제의 수행지표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식 외(2004). **한국 고등교육 체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현청 외(2002). 미국대학 평가기구(CHEA)와의 종합적 평가업무 협력 개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현청 외(2005). 국내 대학의 국제협력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AASCU.(2006). *Value-added Assessment. Perspectives*. Washington, D.D. Academic quality, league tables, and public poli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university ranking system. *Higher Education*. 49, 495–533.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2006). *Value-added assessment: Accountability's new frontier*. Perspectives. Spring, 2006.
- Astin, A. W.(1985). *Achieving Educational Excell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Astin, A. W. (1993). *Assessment for Excellence: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Phonix, AZ.
- Banta, T. W. & Fisher, H. S.(1984). Performance funding: Tennessee's experiment. *New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2(4), 29.
- Barnetson, B. & Cutright, M. (2000). Performance indicators as conceptual technologies. *Higher Education*. 40(3). 277–292. I
- Barnett, R. (1992). *Improving Higher Education: Total Quality Care. Buckingham*: SRHE and Open University Press.
- Barnett, R. (2005). *Reshaping the University: New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 Scholarship and Teaching (eds.)*. New York: Open Universtiuy Press &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 Knight, J. & de Wit, H. (1997).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n Pacific Countries*. Amsterdem: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EAIE).
- Rudzki, R. (1995). The Application of a strategic management model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29(4), 421–441.

文部科學省(2007) 日本の留学生制度概要

文部科學省(2005) 國際研究交流の概要

文部科學省(2007) 大學等間交流協定締結狀況調査

獨立行政法人日本學術振興會(2007),大學の優れた國際展開モデルについて（中間報告書）

文部科學省(2007), 文部科學白書

大阪大學科硏プロジェクト(2006), 大學の國際化の評価指標策定に関する實証的研究